

국제고려학

제8호

평양지부 개설 기념 특집호

<평양지부>

<고려>명칭의 역사적유래와 의미	공명성	1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태성리 3호고구려벽화고분	김인철	20
민족수난기 대중가요(류행가)에 어린 정서세계 -가사를 중심으로-	류만	39
<비변사등록>의 사료적가치와 그의 번역에서 견지한 몇가지 원칙	송현원	58
최한기의 철학사상	정성철	77
교착어접사의 이론과 <단의성>을 론함	정순기	100
조선식한문의 특성고찰	최동언	121

<일본지부>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시기의 『보조서당』의 유무에 관한 연구	朴龍玉	143
A Study of South Korean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久津美香奈子	157

2002

국제고려학회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8 호

평양지부 개설 기념 특집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특집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작년 12월에 결성된 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의 탄생이 맷은 결실을 본부학회지 『국제고려학회』 제8호에서 보게 되어 무한히 기쁩니다. 우선 이러한 뜻깊은 결과를 이루는 데 힘써 주신 북녘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배포된 ISKS의 News Letter에 기재된 여러 축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번에 이루어진 평양지부의 재건이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 우리 학문의 남북교류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학회가 앞장설 것을 기약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과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제고려학회의 회원여러분들께서 우리 학문의 전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우리 국제고려학회는 1990년 창설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우리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던 저희들의 순수한 뜻은 종종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고려학회는 남북 양측에 모두 지부를 갖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규모의 학술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가 표방하고 유지해 온 남북간의 엄정증립과 학문적으로는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이러한 결실을 맺게 하였다 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북녘 학자들의 귀중한 논문을 실은 이 특별편집 『국제고려학』 제8호의 출간을 다시 한번 경축하면서 내일의 더욱더 큰 발전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10일

국제고려학회 회장

강희웅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8 호

평양지부 개설 기념 특집호

<평양지부>

<고려>명칭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	공명성	1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태성리 3호 고구려 벽화고분	김인철	20
민족수난기 대중가요(류행가)에 어린 정서세계 -가사를 중심으로-	류만	39
<비변사등록>의 사료적 가치와 그의 번역에서 견지한 몇 가지 원칙	송현원	58
최한기의 철학사상	정성철	77
교착어접사의 이론과 <단의성>을 논함	정순기	100
조선식 한문의 특성 고찰	최동언	121

<일본지부>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시기의 『보조서당』의 유무에 관한 연구	朴龍玉	143
A Study of South Korean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久津美香奈子	157

《고려》명칭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

공명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호칭으로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코리아)》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더우기 6.15 공동선언으로 통일에로의 리정표가 확고히 마련된 오늘 새로운 통일조국의 국호를 위해서도 고려호칭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인 절박성을 요한다고 할수 있다.

론문에서는 우리 나라가 《고려(코리아)》로 불리울수 있도록 하는데서 역사적 기틀을 마련하였던 천년강대국 고구려국호와 대외적으로 이름을 떨쳐였던 첫 통일국가 고려국호의 역사적 유래와 계승관계 및 그 의미를 고찰하려고 하였다.

1. 고구려국호의 역사적 유래와 의미

지난 시기 일부 사가들속에서는 말과 글로 표현되는 국호의 특성을 리용하여 고구려국호를 만주어나 몽골어 등에서 찾으려 하거나 또는 한자의 뜻과 의미로 해석하여 고구려의 족속, 언어계통문제를 외곡해석하는 견해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지난 시기 고구려국호에 대한 해석은 고구려라는 단어를 고유어의 반영으로 해석하려는 견해와 한자의 뜻을 빌어 해석하려는 견해로 나누어 볼수 있다.

고구려를 고유어의 반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일제의 관변사학자인 시라도리 구라기찌는 고구려라는 국호에 대하여 고구려는 이 나라 말에서 성을 가리키는 말인 《구루》와 동의어이며 그 뜻은 《성곽》, 《도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반증자료로서 몽골어나 통그스어에서도 성책을 홀가(xorgha), 쿠레(kure)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와 구루사이의 어음적, 어의적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도 없이 몽골어나 통구스어까지 확대하여 그 어원을 찾으려고 한 잘못된 견해이다.¹

다음으로 다까하시 모리다까는 고구려국호에 대하여 옛 조선말의 《고오리》, 《고을》과 같은 말이며 그 뜻은 《새롭게 개척된 땅》, 《큰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²

고구려 - 고려라는 말을 고유조선어로 보고 해석하려고 한 것은 좋은 시도였으나 고구려라는 단어의 결합관계와 고대조선어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시가 없이 비슷한 음가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구루》, 《고을》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고

1 《사학잡지》(일문) 25편 4호 430페이지

2 《조선학보》(일문) 54집 296페이지

구려라는 원뜻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수 없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고》자는 웃(上), 높은(高), 뛰여 난(秀) 등의 뜻을 나타내고 구려는 《구루》와 같은 말로서 성을 나타내는데 음은 《솔스골》이고 뜻은 《으뜸이 되는 성, 도읍》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반증자료로서 고려를 녀진말에서는 소코, 만주어에서는 솔호, 몽골말에서는 솔코라고 한다는것을 든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오르도스나, 만주, 몽골말로 고려를 솔코, 솔론고스라고 해석하는것은 억지이며 고구려가 《솔스골》로 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³

또한 고구려의 구려를 구루 - 성이라는 고유어로 해석하면서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의미는 고구려의 자연지리적환경으로 인하여 붙여 진 명칭이라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 이 견해의 주장자는 《고구려의 본거지인 압록강, 동가강 등지가 큰 산과 깊은 골이 많아서 그 계곡에 따라 취락이 이루어 진 모양을 <위지> 고구려전에 말하고 있는바이어니와 수맥(물줄기-인용자)을 따른 계곡의 평야가 취락과 교통의 편의가 있는만큼 이와 같은데 방비상 성책도 설비되는 골이 그러한 여러 성격이 불은 말로 되는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것이다.»라고 하였다.⁴

이것 역시 고구려=구루=성이라고 한 시라도리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한것으로서 그것이 어음적 및 어의적으로 지리적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가상적인 견해라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국호 고구려는 그 원래 음이 고마-고을(koma-koul), 콤-고을(kom-koul)에 대한 음차이며 이 경우 고마(koma), 콤(kom)은 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씨비리남쪽의 원시사회에서 신령적인 존재 또는 신령적인 주재자로 널리 숭배한 카메(cama)이고 국호 고구려의 의미는 신도(神都), 신읍(神邑)이라고 한 견해가 있다.⁵

이 견해의 주장자는 고구려의 원래 이름은 고마구려였는데 중국인들이 한개 지명으로서 4글자가 너무 길다고 하여 《고구려》라는 3글자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고구려라는 국호를 제정한것은 고구려사람들인데 왕청같이 《씨비리남쪽의 원시 사회》의 《카메》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인것은 황당한 견해이다.

다음으로 한자의 뜻으로 해석한 견해로서 《연려실기술》에 언급된 리궁익의 견해를 들수 있다. 그는 《고려는 산이 좋고 물이 아름답다는 뜻을 취한것인데 대개 산수가 뛰여 나 천하에서 제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연지리적조건과 결부시켜 한자의 뜻을 해석한것인데 구체적인 자료와 고증이 없으므로 납득할만한 견해가 못된다.

다음으로 《구(句)》자의 구불다는 뜻과 《려(麗)》자의 두발로 려행한다는 뜻을 취하여 고구려라는 말이 《두발로 높은 산과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려행하는 부족》을 나타낸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⁶

3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87년판 100~103페이지

4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87년판 100~103페이지

5 《조선학보》 (일문) 74집 123~139페이지

6 《료해문물학간》 (중문) 1987년 2호 117~119페이지

이 견해의 기저에는 고구려에서 구(句)자가 구용, 구장, 구여와 같은 종족, 지명들에서와 같이 산천이 구불구불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 청나라의 고증사가 단옥재의 견해가 깔려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음가가 같은 다른 한자로 써여 진 구려(句驪)라는 국호에 대하여서는 더 해석을 못하였다.

이와 함께 고구려의 고대 한자음이 주리(朱離)와 같으며 그 뜻은 태양과 같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 이 견해의 주장자는 고구려라는 말에는 처음에 《태양》이라 는 뜻이 그후에는 《파하》, 《거허》와 같은 소리와 의미가 첨부되고 여기에 말이라는 뜻이 더해 지며 마지막에 《구루》라는 음으로 되여 성이라는 뜻도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더우기 필자는 고구려는 고려와 구려라는 두 세력이 결합되어 고구려가 되었다⁷고 하였는데 초기 고구려력사와 그 언어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순수 한자의 뜻과 음에 대한 고증으로만 고구려국호를 해석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이 바로 될수 없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구려국호에 대한 지난 시기의 해석을 보면 고구려라는 국호를 한자나 만주어, 몽골어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고 고유조선어로 보는 경우에 조차 음가가 비슷한 소리를 한두개 대응시켜 본데 지나지 않았다.

지난 시기 고구려국호해석에서 정확한 견해가 나올수 없었던것은 일부 역사가들이 고구려력을 왜소화하고 그의 종족적 및 언어적시원을 통그스족이나 몽골족 또는 그들이 사용한 알타이제어에서 찾으면서 부질 없는론리를 거듭한데 있다.

때문에 고구려국호가 정확히 해석되자면 고구려가 고조선의 계승국이며 고구려주민들이 고조선사람의 후예라는 사실, 따라서 고구려라는 말도 마땅히 고대조선어로 해석되어야 한다는것을 똑바로 인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고구려국호에는 어떤 역사적의미와 유래가 담겨 졌 있는가.

고구려건국설화에는 고구려시조왕인 고주몽의 출생성장과 건국과정 그리고 국호가 제정된 내용이 실려 있다. 여기서 국호제정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주몽이 - 인용자) 졸본천에 이르러 그 땅이 비옥하고 산천이 준엄함을 보고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미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다만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고 이에 따라 <고>를 성씨로 삼았다.»(《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동명성왕)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세종실록》 권154 평안도 평양부 령이조의 설화에도 실려 있다.

우의 설화를 통하여 동명왕이 나라를 세우고 지은 국호는 고구려이며 국호의 첫 글자 《고》는 동명왕의 성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다. 나아가서 이것은 고구려라는 국호를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고》와 《구려》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보게 한다.

더우기 고구려에 앞서 구려라는 국호를 가진 고대국가가 존재하였던 조건에서 고구려라는 국호가 《고》와 《구려》의 두 단어로 이루어 진 국호라는것은 더 말할

7 『교해문물학간』(중문) 1996년 1호 89~96페이지

그리고 골/고로/거루/구려라는 말의 의미는 골구천에서 얻은 신기한 말이라는 의미에서 불인 《거루》라는 뜻을 통해서 《신기한》, 《신비로운》, 《성스러운》, 《큰》등과 같은 뜻을 가진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물론 고구려의 지명에 많이 보이는 《골》이나 《흘(忽)》 그리고 《거루》라는 명칭에 대하여 우의 뜻과는 상반되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우선 《골》의 경우에 《골》, 《흘》은 모두 Kol, khol, hol로 발음되며 그 뜻은 구루와 같이 성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⁹을 하거나 현대조선어의 《고을》과 같은 말로서 중세조선어에서의 《골》과 같은 골짜기로 해석하는 견해¹⁰도 있다.

《삼국사기》지리지 권35와 권37에 실려 있는 고구려지명에는 그 지명끝에 《~흘》이라는 글자가 붙은것이 압록강이북지방까지 합하여 56개가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전국 초기 지명에 보이는 《골(흘)》이라는 글자가 초기고구려지명에 보이는 《골》과 무관하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그 의미에 골짜기, 골, 성 등의 뜻이 포함된다고 볼수 있다.

다만 고구려전국 초기기사에 언급된 《골령》, 《골천》, 《왕골령》, 《골구천》 등에서 《골》은 처음부터 지역단위구분의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고을이나 골짜기, 성이라는 뜻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우에서 듣 지명들에서 령(산)이나 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고을, 골짜기, 성 등의 뜻과 잘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왕골령》에서와 같이 왕과 관련한 신비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보다 더 어울리고 뜻도 원만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루》의 뜻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도 더 증명된다고 할수 있다.

지난 시기 구려를 《거루》와 련관시켜 그것은 고구려의 명마인 《파하마》와 고대국가 구려국의 교역품이었던 《거허》라는 말과 같은 음인 동시에 《거루(駢驥)》라는 한문의 뜻으로 해석하여 《구려》에는 말이라는 뜻이 담겨 져 있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었다.¹¹

이 견해의 주장자는 《강희자전》을 근거 삼아 《거루》의 거(駢)는 말과 노새사이에 생겨 난 벼새이고 루(驥)자는 하늘소를 나타낸것으로서 《거루》도 그러한 말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면서 고구려에 파하마라는 명마가 있었고 또 시기를 거슬러 고구려이전의 구려시기에 교역품으로서 거허라는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거허, 파하, 거루, 구려는 한자음이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거허가 어떻게 말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가를 밝히지 못했고 또 《파하》는 그자체가 말이 아니라 《파수나무밑을 잘 달린다.》는 한자의 뜻을 쓴 것이라는데 대하여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기 그는 고대중국인들이 다른 종족이나 나라의 언어를 자기 나라의 한자의 뜻으로 풀어서 쓴 실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9 《사학잡지》(일문) 25편 4호 430페이지

10 《조선어사연구론문집》 교육도서출판사, 1984년, 36페이지

11 《묘해문물학간》(중문) 1996년 1호, 93~94페이지

그러므로 거루는 용당 한자의 음을 반영하여 구려인들 자신이 적어 놓은 고구려 고유말 즉 고대조선어이며 그 뜻은 골구천에서 얻은 신기한 말과 같이 《신비롭다, 신기하다》로 해석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그것은 중세조선어와 현대조선어에 남아 있는 《거룩하다》는 말의 뜻과 음을 비교해 보아도 알수 있다.

현대조선어의 《위대하다, 성스럽다, 크다》¹²등의 뜻을 가진 거룩하다는 고유조선말은 중세조선어에서는 《거르기》¹³, 《거룩이》, 《거룩하다》¹⁴등으로 표현되었다.

중세시기에 《거르》, 《거륵》으로 발음한 《성스럽다, 거창하다, 위대하다》는 뜻의 말이 고대시기에 《거루》라는 말과 음운상 서로 통한다는 사실은 고구려시기에 《거루》라는 말이 《신비하다, 크다, 성스럽다》등의 뜻을 담고 있었다는것을 립증해 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후세의 같은 음가를 가진 다른 단어들의 뜻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도 더욱 증명된다고 할수 있다.

현대어의 구리, 거울, 꽃, 고리라는 말은 옛날의 구려/고로/거루 등과 같은 음가를 가진 단어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오늘날까지도 좋은 뜻을 가진 말이다.

대표적으로 《거울》이라는 단어는 《훈몽자회》, 《월인석보》 등에서는 그 중 세음이 《거우로》였다. 따라서 고대음이 고로/거루/구려였을수 있다.

물론 거울의 현대뜻은 물체의 모양을 비치여 보는것이지만 거울이 처음으로 만들어 지기 시작한 고대에는 거울의 사용용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대시기 청동거울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맡은 제사주관자, 통치자의 제기(祭器)로 쓰이였다. 이러한 사실은 거울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도가 아니라 《천신에 대한 제사를 담당한 자》 혹은 신적인 관계의 징표물로 쓰이였으며 당시 고로/거루/구려라는 말의 뜻은 결국 《신비하다, 신기한, 신》등과 같았다는것을 말해 준다.

구려지역이었던 집안현 태평구 오도령구문무덤에서 나온 잔줄무늬거울의 뒤면에 태양의 빛을 새겨 넣은것은 당시 거울의 기본용도가 천신(태양)에 대한 제사《주제사》들이 《신적이며 영험적인 존재》라는것을 나타내기 위한 징표물로 썼다는것을 보여 준다고 할수 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꽃과 같이 신비한 자연물을 가리켜 《골》이라고 하였다. 《계림류사》에서는 《꽃(花)은 골(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대조선사람들은 인류가 처음으로 생산리용한 금속인 동을 가리 켜 구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골/거루/구리 등과 같은 말은 현대에 와서는 거룩하다, 구리, 거울, 꽃

12 《조선말대사전》 과학원출판사, 1962년

13 《두창집요》 상권11

14 《삼역총해》 3권, 《한청문감》6권

등이라는 서로 다른 음으로 구별되었으나 고대시기에는 같거나 또한 비슷한 음가를 가진 말로서 신비하거나 신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였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들은 국호 고구려의 구려가 신적이며 성스럽고 크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고유조선말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국호 고구려는 태양, 천손이라는 뜻이 담긴 《고》와 신비하고 성스러우며 크다는 뜻을 가진 《구려》라는 말이 결합되어 《태양이 솟는 신비한 나라》, 《천손이 다스리는 신적인 나라》라는 깊은 뜻이 담겨 전 음운상 아름답고 훌륭한 국호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라는 국호에 이러한 뜻이 담겨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증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고구려라는 국호의 뜻과 잘 어울리게 지은 고구려국왕의 시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광개토왕릉비, 모두루묘지명, 《수서》 등에서도 고구려통치자의 칭호를 《대왕(태왕)》, 《성왕》, 《명왕》, 《신왕》, 《호왕》, 《호태성왕》, 《성제》 등으로 기록하였으며 특히 초기왕들의 시호를 《동명성왕》, 《류리명왕》, 《대무신왕》이라고 하여 모두 《성스럽다, 밝다, 신적이다》 등의 표현들을 골라서 썼다.

다음으로 고구려사람들 자신이나 후세사람들이 모두 고구려를 《성스러운 나라》라고 한 사실을 통해서도 립증된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사람의 무덤인 모두루묘지명에 고구려국에 대하여 《천하사방이 제일 성스러운 나라로 알고 있다.》고 당당히 선언한 사실이라든가 고려의 시인 리규보가 고구려를 《성인의 나라》라고 한 것은 바로 고구려라는 국호에 성스럽고 신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외국인들도 고구려나 그 뒤를 이어 선 나라인 발해를 고구려-구려라고 하면서 《동방의 해 뜨는 나라》라고 하였던 것이다.

우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도 《고구려》라는 국호에는 《태양이 솟는 성스러운 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 더욱 립증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호 고구려와 《고려》라는 호칭과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보기로 한다.

국호 고구려와 《고려》라는 호칭에 대하여 이것을 고구려에서 국호대신에 쓴 약칭이 아니라 중세 초기 중국에서 고구려국왕을 《고려왕》으로 책봉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국호가 《고려》로 개칭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¹⁵

이 견해의 주장자는 중원고구려비나 연가 7년명 금동여래립상에서 고구려인들이 국호를 고려라고 썼는데 이것은 중국 냥나라 무제가 보통 원년(520년)에 고구려의 안장왕을 《녕동장군 고려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구》자를 버리고 국호를 고려로 개정하였다고 하였다. 지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일관

15 《고구려 발해의 고고와 역사》 (일문) 가꾸세이샤, 66~71페이지

하게 국호를 고구려라고 쓴 것은 김부식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제마음 대로 <구>자를 첨부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고까지 억지주장을 하였다.

그러면 과연 이 견해가 옳은 것인가.

그에 의하면 중국에서 고구려국호를 고려라고 한 것은 520년부터이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자기 국호를 고려라고도 썼다. 다름 아닌 475년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였고 5세기 말 늦어서 519년 초에 세워 진 중원고구려비¹⁶나 419년에 제작된 연가 7년명 금동여래립상¹⁷에서 이미 고구려인들 자신이 자기 국호를 고려라는 헛칭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이 견해의 주장자가 그릇된 관점에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똑바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고구려의 역사를 왜소화하면 나머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고구려를 당시 중국의 《속국》으로 오판한테서 생겨 난 완전히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고구려의 역사는 고구려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이 더 잘 알것이며 또 자주적인 고구려가 자기 국호를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이나 듣고 바꿀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고구려왕을 고려왕이라고 한 것은 고구려에서 고려라는 국호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일관하게 자기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으며 그 뜻이 같은 고려라는 헛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고구려-고려라는 국호는 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강대국의 자랑스러운 국호였기에 고구려 이후의 많은 나라들은 이 국호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계승하여 고구려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고구려 멸망후 670년 초에 섰던 《고구려국》이나 680년대 유주를 중심으로 하여 세워 졌던 고려국, 그후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에 속한 《고구려후국》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국호는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의 이름에 계승되어 더욱 긍지 높고 자랑스러운 국호로 세계에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2. 고구려를 계승한 이름 고려

우리 나라 중세 역사상 첫 통일국가의 국호인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이름이였다.

새 봉건국가의 《고려》라는 국호는 지난 날 우리 나라 역사에서 제일 강대하였던 고구려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 고구려와 고려라는 이름은 같은 말이었고 따라서 삼국시기에도 흔히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다.

10세기 초에 창건된 고려가 자기 나라 이름을 그 이전 삼국시기 고구려의 이름을 따서 고려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바로 자기 나라를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고

16 《역사과학》 1985년 2호, 27~34페이지

17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년, 251페이지

통일위업을 실현하여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로 전변시키려는 남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고려라는 이름이 고구려국호를 계승하였던 것이라는 대하여 고려사람들 자신은 항상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이것은 993년 반거란전쟁시기에 고려-거란담판장에서 한 서희의 말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담판장에서 거란의 소손녕은 『고려는 신라땅에서 일어 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땅을 차지할수 없다는 황당한 론거를 들고 나와 자기들의 침략을 『정당화』해 보려고 획책하였다. 서희는 적장의 이 주장에 통렬히 반박하면서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평양을 수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당신네 나라의 동경(豆陽)도 우리 국토안에 들어 와야 한다.』¹⁸고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서희의 말은 고려의 초기 집권자들이 자기 나라 국호를 고려라고 정하면서 의도했던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고려는 고구려가 다하지 못한 통일위업을 완수하고 고구려의 옛땅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로 만들것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주변나라들에서도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통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후당(923~936)은 933년 3월 고려에 보낸 서한에서 왕건에 대하여 『주몽이 전국한 전통을 계승하여 그곳의 임금으로 되었다.』¹⁹고 하여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다.

고려라는 나라이름이 고구려국호를 계승하였는데 대하여서는 고려를 이어 선나라인 리조에서도 명백한 역사적사실로 인정하고 있었다.

고려의 왕권을 탈취하여 새 왕조를 세웠던 리성계자신도 『고려사』가 다 편찬된 후 그것을 보고 정도전에게 내린 지시문에서 『왕씨 왕조(고려 인용자)에서는 고구려의 이름을 계승하여 고려라고 부르면서 삼한을 한나라로 통합하였다.』²⁰라고 하여 고려와 고구려국호의 계승관계를 시인하였다.

그러면 고려가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면서 국호까지 그대로 계승하였던 역사적필연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려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인민들속에서 통일지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918년 고려성립을 전후한 시기 우리 나라의 전반적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대동강류역 이남지역에서도 극심한 혼란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은 크게 고려, 후백제, 후기신라의 세개 나라로 갈라 졌 있었는데 한개 혹은 몇개씩의 고을들을 차지하고 『성우두머리』, 『장군』을 자칭하면서 고려나 후백제, 후기신라에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봉건세력들도 많았다. 이 군소봉건세력들은 자기가 차지

18 『고려사』 권94 혁전 서희

19 『고려사』 권2 태조 16년 3월 신사

20 『태조실록』 권7 4년 정월 경신일

한 령역안의 인민들을 제마음대로 억압착취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전쟁으로 내몰았다. 극심한 분열과 끊임 없는 전쟁은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었다.

북쪽 발해의 형편도 복잡하였다. 발해에서는 개별적봉건세력들이 크게 자라나 심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 나고 있었다. 또 이 틈을 타서 발해의 통제 밑에 있던 말갈족(녀진)이 점차 독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발해에 대한 거란의 침략책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었다.

나라에 조성된 전반적 정세는 국토의 통일을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인민들은 가혹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해 나섰을뿐아니라 국토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것을 지향하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하나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우에서 살아 온 단일 민족으로서 원래 통일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높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해 왔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가 이 시기에 급격히 고조되었던 것이다. 고려가 통일지향을 중요하게 내세우게 된 것은 이러한 정세발전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고려가 고구려의 국호를 그대로 계승하게 된 것은 고려자체가 고구려의 옛 남부 지역에서 고구려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였다는 사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고려의 전신인 태봉국이 자리 잡고 일어 난 지역으로 말하면 옛 고구려의 남부 지역이었고 고구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곳이였다.

『고려사절요』에서는 『궁예는 고구려의 옛땅에 의거하여 철원에 도읍하고 국호를 태봉이라고 하였다.』²¹라고 하여 고려의 땅이 『고구려의 옛땅』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뿐아니라 궁예가 901년에 왕으로 자칭하고 나라이름을 고려(후고구려)라고 부르면서 당나라를 끌여 들여 고구려를 무너뜨린 신라를 복수하겠다²²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고려건국에서 큰 역할을 한 태조(왕건) 자신도 바로 고구려인의 후손이였다.

『고려사』 서문의 『고려세계』에서는 왕건의 증조부에 대하여 『옛날에 호경(왕건의 증조부)이라는 사람이 <성골장군>이라고 자칭하면서 백두산으로부터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부소산(송악산)왼쪽 산골에 와서 거기에서 장가를 들고 살았다.』²³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을 통해 왕건의 증조부인 호경은 원래 『성골장군』이라 자칭할 만큼 지체 높은 가문의 출신이였다는 것과 일정한 원인으로 고장을 버리고 남하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이주자들이였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다. 고려의 세계를 보다 구체화한 사람으로는 근세의 리동화를 들 수 있다. 그는 『조선녀속고』에서 『왕씨는 고구려의 후예이고 발해의 변방지역사람으로서 신라에 와 살았던 것』²⁴이라고

21 『고려사절요』 권1 태조 무인 원년

22 『삼국사기』 권50 혈전 10 궁예

하였다. 왕건의 혈연적계보에 대하여서는 1123년 6월 사신단성원으로 고려에 있던 송나라사람 서공이 귀국후에 편찬한 자기의 고려전문기인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왕씨의 조상은 고구려의 귀족이다. 고씨의 정치가 쇠약해 지게 되여 나라사람들이 어진 사람을 내세울 때 드디여 공동으로 내세워 군장으로 삼았다.》(《선화봉사고려도경》권2 세자 왕씨)라고 한 사실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세계》에서 호경이 왔다고 하는 백두산이 고구려와 발해를 가리킨것이라는것을 이야기 해준다.

이렇듯 통일지향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 시기에 고구려인의 후손들에 의해 새 나라가 서게 된 바로 여기에 고려가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이어 받아 그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울수 있었던 사회력사적배경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

918년 고려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인민들속에서는 통일지향이 그 어느때보다 급격히 고조되었으며 고려의 집권자들도 통일정책을 주요하게 들고 나왔다.

당시 고려는 후백제, 신라와 함께 그 이북의 옛 고구려땅을 다 통합하여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는것을 중요목표로 내세웠다.

고려 말기인 14세기 초에 관료학자 리제현과 당시의 국왕이었던 충선왕사이에 태조 왕건의 정책을 회고하는 이야기가 벌어 진 일이 있는데 이때 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바 있다.

...우리 태조가 새 나라를 세운 이후 아직 신라와 후백제를 차지하기도 전에 자주 서도(서계)에 가서 북방의 변두리를 순찰하곤 하였는데 그것은 동경(묘나라)의 옛땅(즉 고구려의 옛땅)이 역사적으로 전해 져 내려 오는 우리 나라의 옛땅인것만큼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이였다. 태조가 분렬된 신라의 땅토나 차지하고 압록강까지나 수복할 생각을 했겠는가. 그런것은 아니였다. 참으로 우리 태조의 도량과 계략은 크고 원대한것이었다.²³

이 자료는 고려가 처음부터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을 고스란히 이어 받아 그것을 자기의 정책으로 내세웠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준다.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이어 받아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것을 정책으로 내세운 고려는 처음부터 대동강이남지역은 물론 그 이북의 광활한 고구려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갔다.

고려는 국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후백제와 신라의 통합에 큰 힘을 넣어 935년 11월에 후기신라를 그 이듬해 9월에는 후백제를 병합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는 대동강이북의 광활한 고구려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 차게 벌려 나갔다.

서북방에로의 고려의 진출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꾸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고려는 평양건설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것은 고려의 집권자들이 수도를 꾸리기

23 《고려사》 권2 태조 26년 리제현의 평

에 앞서 평양복구에 착수하였으며 평양을 제2의 수도로 만든 사실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고려의 집권자들이 자기의 수도를 철원으로부터 개경으로 옮길 것을 결정하고 추진시킨 것은 919년(태조2년)이였는데 그들이 평양복구에 착수한 것은 그보다 앞선 918년 9월이였다. 고려라는 나라가 성립되어 진행한 처음으로 되는 큰 사업이 다름 아닌 평양건설이였다.

고려의 집권자들이 평양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남방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조 왕건이 해마다 서경(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 왕들이 1년에 100일간씩 서경에 가 머물러 있으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²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고려가 평양(서경)을 중시하고 그 건설에 큰 힘을 넣은 것은 서경이 고려서북방의 중요한 군사정치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동방의 대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전통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었다. 고려는 서경에 의거하여 북방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며 특히는 앞으로 이곳에 수도를 옮기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옛 고구려 땅까지 포괄하는 강국을 일떠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 932년에 왕건이 『최근 서경을 복구하고 백성을 옮기여 그곳을 강화한 것은 그 지역에 의거하여 삼한을 평정하고 거기에 수도를 정하려는 것』²⁵이라고 말한 것은 그 뚜렷한 증거로 된다.

고려는 서경건설과 함께 서북 및 동북지방에로의 진출을 다그쳐 나갔다. 고려는 919년에 룽강, 920년에는 함종(증산군), 안북(안주), 921년에는 운남(녕변), 925년에는 성주(성천), 진국(숙천) 등지에 성을 쌓았으며 이와 병행하여 920년에는 유검필이 지휘하는 3,000명의 군대를 동북지방에 파견하여 녀진인들의 춘동을 짓부시고 골암진에 성을 쌓았다.

고려의 북방진출은 거란침략세력의 대두와 그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었다.

고려는 동족의 나라 발해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마저 집어 삼킬 생각을 품고 있는 거란침략세력에 대하여 처음부터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서북방진출을 적극 다그쳐 나갔다. 고려는 발해멸망직후인 920년대 후반기부터 930년대 말까지 강덕진(성천), 안정진(순안), 안수진(개천)을 비롯하여 서북지방에만도 17개의 성을 새로 쌓거나 보수증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천강이남지역을 확고히 장악하고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발해가 무너 진 뒤 고려의 북방진출과 통합사업은 고려경내로 들어 오는 발해유민들을 포섭하는 사업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발해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지자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렸고 싸우다가 실패하거나 형세가 불리해 지면 동족의 나라로 찾아 들어 왔다. 그리하여 수많은 발해유민들이 물밀듯이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24 『고려사』 권제2 계묘 26년

25 『고려사』 권2 세가 태조 15년 5월

『고려사』 세가에 실려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발해유민들 가운데는 발해왕조의 왕태자 대광현을 비롯한 대귀족, 대신, 관료, 중, 백성 등 각계각층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수는 수십만에 이르렀다.

때문에 『제왕운기』의 저자 리승휴는 발해유민의 고려이주를 가리켜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끌고 고려에로 찾아 들어 왔다.』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934년 발해국의 왕태자 대광현의 귀속, 935년 후기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의 투항과 신라의 통합, 936년 후백제의 통합과 더불어 국토통일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이렇듯 고려는 근 20년간에 걸친 통합전쟁을 통하여 후백제, 신라의 전 지역과 주민, 고구려, 발해의 적지 않은 땅토와 주민들을 하나의 주권밑에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고려는 이미 세나라시기에 복속되었던 우산국(울릉도, 독도)과 탐라국(제주도)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통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통일된 전 땅토에 대한 중앙집권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는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내세우고 숭배하면서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던 고구려의 전통적인 제사의례까지 계승하였다.

고려는 당시 고조선의 옛 수도였던 서경(평양)에 단군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팔관제를 지내였다.

고려에서는 팔관모임을 수도 개경과 단군사당이 있는 평양에서 벌리였는데 개경에서는 11월에 진행하였고 평양에서는 10월에 하였다.²⁶

고려가 단군을 원시조로 숭배한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였던 것은 비록 여러 나라로 갈라 쪘으면서도 다같이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내세우고 숭배하여 온 고구려, 발해, 백제, 신라인민들의 전통적인 숭배관념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 있었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고려에서는 단군이 태여나고 문헌 평양을 『우리 나라의 지맥의 근본이고 대업만대의 땅』²⁷이라고 하면서 단군제사를 성대히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고려는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을 이어 받아 분열되었던 신라, 후백제, 발해를 통합함으로써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될수 있었으며 고려라는 이름도 자랑스러운 첫 통일국가의 국호로 될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라는 국호에 고구려와 같이 태양(하늘)과 신성하다, 거룩하다는 뜻이 담겨 쪽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사람들이 왕건의 고려성립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 낸 도참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는 태봉국 말기에 왕건이 나라를 통합하고 왕으로 되리라는 하늘의 조짐을 알려 주는 도참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도참설에 의하면 고려가 성립되기 3개월 전인 918년 3월에 왕창근이라는 사람이 저자에서 한 기사로부터 거울을 샀는데 이 거울속에는

26 『고려사』 권60 지14 가례집의 중동팔관회

27 『고려사』 권2 태조 26년

해빛이 비칠 때마다 글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거울속에 적혀 진 글에는 《하느님이 아들을 내려 보내여 먼저 닭(계림-신라를 말함)을 잡고(차지하고) 오리(압록강-고구려 옛땅을 말함)를 잡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은 다름아닌 왕건이였고 《닭과 오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가 신라와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며 나라가 길이 평안하고 행복하리라는 것이였다.²⁸

결국 거울은 하늘과 인간사이의 매개자로서 궁예가 멸망하고 왕건이 나라를 세우리라는 하늘의 뜻과 의지를 알려 주는 신성한 물건이였다.

이 도참설을 통해서 고려에서는 거울이 태양의 빛을 받아 하늘의 조짐을 알리는 신비한 물건으로 여겨 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중세조선어로 《거우로》라고 발음한 거울은 고려라는 말과 음운상 통하였으며 결국 그 뜻은 《태양이 비치는 성스러운 나라》였다는 사실을 더욱 확증해 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의 통일정책을 이어 받아 동족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였던 고려사람들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태양의 나라로 영원하기를 바란 고려사람들의 기원과 신앙이 담겨 져 있었다.

3. 《코리아》의 유래

우리 나라 역사상 첫 통일국가인 고려는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서 동방 여러 나라는 물론 유럽에까지 널리 알려 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유럽말은 바로 고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코리아라는 말은 고려라는 말의 외국말음역이다. 조선을 프랑스말로 고레(Coree), 영국말로 코리어(Korea), 로씨야말로 까레야(Korea)등으로 부른다. 나라에 따라 음과 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고려라는 나라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고려라는 이름이 유럽에 알려 지기전인 고구려, 백제시기에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려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에까지 알려 져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 토대하여 첫 통일국가 고려가 성립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지게 되면서 고려라는 말은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고착되게 되였다.

고구려에서는 국호를 고려라고도 썼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적이고 신축성이 있었던 고구려는 7세기 중엽에 끊임없이 침공해 들어 오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원교근공》정책의 일환으로 당나라 배후에 있던 강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돌궐족이 있었던 당나라북쪽의 수천수만리 무인지경인 대초원과 광활한 고비사막 그리고 알타이산맥을 넘어 야 하는 수만리의 어려운 로정을 극복하고 중앙아시아까지 갔었다. 용감한 고구려사람들의 싸마르칸드행은 우리 나라 중세

28 《삼국사기》 권50 혈전10 궁예, 《고려사》권1 태조1

대외관계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고려(고구려)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²⁹

통일지향적인 고구려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은 그 이후시기 우리 나라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고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조건으로 되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7~8세기에 고구려를 뒤이어 선 발해를 가리켜 동방에서는 모두 고려라고 하였다.

중세일본의 역사책들에 남아 있는 발해사람들이 직접 쓴 국서원문들의 내용과 8세기 일본의 관청공문서들, 절간고문서들을 통하여 발해를 고려라고 부른 사실을 잘 알수 있다. 발해사람들은 자신들을 《고려(고구려)》사람으로, 자기 나라를 고구려의 왕통을 계승한 《천손(하느님의 자손)》의 나라로 여기였고 일본의 관리들과 주민들도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다.³⁰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라는 명칭이 발해시기에도 계속 우리 나라를 가리켜 쓴 명칭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8세기 중엽에 티베트지역의 호르국에서는 발해나 이전의 고구려를 굴리(구려)로, 돌궐에서는 《동방의 해 뜨는 나라》라고 하면서 쿠리(구려)로 표기하였다.

천년강대국이었던 고구려와 해동성국 발해의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대외활동으로 고려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 져 있었던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 첫 통일국가가 성립되고 그 국호가 고려로 제정되면서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고려(코리아)로 불리워 질 수 있게 한 역사적전제의 하나로 되었다.

고려라는 나라이름은 이미 고려전반기에 유럽에 알려 져 있었던것으로 볼수 있다. 반거란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나라의 위력이 과시되고 전후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던 시기인 1024년 9월, 1025년 9월, 1040년 11월에 걸쳐 세차례나 수백명의 대식국상인들이 배를 타고 고려로 와서 무역을 하고 돌아 갔다. 당시 대식국은 오늘의 페르샤만일대와 아라비아반도를 통털어 이르던 나라이름으로서 그곳은 동서지역간 무역의 중개지였다. 그러므로 고려라는 나라이름이 고려를 다녀 간 아라비아상인들을 통하여서도 유럽나라들에 알려 졌을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13세기이전에 고려라는 나라이름이 유럽에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전하는 명백한 기록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고려라는 나라이름이 현재까지 전하는 유럽인들이 남긴 기록들에 보이는것은 13세기 중엽이후이다.

1250년경에 로마법왕 인노체트 4세와 프랑스왕 루이 9세의 명령을 받고 몽골에 파견되었던 프랑스선교사 루브류끄는 1253년에 본국으로 돌아 가 왕에게 한 보고에서 중국동쪽에 카울레(고려)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려라는 나라이름이 써여 진 유럽의 기록자료로서 현재가지 남아 있는것

29 《조선고고연구》 1988년, 3호, 11~16페이지

30 《발해사연구론문집》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년, 202페이지

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이다.

이후 고려라는 나라이름이 기록으로 유럽에 소개된것은 13세기 말 베네치아상인 출신의 이탈리아사람인 마르코 볼로가 남긴 『동방견문록』을 통해서였다.

마르코 볼로의 『동방견문록』은 고려를 까울리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소개하였다.

이처럼 고려라는 나라이름은 13세기에 유럽인들이 쓴 기록을 통하여 유럽나라들에 알려졌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이때에 와서 고려라는 말이 우리 나라를 이르는 말로 굳어 지게 되었다.

이후 고려라는 나라이름은 일찌기(16세기)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 선 뾰르뚜갈의 동방침략이 강화되면서 그 나라사람들과 이탈리아사람들을 통하여 더욱 자주 유럽에 소개되었다.

1513년 6월 뾰르뚜갈왕 엠마누엘이 로마법왕 레온 10세에게 보낸 편지와 1557년에 리스봉에서 출판된 『알폰소 다루보게루전기』에는 뾰르뚜갈침략자들이 말라이 반도의 말라카항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해마다 고레스(Cores)의 무역선 2~3척이 그 곳에 온다고 하였다. 이 고레스는 바로 고려 즉 조선사람들이였다.³¹

1571년에 뾰르뚜갈인 도우라도가 만든 『세계지도』에는 중국북부만에 콘라이(Conrai-조선)해안이 표시되어 있다.

1571년 뾰르뚜갈신부 가스빠르 빌레다가 인디아에서 본국에 보낸 2통의 편지에서 일본으로부터 바다길로 3일길이 되는 곳에 『꼬라이(Coray)』라는 나라가 있다고 써여 있다.

16세기 뾰르뚜갈인들이 조선을 두고 고레스, 콘라이, 꼬라이 등으로 각이하게 표기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고려라는 나라이름에서 나온것이고 코리아와 같은 말인 것이다.

이보다 얼마후의 유럽인들의 기록에는 조선이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에 와 본 일이 있는 뾰르뚜갈인 빠뜨레 안또니오 뿐레네스띠노는 1578년에 『수년전 일본으로 가던 뾰르뚜갈선박이 꼬레아(Corea)의 연해에서 풍파를 만나 표착하였다』고 썼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출신 신부인 프란시스코 까를레띠는 13년간 배를 타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여 세계를 일주하고 귀국하여 『세계주유기』를 남기였다. 그는 이 책에서 꼬리아는 9국(8도의 잘못된 기록)으로 나뉘여 져 있고 왕국은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썼다.

그뿐아니라 17세기에도 서방의 지도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조선을 계속 코리아로 표기하였다.

1815년에 프랑스의 지리학자 고딘호는 자기의 아시아지도에서 조선을 코리아(Coria)로 표기하였고 영국인 디들리는 동북아시아지도에서 조선을 코라이(Corai)로, 1679년 다베르니에는 조선을 코레(Coreer)로, 1750년의 로베르띠 보공디는 코레

31 『역사과학』 1990년 3호 63페이지

(Coree)로 각각 표기하였다. 1777년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자파교수가 제작한 아시아지도에도 조선은 고례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1771~1778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대백과사전에서도 조선을 코리아라고 표기하였다.

현재까지 전하는 13세기이후의 유럽인들이 남긴 기록자료들에는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를 까울레, 까울리, 고레스, 콘라이, 코라이, 코리아 등으로 각이하게 표기되어 있다. 표기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기록을 남긴 필자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서 들었는가에 의하여 생긴 어음상 차이이다. 어쨌든간에 이 말들의 어언적유래는 우리 나라 역사상의 동방강대국이었던 고구려와 그를 계승한 고려에서 나온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우리 나라를 코리아로 부른것은 고려라는 나라이름이 유럽에 널리 알려져 그것이 우리 나라이름으로 굳어 졌기때문이다.

끝으로 고려라는 외래어표기(Korea)와 관련하여 제기된 일제의 침략적흉계에 대하여 부언하지 않을수 없다.

고려라는 이름이 서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알려 진 후 유럽인들속에서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고려라는 말은 영어, 프랑스어, 뾰르뚜갈어, 이탈리아어에 관계없이 모두 『Corea』로 표기되었다.

특히 1882년 미국에 의하여 강압체결된 『조미조약』과 1883년에 체결된 『조영 수호조약』의 영어원문판에도 조선은 Corea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 오던 일제는 20세기 초에 들어 와 세계적인 정치 및 문화, 제육행사들에서 점차 나라이름표기를 해당 나라국호의 영문자표기의 머리글자로 그 차례를 나타내던 실정에 비추어 조선이란 영문표기『Corea』의 머리글자(C-영어의 3번째글자)가 일본의 영어표기(Japan)의 머리글자(J-10번째글자)보다 훨씬 앞선다고 하여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친일적인 영국정부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영어표기를 Corea로부터 J의 다음글자 K가 들어 간 Korea로 바꾸도록 흉계를 꾸미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영어식표기는 일본(Japan) 다음에 놓이게 되였다. 이러한 너절한 조작행위로 일본의 세계적지위가 어느 정도 높아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한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일제의 침략성과 악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저렬한가를 알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라는 이름은 자기 나라를 『태양의 나라』로 번영할 것을 숙원한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적희망이 담겨 진 말이며 이와 함께 천년강대국으로 자랑 떨친 고구려와 첫 통일국가로서 대외적으로 이름을 떨친 고려에 역사적 유래를 두고 있다.

우리 인민은 이미 제41차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와 제6차 세계청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코리아』라는 유일명칭으로 세계에 단일민족으로서의 슬기와 힘을 온 세상에 떨치였으며 우리 민족은 고려라는 이름으로 통일할수 있다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이 다 같이 공감하고 받아 들일수 있고 통일국가의 체모와 통일국가의 형태 및 구조에 가장 알맞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라는 아름답고 훌륭한 통일국호를 제시하여 주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로 삼고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더욱 힘 차게 떨쳐 나서야 할것이
다.

<참고문헌>

- 《조선전사》 3~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79년판
- 《조선말역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0년판
- 《조선어사연구론문집》 교육도서출판사, 1984년판
-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년판
- 《역사과학》 1985년 2호
- 《역사과학》 1990년 3호
- 《조선고고연구》 1988년 3호
- 《발해사연구론문집》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년판
- 《三國史記》
- 《高麗史》
- 《太祖實錄》
- 《世宗實錄》
- 《두창집요》
- 《삼역총해》
- 《한청문감》
-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87년
- 《史學雜誌》 25편 4호
- 《朝鮮學報》 54집, 74집
-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 學生社
- 《朝鮮金石故》 1933년
- 《遼海文物學刊》 1987년 2호, 1996년 1호
- 《北史》
- 《康熙字典》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태성리3호고구려백화고분

김 인 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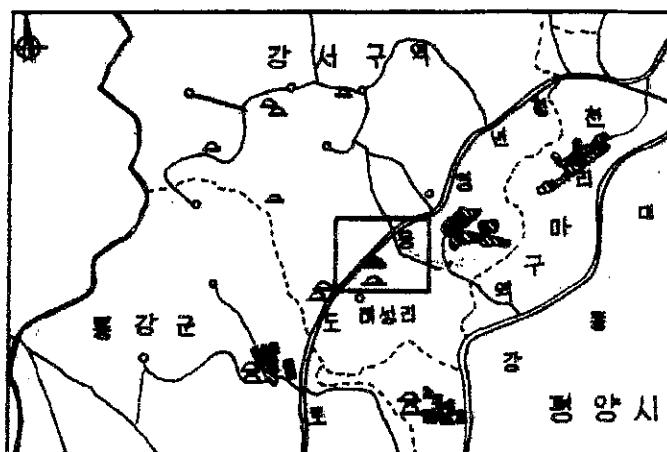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구려의 벽화무덤들은 천년강국 고구려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면모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실물자료로 되고 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고학자들은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에서 특대형의 고구려 벽화무덤을 발굴하여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¹

이 글에서는 새로 발굴된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소개하고 무덤의 축조년대와 주인공문제를 논하려고 한다.

1. 무덤의 짜임새와 출토유물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강서구역 태성리소재지에서 북쪽으로 2km정도 떨어 진 곳에 솟아 있는 «상직봉»(해발 67m)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의 지형을 보면 북쪽에는 무학산, 동쪽에는 서학산, 서쪽에는 석천산이 우뚝 솟아 삼면을 둘러 싸고 있으며 남쪽은 충적벌이 펼쳐져 있어 전망이 매우 좋다.



<그림1> 태성리3호벽화무덤위치도

태성리3호벽화무덤주변에서는 이미 태성리1호무덤, 태성리2호무덤, 련꽃무덤, 덕홍리벽화무덤, 강서큰무덤, 강서중무덤, 수산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룽강큰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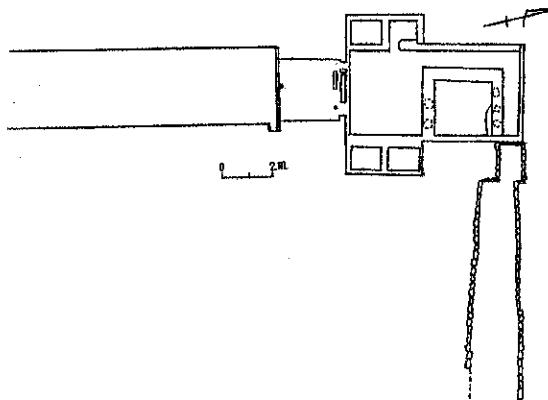
1 이 무덤을 태성리에서 세번째로 드러난 벽화무덤이라는 의미에서 태성리3호벽화무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덤을 비롯하여 십여기의 대형고구려 벽화무덤들이 알려졌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봉분은 현재 높이가 약 4m이고 밑부분이 등그스름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원래는 밑부분 한변의 길이가 32m정도인 방대형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무덤은 원지표면으로부터 약 2m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그안에 무덤칸을 축조한 반지하식돌칸흙무덤이며 방향은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무덤내부는 무덤길, 문칸, 앞칸, 앞칸의 동, 서 좌우에 달려 있는 2개의 결칸, 안칸(현실), 안칸의 서쪽부분과 북쪽부분에 만들어 진 회랑, 그리고 북회랑의 동쪽끝으로부터 무덤밖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보조통로로 되어 있다



<그림2> 태성리3호벽화무덤평면도

무덤길은 남쪽으로 나 있으며 그 길이는 10.6m, 너비는 3m정도이다. 무덤길에서 문칸으로 들어 가는 입구에는 두께 8cm정도 되는 2장의 큰 화강암 판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판들은 바깥쪽(남쪽)에 회죽과 막돌을 섞어 다져 놓았으므로 무덤의 막음돌로서 든든히 고정되어 있다. 막음들의 안쪽면으로부터 회랑북벽까지의 길이(무덤칸의 남북최대길이)는 10m정도이며 서쪽결칸 서벽으로부터 동쪽결칸 동벽까지의 너비(무덤칸의 동서최대너비)는 6.3m정도이다.

문칸의 벽면은 자름자름한 돌로 축조되었다. 벽면의 아래부분은 비교적 곧게 쌓아 졌지만 웃부분은 궁륭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서쪽벽체의 남쪽부분이 제일 잘 남아 있는데 남은 높이는 2m정도이다. 벽체결면은 회로 잘 미장되어 있으며 그 위에 여러가지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나 대부분 지워져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다. 문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2.74m, 동서너비 2.5~2.6m이다.

문칸의 북쪽부분 즉 문칸으로부터 앞칸으로 들어 가는 부분에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돌문이 설치되어 있다. 돌문은 짹문형식으로서 2개의 문들과 1개의 문턱들, 좌우의 문기둥들로 되어 있었다. 현재 동쪽문들은 완전히 없어졌고 서쪽문들의 일부분

만이 남아 있다. 서쪽문들의 밑부분 서쪽끝에는 직경 11cm, 높이 12cm되는 문화축이 달려 있으며 문화축이 놓이는 문간바닥면에는 직경 14cm, 깊이 4cm정도의 문화이 만들어 져 있다. 동쪽문들의 문화축이 놓였던 위치에도 같은 크기의 문화이 만들어 져 있었는데 동, 서 문화사이의 거리는 1.35m정도였다.

돌문을 지나면 앞칸에 이르게 된다. 앞칸평면은 남북길이 3.14m, 동서너비 3.34m로서 거의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앞칸의 좌우에는 동서 두개의 결칸이 축조되어 있다.

동, 서 결칸은 높이 25cm, 너비 32cm정도 되는 화강암 대돌들에 의하여 앞칸과 구분되어 있으며 결칸은 모두 동서로 지나간 화강암대돌들에 의하여 남쪽과 북쪽의 두 부분으로 되여 있다. 그런데 서쪽결칸의 북쪽부분에만은 대돌이 남북으로 50cm 정도 놓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앞칸의 바닥과 서쪽결칸 북쪽부분의 바닥은 서로 련결되어 있다. 서쪽결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3.1m, 동서너비 1.28m정도이며 동쪽결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3m, 동서너비 1.3m정도이다. 동, 서 결칸에는 두께 10cm정도 되는 큰 화강암판들들이 세워 져 벽면을 이루고 있었지만 도굴자들에 의하여 거의 파괴되고 일부분에만 약간 남아 있다.

무덤의 안칸은 동서로 놓인 화강암대돌과 그우에 세워 놓았던 3개의 기둥들에 의하여 앞칸과 구분된다. 안칸의 서쪽과 북쪽도 화강암대돌들에 의하여 회랑과 구분된다. 안칸 서쪽의 대돌웃면은 거의 파괴되어 잘 알수 없지만 북쪽부분 대돌웃면에도 세개의 기둥이 세워 져 있었다. 현재 기둥들은 모두 파괴되었지만 기둥을 세웠던 흔적들은 대돌웃면에 뚜렷이 남아 있다. 안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2.5m, 동서너비 2.1m정도이다. 안칸의 바닥은 2층으로 되여 있으며 앞칸보다 12cm 더 높다.

안칸의 서쪽부분과 북쪽부분에 회랑이 《r》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남북방향으로 뻗은 서쪽회랑의 길이는 4.79m이고 너비는 0.6m정도이며 동서방향으로 뻗은 북쪽회랑의 길이는 3.34m이고 너비는 0.8m정도이다. 북쪽회랑의 동쪽끝에는 밖으로 통하는 작은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통로입구에는 문턱들과 작은 문기둥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장의 화강암판들에 의하여 입구가 폐쇄되어 있다. 통로의 전체 길이는 약 10m정도이며 너비는 입구에서 0.96m이고 바깥쪽에서 2m정도이다. 통로는 입구에서 밖으로 1.6m정도만 두 벽이 전부 돌로 쌓아 졌고 나머지부분은 웃부분만 돌로 축조되었다. 바닥은 입구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점차 높아 지는데 제일 바깥부분에서는 원지표면과 거의 같아 진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벽화는 천정과 벽체가 도굴자들에 의하여 너무나 혹심하게 파괴된 관계로 그 주제내용을 명확히 알수 없다. 다만 문칸의 서벽과 동벽 남쪽부분, 동쪽결칸의 북쪽벽에서 벽화흔적을 부분적으로 찾아 볼수 있었다.

문칸의 서벽 남쪽부분에는 품이 넓은 바지를 입고 코신을 신은 남자의 다리와 두께 15cm정도의 붉은색기둥이 그려 져 있다. 문칸의 동벽 남쪽부분에는 서벽의 남쪽에 그려진 붉은색기둥과 대칭되게 꼭 같은 붉은색기둥이 그려 져 있다. 동쪽결칸의 북쪽벽면에도 붉은색으로 벽화가 그려 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다.

발굴과정에 무덤칸바닥의 곳곳에서 회벽면에 그려진 벽화쪼각들이 적지 않게 드

려났다. 특히 앞칸바닥에서 드러난 회벽조각에 보이는 구름무늬는 그 형상에서 안 악3호무덤의 천정고임단에 그려 진 구름무늬와 꼭 같은것이다.

무덤에서는 순금제꽃잎형장식품 1개, 금제살구잎형장식품 4개, 청동팔찌 2개, 붉 은구슬 1개, 황록색유약이 발려 진 도기그릇 여덟개체, 철제관못 30여개와 주두, 소로, 첨차 등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건축부재들이 드러났다.

순금제꽃잎형장식품은 6개의 꽃잎으로 형상된 관금장식품이다. 이 장식품의 중심에는 직경 1mm정도의 구멍이 뚫려 쪄 있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가면서 수많은 점무 능들이 찍혀 쪄 있다. 꽃잎과 꽃잎사이의 거리(직경)는 약 2cm정도이며 두께는 0.2 mm정도이다.

금제살구잎형장식품은 한쪽끝이 둥그스름하고 다른쪽끝은 뾰족한 형태로 되여 있 다. 장식품의 중심부분과 뾰족한 끝부분에 직경 0.8mm되는 구멍이 뚫려 쪄 있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가면서 점선무늬가 찍혀 쪄 있다. 이 장식품의 크기는 긴 직경 1.3 cm, 짧은 직경 1cm이며 두께는 0.2mm정도이다.

순금제꽃잎형장식품과 금제살구잎형장식품들은 이 무덤에 묻혀 있던 금관의 보요 로 인정된다.

도기는 모두 깨여 진 채로 드러났다. 도기의 결면에는 황록색계통의 유약이 발려 쪄 있다. 그릇살의 두께는 약 0.5cm정도이다.

청동팔찌는 너비 0.6cm, 두께 0.4cm되는 청동줄을 직경 7cm되게 감아 만든것이다. 드러난 두개의 청동팔찌가운데서 하나는 결면이 매끈하며 다른것은 결면에 세로 장 식선이 촘촘히 새겨 쪄 있다.

관못은 크기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 모두 대가리가 벼섯갓모양이고 몸 체자름면은 방형이다. 드러난 관못가운데서 제일 큰것은 길이가 17cm이고 대가리 직경이 5cm이다. 발굴당시 일부 관못에는 나무조각들이 부식된채로 붙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아 관에 사용된 목재의 두께를 7cm정도로 추정할수 있다.

붉은구슬의 직경은 1cm정도이며 중심에 직경 1mm의 구멍이 뚫려 쪄 있다.

무덤에서는 주두, 소로, 첨차 등 건축부재들도 드러났다. 이것들은 화강암을 다듬 어서 매우 정교하게 만든것으로서 그 결면에는 붉은색안료가 칠해 쪄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짜임새와 발굴과정에 드러난 유물들은 이 무덤의 축조년대 와 주인공문제를 밝힐수 있는 귀중한 실머리로 되고 있다.

2. 무덤의 축조년대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는 무덤의 축조년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묵서나 묘지명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덤의 축조년대는 무덤의 짜임새와 일부 유물 들을 통하여 밝힐수 밖에 없다.

그것은 무덤의 짜임새와 께물거리에 그 무덤이 축조되던 시기의 시대적특징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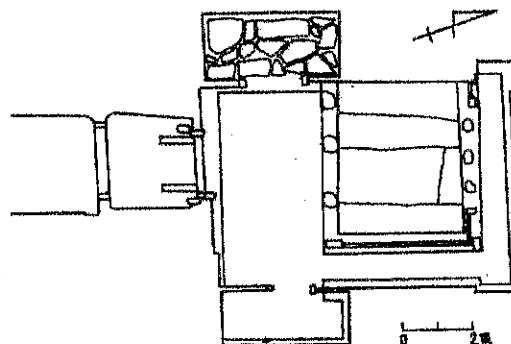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년대는 첫째로, 무덤의 짜임새를 통하여 밝힐수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무덤칸이 반지하에 축조된 돌칸흙무덤이다. 무덤은 무덤길, 문칸, 앞칸, 앞칸의 좌우에 달려 있는 동서결칸, 안칸, 안칸의 서쪽부분과 북쪽부분에 설치된 《r》형 회랑, 북회랑의 동쪽끝부분에서 밖으로 통하게 되여 있는 보조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시기 발굴된 고구려돌칸흙무덤들 가운데는 이 무덤과 같이 여러개의 칸으로 이루어 진 무덤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무덤들로는 안악3호무덤, 태성리1호무덤, 고산동7호무덤 등 많은 무덤들을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제일 비슷한 무덤은 안악3호무덤이다.

안악3호무덤은 무덤길, 문칸, 앞칸, 앞칸의 좌우에 달려 있는 동서결칸, 안칸, 안칸의 동쪽과 북쪽부분에 설치된 《ㄱ》형회랑, 북회랑의 서쪽끝부분에서 밖으로 통하게 되여 있는 보조통로로 되여 있다.²

두 무덤을 대비해 보면 무덤의 내부짜임새가 거의 비슷하다는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다만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는 회랑이 안칸의 서쪽과 북쪽부분에 만들어 졌다면 안악3호무덤에서는 안칸의 동쪽과 북쪽부분에 만들어 진것이 다를뿐이다.



<그림3> 안악3호무덤(고국원왕릉)평면도

짜임새에서의 공통성은 여러칸무덤의 하나인 태성리1호무덤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태성리1호무덤은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1.5km정도 떨어 져 있는 돌칸흙무덤으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울뿐아니라 짜임새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무덤은 무덤길, 앞칸, 앞칸의 좌우에 붙여 있는 동서결칸, 안칸으로 구성되여 있는데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소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무덤이다.

이러한 사실은 태성리3호벽화무덤이 안악3호무덤, 태성리1호무덤 등 여러칸무덤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 무덤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보여 준다.

2 『안악3호분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8년 3~9페지

앞에서 이야기된 안악3호무덤은 371년에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무덤으로 비정되고 있으며 그 축조년대는 4세기 후반기로 편년되고 있다.³ 또한 태성리1호무덤, 고산동7호무덤 등 앞칸과 안칸, 동서결칸으로 이루어진 여러칸무덤들도 4세기경에 만들어 진 무덤으로 인정되고 있다.⁴

이것은 여러칸무덤류형에 속하는 태성리3호벽화무덤도 4세기경에 만들어 진 무덤으로 볼수 있게 한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년대는 둘째로, 무덤에서 드러난 유물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이 무덤에서는 금제꽃잎형장식품, 금제살구잎형장식품, 청동팔찌, 도기 등 적지 않은 유물들이 드러났다. 이 유물들 가운데서 무덤의 축조년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하는것은 황록색유약이 발려 진 도기쪼각들이다. 이 도기에 쓰인 유약은 산화크롬을 첨가하여 만든 저온연유이다. 고구려에서의 도기발전과정을 고찰해 볼 때 이렇게 산화크롬을 첨가하여 만든 저온연유는 4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시기에는 이보다 발전된 알카리질유약이나 붕산질유약이 리용된것으로 보고 있다.⁵

이것은 태성리3호무덤이 저온연유단계의 그릇이 사용되던 시기 또는 그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무덤에서 저온연유단계의 그릇이 나온것은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4세기경에 만들어 진 무덤으로 볼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된다.

이렇게 무덤의 짜임새와 무덤에서 나온 껌물거리로 보아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여러칸류형의 무덤들이 많이 만들어 지던 4세기경에 축조된 무덤으로 인정된다.

3.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주인공문제

고구려는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기초한 봉건국가였던것만큼 지배계급들은 자기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제도를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들리였다. 고구려에는 이미 4~5세기에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기본틀이 확립되어 있었다.⁶

고구려에서 온갖 재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최고권력자는 국왕이었으며 그밑에 대가(상충귀족)와 소가(중하충귀족)로 구분된 봉건귀족집단이 있었다.

이러한 봉건적신분제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매 성원들은 자기 신분에 맞게 규정된 집과 의복, 수레 등 생활용품들을 소유하거나 리용하도록 되여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에 『일반 살림집들에는 기와를 쓸수 없으며 오직 절간, 사당, 왕궁, 관청 등에만 쓸수 있다』⁷는 기록이 있었던 사실 하나만 보아도 잘 알

3 『조선고고학전서』 (중세편 [고구려]) 1991년 96~99페이지

4 『조선고고학전서』 (중세편 [고구려]) 1991년 96~99페이지

5 『조선고고연구』 1991년 1호 20페이지

6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년 235페이지

7 『旧唐書』 高句麗伝

수 있다.

봉건적신분관계는 무덤축조에도 적용되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무덤자체가 당시 지배계급들에게 있어서 죽어서 생활하는 《집》으로 간주되어 있었고 또 실지로 그렇게 꾸리기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과 일반귀족들의 무덤사이에는 여러 축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고구려의 왕릉으로 보게 되는것은 첫째로 이 무덤의 규모와 짜임새가 고구려의 왕릉급무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고구려돌칸흙무덤들은 무덤에 묻힌 주인공의 신분등급에 따라 무덤규모와 짜임새에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고구려벽화무덤은 그 크기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무덤의 규모가 가장 큰 1등급무덤에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동명왕릉, 태성리1호무덤 등을 소속시키고 있다.⁸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무덤의 규모와 짜임새로 보아 고구려의 왕릉들이 속하는 1등급무덤에 당당히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 무덤은 우선 무덤의 규모가 매우 방대한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다른 고구려벽화무덤들의 크기를 대비하여 보면 표1과 같다. (표1 참조)

<표1> 고구려돌칸흙무덤 무덤크기 대조표

단위 m

No	무덤이름	문칸(혹은 안길)	앞칸	동결칸 (혹은감)	서결칸 (혹은감)	안칸	회랑	사이길	무덤칸 최대길이	무덤칸 최대너비
1	태성리 3호벽화 무덤	2.74× 2.5~2.6	3.14× 3.34	3×1.3	3.1×1.28	2.5× 2.1	서쪽 4.79×0.6	10	6.8	
							북쪽 3.34×0.8			
2	고국원왕릉	2.12×2.17	4.88× 2.73	2.99× 1.22~1.27	3.12~ 3.23×1.7	3.8× 3.32	동쪽 4.79×0.87	10.5	8.3	
							북쪽 5.84×0.69			
3	태성리 1호무덤	1.8× 1.6~1.7	2×0.9	1.1×0.55	1.1×0.55	2.82× 2.2	없음		6	3.4
4	동명왕릉	4.25~4.6× 1.63~2.25	3×1.67	0.75× 0.33	0.68× 0.3	4.21× 4.18	없음		10	4.2
5	연꽃무덤	1.2×1	1.7× 3.54	0.9×0.3	0.9×0.8	3.1×3	없음	0.5×1	6.9	4
6	덕흥리 벽화무덤	1.54× 0.88~1.02	2.97× 2.02	없음	없음	3.27× 3.28	없음	1.18× 0.9	8	3.3
7	평양역전 벽화무덤	1.05×1.05	3.12× 2.88	1×0.5	1×0.4	3.78× 3.45	없음	1.05× 1.05	8.4	4
8	고산동 7호무덤	1×0.9	2×1.4	1.3×1.2	1.3×1	3.3× 3.4	없음	0.7×1.1	7.3	4

8 《고구려고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0(2001)년 101~102페이지

표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규모에서 1등급에 속하는 태성리1호무덤보다 2.5배정도, 평양역전벽화무덤보다 약 1.5배정도 크며 고국원왕릉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발굴된 고구려돌칸흙무덤들 가운데서 제일 큰 무덤이라고 할수 있다.

무덤의 짜임새를 보아도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고구려왕릉으로서의 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것은 이미 고구려의 왕릉으로 증명된 고국원왕릉과 비교해 보면 잘 알수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무덤형식인 여러칸무덤류형에 속하는 돌칸흙무덤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고국원왕릉은 짜임새에서 매우 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무덤은 다같이 무덤길, 문칸, 앞칸, 동서결칸, 안칸, 회랑, 보조통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벽체축조에서도 문칸부분만은 작은 돌들을 여러돌기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축조하였지만 동,서결칸, 회랑부분은 모두 잘 다듬은 커다란 판돌들을 세우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찾을수 있다.

또한 이 두 무덤들에 쓰인 주두, 소로, 첨차들이 모두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실물의것이며 그 형태도 꼭 같다.

이러한 공통성들은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고국원왕릉사이의 깊은 친연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무덤의 규모와 짜임새로 보아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충분히 고구려의 왕릉으로 볼수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고구려의 왕릉으로 보게 되는것은 둘째로 무덤이 자리 잡고 있는 지형조건과도 관련된다.

예로부터 무덤자리는 후손들의 《길흉화복》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왕릉인 경우는 더욱 그리하였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지형상 특징은 나지막한 언덕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망이 매우 좋은것이다. 이러한 지형에 무덤을 만드는것은 무덤봉분을 실지 크기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할수 있는 효과적인 수법으로서 고구려왕릉의 위치선정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장지선정 원칙이다.

고구려의 고국원왕릉, 장군무덤, 태성리1호무덤을 비롯하여 왕릉급으로 비정되고 있는 많은 무덤들이 태성리3호벽화무덤처럼 전망이 좋은 언덕의 정점에 만들어 진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고구려왕릉위치선정에서의 이러한 특징은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왕들의 매장지와 시호(왕이 죽은 후에 붙이는 이름)를 종합한 표 2를 보면 더 잘 알수 있다.

9 이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이야기되었으므로 생략한다.

<표2> 고구려왕들의 매장지종합표

No	시호	재위년도	매장지	비고
1	대무신왕	18~44	대수촌(大獸村)언덕우에 장사	
2	민중왕	44~48	민중 언덕우에 장사	
3	모본왕	48~53	모본 언덕우에 장사	
4	신대왕	169~179	고국곡(故國谷)에 장사	
5	고국천왕	179~197	고국천(故國川)언덕에 장사	國陽王으로도 부름
6	산상왕	197~227	산우에 장사	
7	동천왕	227~248	섭이 많은 언덕(柴原)에 장사	
8	중천왕	248~270	중천(中川)의 언덕에 장사	
9	서천왕	270~292	서천(西川)의 언덕에 장사	
10	봉상왕	292~300	봉화가 있는 산의 언덕 (烽山之原)에 장사	
11	미천왕	300~331	미천(美川)의 언덕에 장사	342년 도굴
12	고국원왕	331~371	고국(故國)의 언덕에 장사	國岡上王으로도 부름
13	소수림왕	371~384	소수림(小獸林)에 장사	
14	고국양왕	384~392	고국양(故國陽)에 장사	
15	광개토왕	392~413	수도주변언덕에 장사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으로도 부름
16	안원왕	531~545	향기 풍기는 언덕(香岡)에 장사	香岡上王으로 부름
17	양원왕	545~559	수도의 동쪽언덕(陽岡)에 장사*	陽岡上好王으로 부름
18	평원왕	559~590	평탄한 언덕(平岡)우에 장사*	平岡上好王으로 부름

* 는 필자의 주석임.

(자료는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기초하였음.)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장지가 밝혀 진 고구려의 18명왕들 가운데서 언덕이나 산우에 묻힌 왕은 15명이나 된다. 이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전망이 좋으며 무덤의 위풍을 돌구는데 유리한 언덕이나 산우에 묻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발 67m의 언덕우에 만들어 진 태성리3호벽화무덤도 고구려에서 일반적인 관례로 되여 오던 왕릉선정원칙에 부합되는 무덤으로 볼수 있으며 이것은 이 무덤을 고구려의 왕릉으로 볼수 있게 하는 다른 하나의 근거로 된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고구려의 왕릉으로 볼수 있는것은 샛째로, 이 무덤에서 왕의 신분에 어울리는 유물들이 드러났기때문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막음돌부분에서는 6개의 꽃잎으로 된 1개의 금제꽃잎형장식품과 4개의 금제살구잎형장식품이 드러났다. 무덤에서 나온 금장식품들은 금관장식에 쓰였던 보요로 인정된다. 이 금관장식품들은 동명왕릉10과 태성리1호무덤11에서 나온 금관보요와 비슷하다.

이 무덤에서 금관보요들이 드러난것은 태성리3호벽화무덤에 금관이 께묻거리로 묻혀 있었으며 이 무덤의 주인공이 금관을 쓸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있던 인물이였음을 알수 있게 한다.

10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1990년 271페이지

11 『태성리고분군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9년 101페이지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 나온 관못도 무덤주인공의 지위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무덤에서는 길이가 17cm이고 대가리직경이 5cm인 매우 큰 관못이 나왔다. 이렇게 큰 관못은 고국원왕릉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 나온 대형관못은 이 무덤에 왕의 지위에 어울리는 대단히 큰 나무관이 갖추어 져 있었음을 알수 있게 한다.

이처럼 무덤에서 나온 껴묻거리를 보아도 이 무덤은 충분히 고구려의 왕릉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이 고구려의 왕릉으로 되는것은 넷째로, 이 무덤에 벽화가 그려 졌다는 사실로도 설명할수 있다.

고구려의 왕들은 사치하고 호화롭던 생전의 생활을 죽은 다음에도 계속 누리려는 남원에서 자기들의 무덤에 여러가지 주제의 벽화를 그리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여러차례의 도굴로 인하여 벽체와 천정이 심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벽체에 그려 진 벽화흔적들과 무덤칸바닥에서 드러난 벽화쪼각들을 통하여 이 무덤에도 화려한 벽화가 그려 져 있었음을 알수 있다.

특히 문간서벽남쪽부분에 그려 진 코신을 신고 품이 넓은 바지를 입은 남자의 모습은 고국원왕릉, 쌍기동무덤 등 고구려의 벽화무덤들에 그려 진 남자들의 모습과 꼭 같다. 또한 이 무덤의 앞칸바닥에서 드러난 회벽쪼각에 그려 진 구름무늬는 고국원왕릉의 천정고임단에 그려 진 구름무늬와 꼭 같은것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에 그려 진 벽화는 이 무덤이 고구려의 왕릉임을 증명해 주는 근거로 되고 있다.

이렇게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무덤의 규모와 짜임새, 무덤의 위치, 껴묻거리, 벽화등으로 보아 고구려의 왕릉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이 4세기경에 축조된 고구려의 왕릉이라는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되였다.

그러면 과연 고구려의 어느 왕이 이 무덤에 묻혔겠는가?

필자는 이 무덤을 342년에 연나라침략자들에게 유해를 빼앗겼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찾아 온 미천왕의 두번째무덤으로 보려 한다.¹²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고구려의 미천왕릉으로 보려고 하는것은 첫째로 이 무덤이 자리 잡고 있는 평양일대가 미천왕의 두번째무덤이 축조될수 있는 적당한 지역으로 되기때문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미천왕은 331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무덤은 미천(美川)의 언덕에 축조된것으로 되여 있다.

12 지난 시기 학계에서는 안악3호무덤을 미천왕릉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었고^{*1} 평양역전벽화무덤을 미천왕릉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었다.^{*2}

*1 《미천왕무덤》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

《문화유산》 1959년 5호 14~35페이지

*2 《고구려고분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주제90(2001)년 108~109페이지

미천왕이 사망한 후 11년이 되던 342년 겨울 연나라 침략군이 불의에 고구려에 침입하여 환도성을 강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연나라 침략자들은 고구려인민들의 드센 반격에 의하여 퇴각하면서 저들의 퇴로를 보장할 목적에서 고국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도굴하고 그의 유해를 도적질해 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후 고구려에서는 미천왕의 유해를 반환해 오기 위하여 연나라와 적극적인 교섭을 벌리는 한편 전쟁으로 수도성이 폐허로 된 조건에서 평양으로 림시 수도를 옮기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였다. 결과 343년 2월에 미천왕의 유해를 찾아 올수 있었으며 그해 7월에는 수도를 림시 평양 동황성으로 옮기였다.¹³

그러므로 전쟁을 방금 겪은 고구려에서는 미천왕의 무덤을 파괴된 수도성 주변에 만들 수 없었으며 필연적으로 새 수도 평양 주변에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연나라의 침략 위협이 완전히 가셔 지지 않았고 천도문제가론의되고 있던 조건에서 외적들에게 도굴 당하였던 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또다시 정세가 불안정한 환도성 주변에 만들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또한 당시 왕이었던 고국원왕이 자기 아버지를 외적들의 도굴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원래 무덤에 다시 묻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 방금 전쟁을 겪은 조건에서 막대한 자금과 로력, 자재가 드는 무덤축조공사를 유해를 찾아 오자마자 벌려 놓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였다. 이러한 리유로 하여 고국원왕은 자기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새로 천도하는 평양 일대에 만들었을 것이다.

평양 일대는 동천왕 21년(247년)에 이미 고구려의 수도로 된적이 있었으며 미천왕도 생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려는 구상을 가지고 그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시켜 왔었다.¹⁴

이와 같은 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4세기경의 평양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지역으로 되여 있었으며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천왕의 무덤으로 비정하려고 하는 태성리 3호 벽화무덤은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30k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은 대동강을 끼고 있어 평양으로부터의 교통 조건도 대단히 편리하며 북쪽과 남쪽의¹⁵ 국경 지역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안전한 지역으로 되여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무덤축조에 절실히 필요한 질 좋은 화강암 석재를 비롯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부터 고구려에서는 새로 옮긴 수도 평양 일대, 구체적으로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일대에 미천왕의 무덤자리를 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정

13 《三國史記》卷第十七, 高句麗本記 第五

14 미천왕은 302년 혼도군을 쳐서 사로잡은 포로 8,000명을 평양에 보낸 일이 있다. 이것은 이 시기 평양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三國史記》卷第十七, 高句麗本記 第五)

15 당시 고구려의 남쪽 국경은 혼성강 일대였다.

된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고구려의 미천왕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둘째로 이 무덤에 다른 무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보조통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북쪽회랑 동쪽끝부분에는 밖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보조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통로의 길이는 10m정도이며 너비는 입구부분에서 약 1m정도, 바깥끝부분에서 2m정도이다.

이 통로는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무덤안으로 쉽게, 신속히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진 비상통로로 인정된다.

그것은 무덤의 기본통로와 보조통로의 폐쇄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잘 알 수 있다.

발굴당시 무덤길→막음돌→문칸→돌문으로 이루어 진 기본통로는 막음돌과 돌문 부분에서 2층으로 완전폐쇄되어 있었다. 기본통로는 막음돌부분에서 막음돌과 함께 돌과 회죽을 섞어서 쌓아 올린 폭 3m, 두께 1m, 높이 2m정도의 돌벽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 있었으며 돌문의 결면에도 회미장이 두텁게 되여 있어 문을 열수 없게 되여 있었다. 즉 기본통로의 폐쇄상태는 영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와 반면에 보조통로의 폐쇄상태는 매우 일시적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보조통로는 입구만이 한장의 화강암판들에 의하여 막혀 있었을뿐이고 통로의 나머지 공간에는 흙과 돌이 채워져 있었다. 보조통로폐쇄에는 영구적인 목적에 리용되는 점 착제인 석회물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굴된 수많은 돌칸흙무덤들 가운데서 이 무덤처럼 길고 완전한 형태의 보조통로가 붙어 있는 무덤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고국원왕릉에서 북쪽회랑 서쪽끝부분에 동서길이 2m되는 보조통로가 달려 있을뿐이다.

그러면 이 무덤에 무엇때문에 다른 돌칸흙무덤들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보조통로가 설치되었겠는가?

343년에 고구려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려 연나라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미천왕의 유해를 다시 찾아 올수 있었다. 그후 고구려에서는 미천왕의 무덤을 다시 만들면서 전과 같은 치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한 대책으로서 긴급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빠른 시간에 무덤안으로 들어 가 조상의 유해를 안전하게 모셔 내올 수 있는 비상통로설치문제가 상정되었을 것이며 결국 다른 돌칸흙무덤들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통로가 만들어 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보조통로는 미천왕릉이 겪은 특수한 사정과 관련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념이 그후 고국원왕릉에도 이어 져 그의 무덤에도 길이 2m정도 되는 짧은 보조통로가 만들어 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긴 보조통로가 달려 있는 특수한 무덤으로서 미천왕릉이 겪은 역사적사건과 잘 결부시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을 고구려의 미천왕릉으로 보게 되는 것은 셋째로, 이 무덤이

고국원왕릉 축조의 견본으로 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미천왕과 고국원왕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사이의 관계에 있으며 미천왕의 무덤도 고국원왕의 주관하에 축조되었다. 그러므로 미천왕무덤은 고국원왕의 무덤보다 먼저 만들어 졌을것이며 고국원왕릉축조의 견본으로 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고구려의 왕릉급에 속하는 무덤들 가운데서 이러한 깊은 친연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것이 바로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고국원왕릉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이 고국원왕릉축조의 견본으로 된것은 고국원왕릉이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평면짜임새를 거의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도 이 무덤 축조에서 나타났던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을 극복한 점을 들어 설명할수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이마돌(眉石)지지구조에서 건축구성상의 불합리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이마돌부분은 지압이 제일 많이 가해 지는 부분으로서 무덤축조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돌려 지는 곳이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 이마돌은 1개의 돌기둥과 문칸의 동서벽체우에 의지하게 되여 있다. 이 무덤에 쓰인 이마돌은 길이 2.7m이상 되는 매우 긴것이다. 이렇게 긴 이마돌을 지지하기 위하여 무덤축조자들은 문칸남쪽부분의 중심부(두 막음돌이 접하는 부분)에 1개의 돌기둥을 세워 놓았으며 그 끝은 문칸의 동서벽체우에 걸리도록 하였다. 그것은 무덤칸 남쪽부분 바닥에 밑부분 직경 36cm, 옷부분직경 29.5cm, 높이 17cm이고 옷면중심에 직경 10cm, 깊이 3.5cm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기둥기초돌이 놓여 있었으며 문칸동서량벽 남쪽부분에 실물기둥이 아니라 직경 15cm되는 붉은기둥이 그려 져 있은 사실을 통하여 알수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처럼 무덤으로 들어 오는 통로의 중심에 큰 돌기둥을 세워 놓는것은 무덤으로 드나드는데 매우 불편할뿐아니라 건축구성에서도 합리적인것이 되지 못한다.

고국원왕릉에서는 태성리3호벽화무덤에서와는 달리 가운데기둥을 없애고 좌우양옆에 두개의 실물기둥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마돌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마돌의 가운데부분에 걸리는 힘을 적게 하기 위하여 문칸의 동서너비를 태성리3호벽화무덤보다 60cm정도 더 좁게 하였으며 이마돌도 그만큼 짧은것을 쓰도록 설계하였다. 고국원왕릉의 동서최대너비가 태성리3호벽화무덤보다 2m정도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문칸의 너비를 그것보다 60cm정도 좁게 설계함으로써 가운데기둥이 없이 량쪽의 두 기둥으로만 이마돌을 지지하도록 한것은 태성리3호벽화무덤축조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측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한 대책의 하나인것이다.

이러한 점은 무덤의 두공장식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태성리3호벽화무덤과 고국원왕릉에는 다 같이 화강암을 가공하여 만든 주두, 첨차, 소로 등이 쓰였으며 그 형태도 비슷하다. 그러나 두공장식에서는 서로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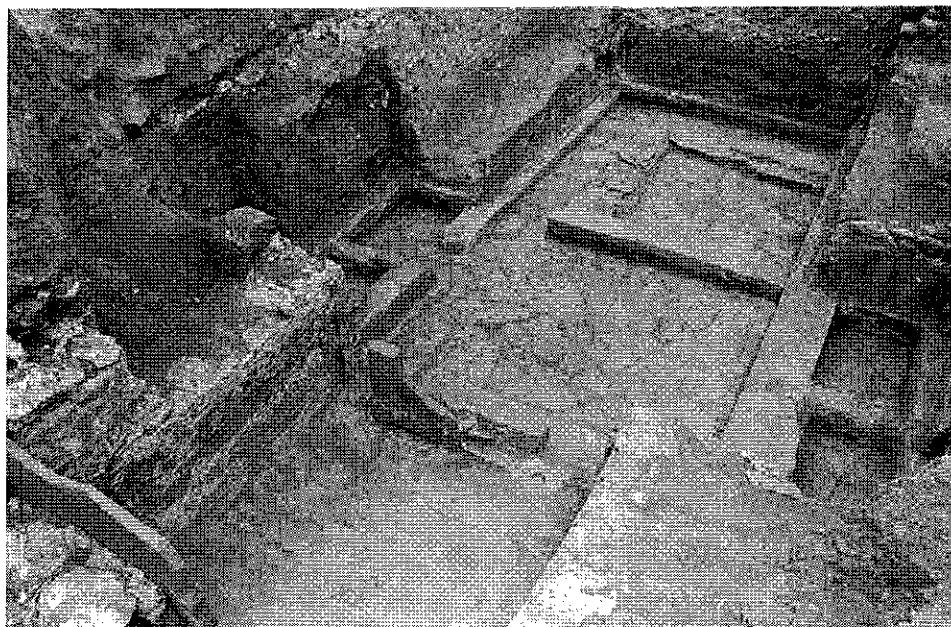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주두, 첨차, 소로에는 곁면에 붉은색만이 칠해 절 있어 매우 단조로운 감을 주고 있다.

고국원왕릉의 축조자들은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두공장식에서 나타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앞칸과 안칸을 구분해 주는 4개의 기둥우에 놓인 주두 정면에 각이한 생김새의 피면을 그려 놓았다. 이 피면들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주인공을 《보호》해 준다는 관념을 담고 있을뿐아니라 무덤의 장식적 효과를 높여 주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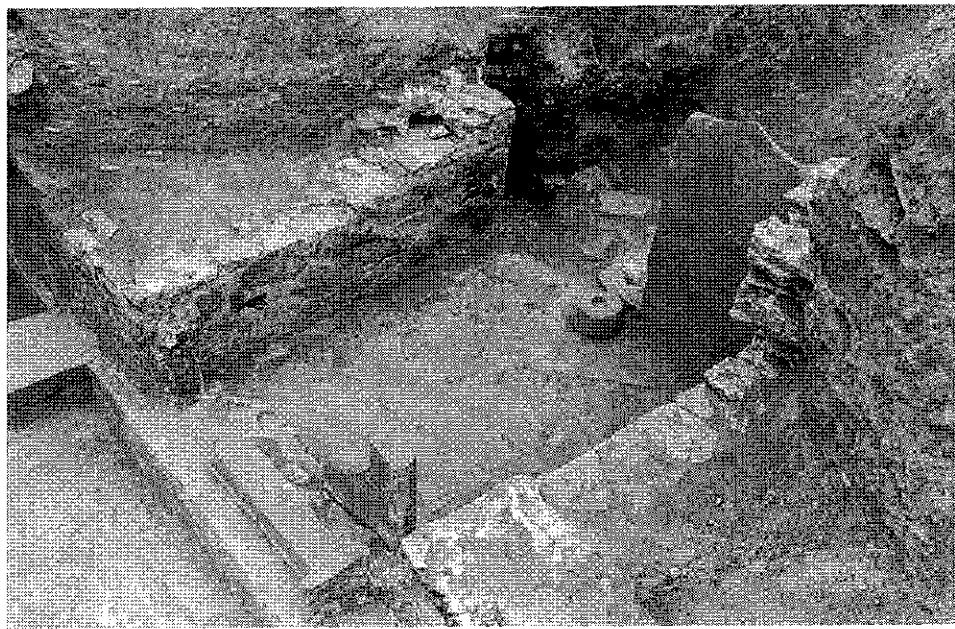
이렇게 고국원왕릉은 태성리3호벽화무덤축조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만들어 졌음으로 건축구성과 내부장식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태성리3호벽화무덤이 미천왕릉으로 될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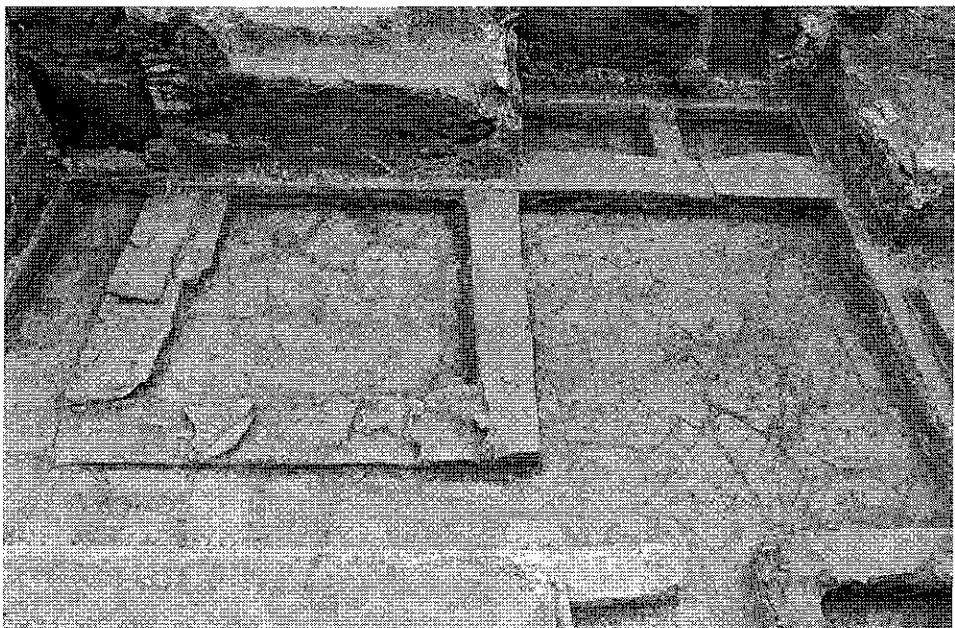
이처럼 이번에 발굴된 태성리3호벽화무덤은 고구려왕릉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수 있는 귀중한 유적으로서 고구려인민들의 웅대한 담력과 높은 건축술을 전해 주고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찬 재보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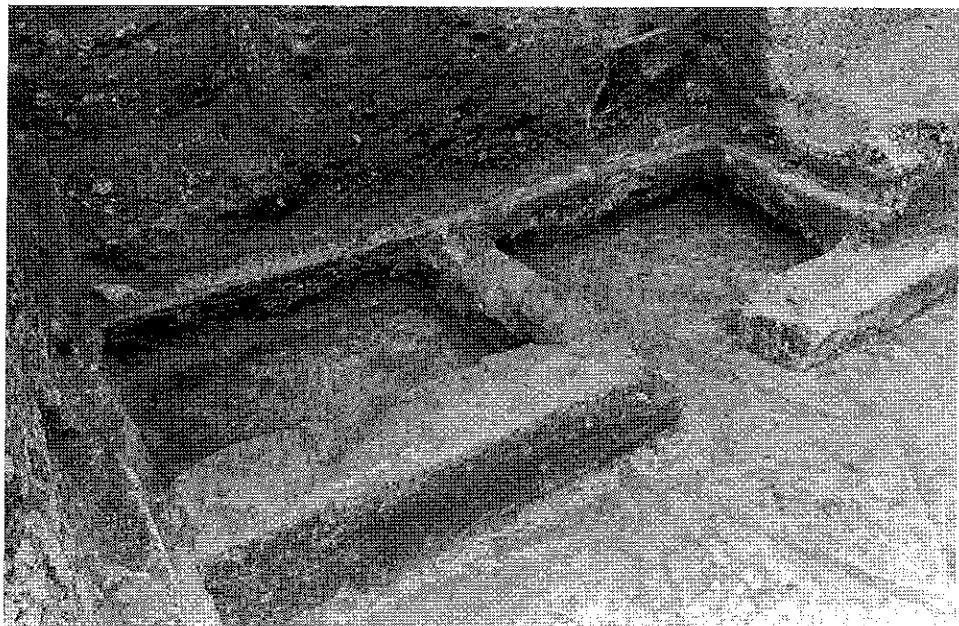
<사진1> 무덤내부 전경(남쪽에서 찍음)



<사진2> 무덤문칸과 문시설상태(서쪽에서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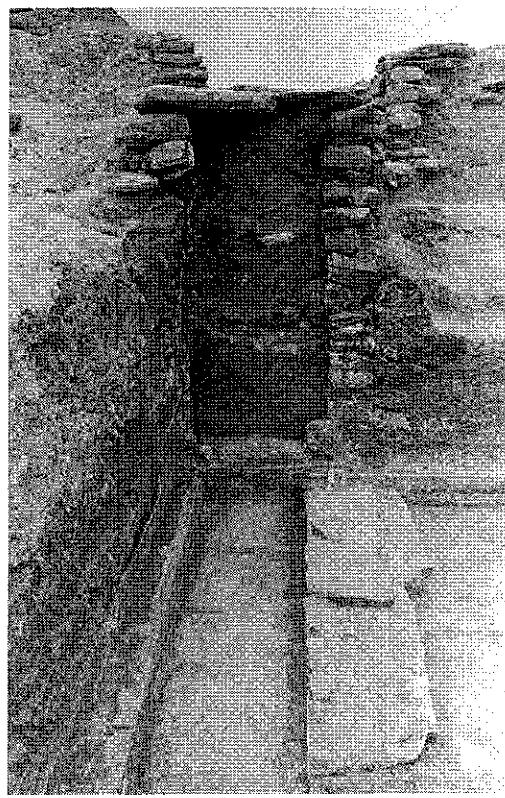
<사진3> 무덤앞칸과 안칸상태(서쪽에서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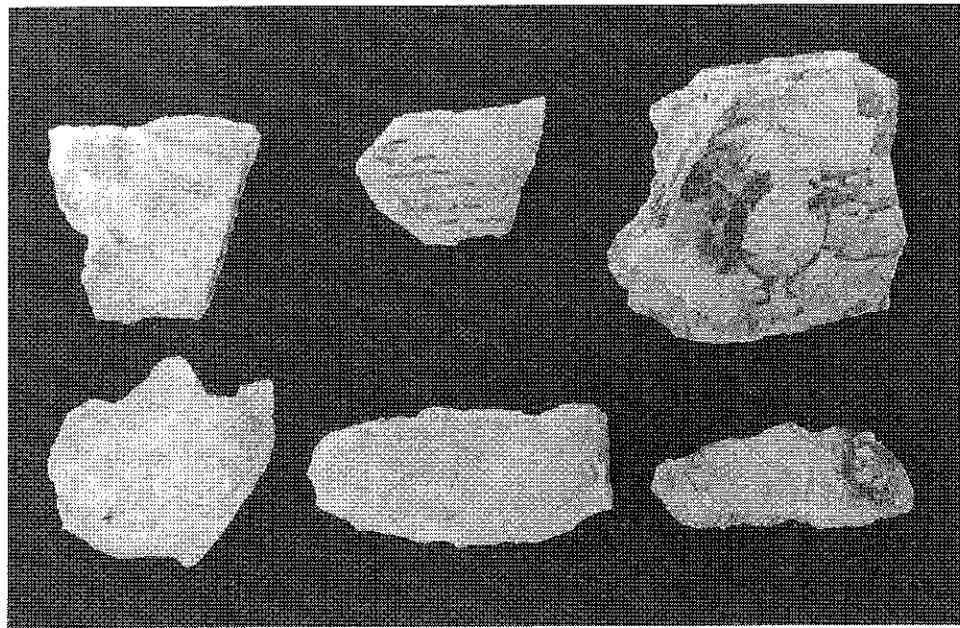
<사진4> 무덤서쪽결カン상태(동쪽에서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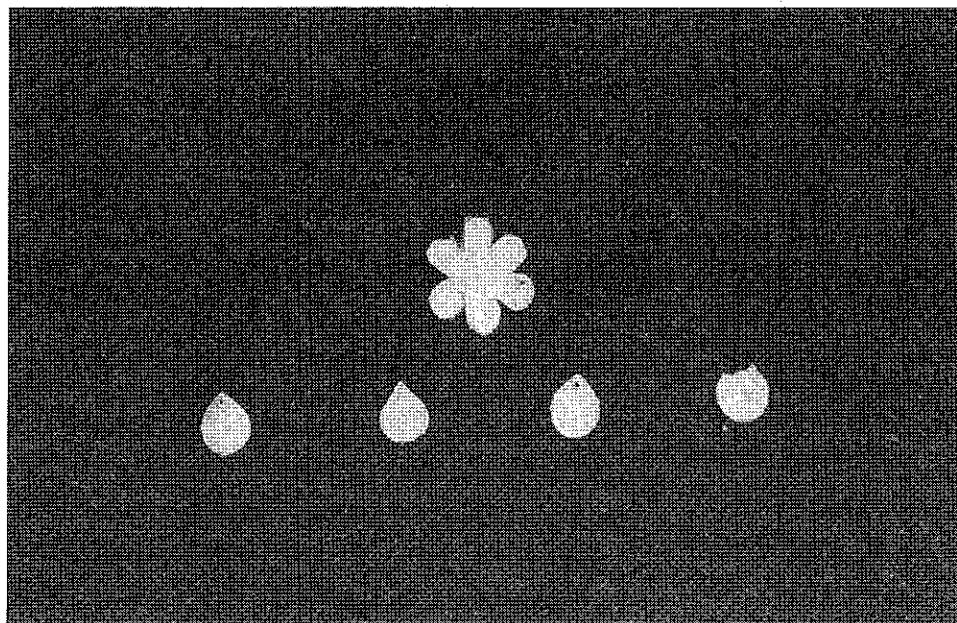
<사진5> 안칸 북쪽대돌 웃면의 기둥흔적(북쪽에서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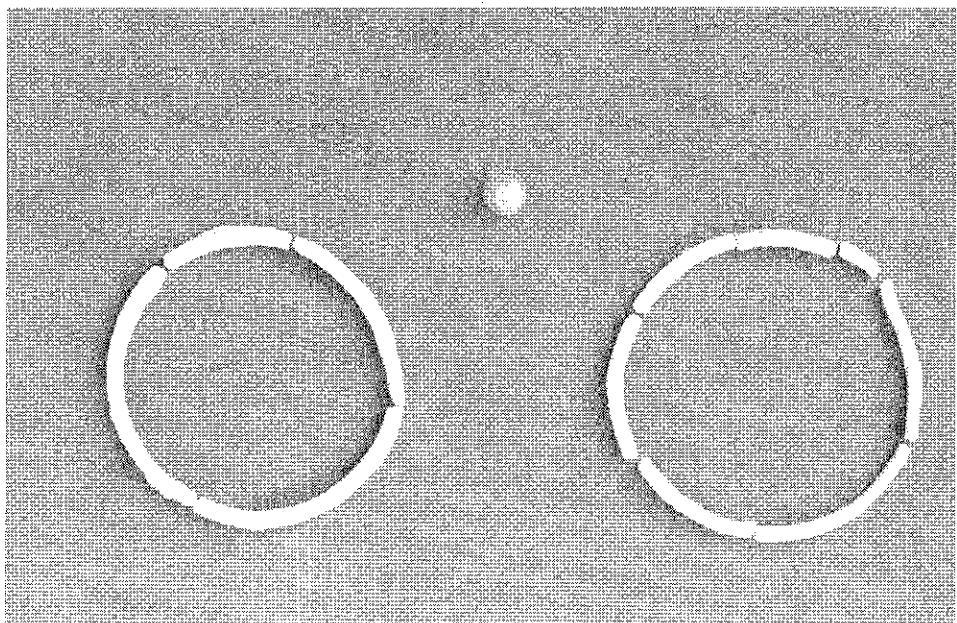
<사진6> 북쪽회랑과 보조통로입구(서쪽에서 찍음)



<사진7> 무덤칸에서 드러난 벽화조각



<사진8> 금제꽃잎형장식품과 금제살구잎형장식품



<사진9> 붉은 구슬과 청동팔찌

<참고문헌>

- 『안악3호분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8년
『태성리고분군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9년
박진욱 『조선고고학 전서』 (중세편 고구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손영종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년
『조선전사』 3(중세편 고구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년
손수호 『고구려고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주체90(2001)년
『미천왕무덤』 사회과학출판사, 1966년
전주농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 [『문화유산』 1959년 5호 14-35페이지]
박진욱 『안악3호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년 2호]
『조선유적유물도감』 4권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년
리광희 『고구려시기 유약바른질그릇의 변천』 [『조선고고연구』 1991년 1호]
김부식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旧唐書』 (高句麗伝)
田中俊明, 東潮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1995년

민족수난기 대중가요(류행가)에 어린 정서세계

- 가사를 중심으로 -

류 만

사회과학원 주체문화연구소

노래는 생활의 숨결이고 박동이며 또 그 메아리이기도 하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 장막이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 우리 인민들에게 그 언제 기쁜 날, 웃을 날이 있었으련만 그래도 우리 인민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비록 식민지인생의 고달픈 하소를 담은 노래였지만 거기에는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설움과 울분, 향토와 조국에 대한 사랑, 래일에 대한 락관과 념원이 담겨 져 있었다.

오늘에 와서 그 노래들을 다시금 더듬어 보는 것은 새삼스러운 감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장장 40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운명을 짓밟히며 고달프게 살아 온 우리 겨레의 마음속 하많은 사연을 담은 대중가요(류행가)의 정서세계를 해아려 보는 것은 역사인식의 전지에서나 오늘의 시대적사명감을 깨우치는 데서 결코 무익한것은 아닐것이다.

1. 대중가요(류행가)의 행적을 더듬어

대중가요는 원래 출현초기부터 사람들속에 류행가로 통칭되어 왔다. 당시 류행가 말고도 여러 가요 종류들이 존재하였는데 그것들은 그의 시대적 및 주제적내용들의 특성과 음악양식적특성에 따라 창가(계몽가요), 동요, 서정가요(예술가요), 신민요 등으로 구분되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일정한 역사적시기에 새로운 노래형식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보급되는 가요를 류행가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근대에 널리 불리운 창가나 예술가요, 신민요 등도 모두 류행가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실제상 신민요를 류행가로 인식하고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류행가』라는 말이 대중속에 널리 류행되는 노래에 대한 종류적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한것은 1920년대 중엽~1930년대 전 기간 흥행적인 레코드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취입한 노래에 류행가라는 잔르를 달아놓은 소리판에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류행가』라는 말은 민족수난의 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운 대중적양식의 한 가요종류로써 창가, 서정가요, 신민요 등과 나란히 놓이는 역사적개념으로 되였다.

당시 류행가들에는 진보적인 류행가와 일제가 폐뜨린 퇴폐적인 류행가가 뒤섞여 있었는데 역사의 흐름속에서 퇴폐적인 류행가들은 생명력을 잃고 사라져 버렸지만 망국의 시대상과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반영한 진보적이며 애국적이며 사실주의

적인 류행가들은 오늘도 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전해지고 있다.

대중가요양식의 노래가 처음 출현한 1920년대 중엽부터 그것이 널리 창작보급된 1930년대를 놓고 보면 그 기간은 불과 10여년의 세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10여년은 일제의 학대와 탄압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는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의 식민지생활에서 가장 엄혹한 시기였다.

일제는 동방제패의 야망을 품고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이용하면서 기름진 육토와 산림을 황폐화하였고 수많은 귀중한 재부를 야만적으로 략탈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파쑈폭압통치는 조선민족의 씨를 없애고 민족성을 말살하며 모든것을 모조리 빼앗아 가는 역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었던 가장 흉악무도한 억압과 학살, 략탈책동이였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국이 짓밟힌 억울하고 통분한 현실, 식민지노예살이가 가져 온 온갖 불행과 고통은 그에 대한 비극적체험을 담은 노래를 낳게 하였다.

그런 가요들이 창작되는 가운데 1920년대 중엽부터 대중가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잃어 진 고향》, 《황성옛터》, 《방랑인》, 《목포의 눈물》, 《세 동무》 등은 그 초기 작품들이다.

리별의 눈물, 잃어 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망국의 설움 등을 담아 처음부터 비애의 감정이 주도적으로 흐른 비가들이 기본을 이루었다.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 민족적울분에 모대기는 비애의 감정이 더 한층 심화되고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그것은 련정가, 방랑가, 애향가 등 여러 주제분야로 분류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 전반기에 인민들의 체험세계에 바탕을 두고 《타향살이》, 《짝사랑》, 《칠석날》, 《눈물 젖은 두만강》, 《진주라 친리길》, 《연자방아》 등이 창작되고 1930년대 후반기에 《두만강 배사공》, 《아주까리 산향》, 《홍도야 울지 말아》, 《류랑선》, 《어머님 전상서》, 《일자상서》, 《비오는 해관》, 《나그네 설음》, 《서귀포 칠십리》, 《국경의 부두》, 《집 없는 천사》 등이 창작되었지만 가요계를 풍미한것은 역시 비탄과 애조였으며 대중가요는 기본적으로 비가의 양상적테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얼음장밑에서도 강물은 흐르고 바위 밑에서도 잔디는 움돌음하듯이 비가에서 탈피해 보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 《망향초 사랑》, 《꽃이 핍니다》, 《순정의 달밤》, 《코스모스 탄식》 등 밝은 색조의 가요창작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그 시대가 제기하는 문제성 있는 주제를 안지 못하고 특징으로 양양되는 시대적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게 무의미한 련정세계에서 맴돌다 보니 색조의 밝음은 있었지만 밝음이 주는 뜻은 비탄과 애조가 안고 있는 뜻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밝은 색조로 창작된 《감격시대》, 《바다의 교향시》, 《청춘일기》 등 작품들은 의미심장한 뜻으로 하여 우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백두산에서 높이 타오르는 광복의 혜불의 여왕이 밝게 비쳐 오는 변천

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바탕에 깔고 비록 은유적이긴 하지만 시대적 감정을 반영함으로써 이 작품들은 당대 인민들의 주도적 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의의 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1940년대에 들어 와서도 대중가요는 근근히 창작되었으나 이때는 벌써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자체의 약점과 일제의 강제적인 군사보급과 전쟁고취가요들의 보급으로 가요계가 타류에 휩쓸림으로써 민족적 정서를 담은 대중가요 창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진보적인 창작가들은 붓을 꺾거나 침묵으로 지냈을 뿐이다.

대중가요가 창작되고 보급되는 전 기간 가요계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혹심하고 가혹하였다.

그 일단을 당시에 출판된 『조선일보』(1933년 9월 14일부)의 기사에서도 엿볼수 있는데 신문은 그해 9월 중순까지 석달동안에 수많은 소리꾼들이 발매금지 당한데 대하여 『19종 2,000여 매에 달하는데 그중 <풍속괴란> 3종, 기타는 전부 사상관계전 <치안방해>에 걸리였다.』고 전하고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아도 『사상관계』라고는 말할수 없는 민족적 감정과 정서를 담은 대중가요들에 조차 『사상』 감투를 씌워 『금곡』이며 『발매금지』처분이라는 차단봉을 내린 탄압책동은 참으로 역사에 류례가 없는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의 이런 탄압책동이 결음결음 막아 서고 뒤따르는 엄혹한 환경에서 대중가요는 1920년대 중엽부터 1930년대에 걸쳐 창작보급되어 왔다.

창으로 찌를수도 없고 철쇄로 묶을수도 없는것이 사상이고 정신이며 노래라고 한다.

일제가 아무리 탄압의 철추를 내려 짧았어도 민족의 넋이 이런 노래는 겨레의 정신과 마음에 실려 세월의 언덕을 넘고 넘기 마련이다.

비록 의젓하지는 못해도 대중가요가 오늘도 빛이 바래지 않고 있는것은 그 간고하고 고통 많은 행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겨레의 생활감정과 식민지현실에 대한 개탄, 조국과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마음속 소원과 래일에 대한 탁관이 생활의 정서로 흐르기 때문이다.

2. 겨레의 마음 담아 흐르는 정서의 특성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수난의 시기 민족의 넋이 이런 노래들을 마음껏 지어 부를수 없었던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심정과 지향을 그냥 가슴속에 묻어 두고만 있지 않았다.

항일대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백두령봉에서 항일혁명가요가 투쟁의 노래,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로 우렁차게 메아리치던 역사적 환경속에서 그런 시대정신의 정수를 담지는 못하였지만 일제의 파쑈통치밑에서 겨레의 마음 담아 창작된 대중가요에는 당시 우리 인민들이 안고 있던 마음속 설움과 울분, 지향과 넘원 등 감

정정서가 은유적으로나마 소박하고 절절하게 노래되었다.

1) 《옛...》과 《님》의 정서적 의미

대중가요의 가사들을 더듬어 보느라면 때없이 눈에 띄우는 것이 《옛...》과 《님》이다.

수백편을 헤아리는 대중가요에 당시의 시대상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하여 어찌 벼락별 표현들이 다 썩이지 않았으면만 그래도 유난히 관심을 모으는것이 《옛...》과 《님》이다.

이리저러한 시적표현들은 다 가사의 내용과 맷에 따라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면서 훌려 갔지만 《옛...》과 《님》은 그것이 단순한 표현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보다 심원한 뜻을 안고 있어 다시금 음미해 보게 한다.

더우기 《옛...》과 《님》은 그 어느 표현보다도 자주, 많이 쓰이면서 여러 작품들에 반복되고 있어 그저 스쳐만 지날수 없게 하는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기 대중가요를 론하는 적지 않은 글들에서 《님》의 의미를 풀이하는 제나름의 주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옛...》을 두고도 일정한 색색이 펼쳐 졌다.

그만큼 대중가요에 어린 겨레의 마음을 헤아리는데서 《옛...》과 《님》은 주되는 관심사의 하나로 되었다.

어찌보면 《옛...》과 《님》의 의미를 잘, 깊이 헤아리는것이 대중가요에 어린 겨레의 마음을 더듬어 보는 그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가요에 어린 겨레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먼저 《옛...》과 《님》의 의미를 음미해 보는것은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옛...》의 정서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사전적 해석에 의하면 《옛...》은 《예전의》 또는 《옛날의》[《조선말대사전》(1763폐지)]뜻을 가리킨다.

통털어 지난 날, 지나 간 과거를 의미하는것이다.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보는 《옛...》도 기본은 예전 또는 옛날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르다면 가사에서는 그것이 접두사적으로 쓰이면서 그 뒤에 다양한 의미적 개념들이 덧붙여지고 있는것이다.

대중가요의 가사에서 《옛...》이 쓰인 경우를 보면 매우 다양하다.

옛터, 옛날, 옛사랑, 옛 님, 옛 상처, 옛꿈, 옛 자취, 옛일, 옛 추억, 옛 시절...

작품을 읽어 보느라면 터, 날, 사랑, 님, 상처, 꿈, 자취, 일, 추억, 시절...앞에 붙은 《옛...》은 분명 그것이 지나 간 과거를 의미하는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당시의 시대상과 겨레의 심정을 펼쳐 보이는데서 《옛》-과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였으며 왜 굳이 지난 날의 일들을 꺼들여 현실을 노래해야 했겠는가. 《옛》을 단순히 그것이 뜻하는 의미로써만이 아니라 그에 담겨져 있는 심원한 뜻

을 해쳐 보아야 한다고 새삼스럽게 말하게 되는 리유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여기에 『황성옛터』(왕평 작사, 전수린 작곡)의 가사가 있다.

황성옛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설은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
끝 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여 왔는가 (1절)

슬기롭고 기개높은 선조들의 넋이 어린 옛 도읍의 성터, 『외로운 나그네 신세』 되여 『괴로운 이 심사』나마 풀어 불가 하여 옛도읍의 성터를 찾아 왔건만 맞아 주는것은 방초만 무성한 폐허뿐, 차디찬 달빛은 고요히 흐르며 고색찬연하여야 할 한양의 옛성터에서 처량하게 느끼는 서정적 주인공의 회포를 더해 준다.

기나긴 방랑에 지치고 고된몸을 풀고 잠시나마 그 어떤 정신적 위로나 일루의 희망의 빛이라도 찾을가 하여 옛성터에 찾아 왔건만 맞아 주는것은 폐허뿐이 아닌가. 무너진 황성옛터. 그것은 다름아닌 짓밟히고 수난 당하는 조국의 모습이고 가혹하게 뜯기고 찢기며 진 이 나라의 참상 그대로인것이다.

가사에서는 옛터에 초점을 두고 고색찬연하여야 할 황성옛터가 폐허로 되여 버린 현실적체험속에서 나라를 잃은 설음을 절절히 토로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참혹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아픔과 슬픔을 직접 밝힐수 없었던 조건에서 『옛터』에 빗대여 그런 감정정서를 표출시킨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이때의 『옛...』은 단순히 예전의 뜻만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애착과 그리움의 감정과 통한다. 서정적 주인공은 잃어 진 조국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에 한껏 젖어 옛 성터를 찾아 온것이다.

황성옛터에서 살아 숨 쉬던 조국의 슬기와 기개나마 느껴 보고 싶었지만 그마저 폐허로 되여 외로움과 괴로움에 젖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라 잃은 서정적주인공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황성옛터』에서 『옛...』의 의미는 이처럼 파면 팔수록 뜻이 깊고 심원하다.

『황성옛터』뿐아니라 대중가요의 가사들에 써인 『옛...』을 살펴 보면 그것이 쓰인 정황과 계기, 포괄하는 정서적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가 담고 있는 의미는 본질상 『황성옛터』의 경우와 같다고 볼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대체로 지난 날, 지난 생활, 잃어 진것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다.

지난 날의 무엇이 그리워 못 잊어 하며 그렇듯 애틋한 사랑의 정을 쓰는것인가.

지나 간 그 옛날에 푸른 잔디에
꿈을 꾸던 그 시절이 언제이던가 (1절)
[『세 동무』(김서정 작사, 작곡)에서]

고향앞에 벼드나무 올 봄도 푸르련만
벼들피리 캐어 불던 그때가 옛날 (3절)

[«타향살이»(김릉인 작사, 손목인 작곡)에서]

락수소리 시들프다 타향의 밤
하늘멀리 안개속에 두고 온 옛날 (1절)

[«이국의 등불»(박영호 작사, 리용준 작곡)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신세

...
어머님의 옛 사랑이 다시 그립다 (1절)

[«집 없는 천사»(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에서]

1. 달밝은 고요한 이밤
흘러 간 옛 추억 떠온다
다정히 속삭이며 거닐던 그날밤
가만히 부른다 흘러 간 옛님을

2. 장미꽃처럼붉게 피던
흘러 간 옛 시절 그립다

[«청춘의 푸른 꿈»(조령출 작사, 김해송 작곡)에서]

서산에 해가 지고
저하늘에 별이 떴소
동무들과 열싸 안고
옛 노래를 불러 보리 (2절)

...
[«연자방아»(조령출 작사, 리면상 작곡)에서]

깊은밤 쪼각달은 흘러 가는데
어찌다 옛 상처가 새로워 진다 (3절)

...
[«목포의 눈물»(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에서]

보는바와 같이 «옛...»에 의하여 표현된 애착과 그리움 그것은 련인과 속삭이던 옛 사랑이기도 하고 타향에서 떠살이 하는 처지에서 그리워 지는 어머님의 옛 사랑이기도 하며 또한 푸른 꿈이 흘러 가고 삶이 숨 쉬던, 이제는 안개속같이 추억되는 옛날이기도 하고 벼들피리 캐어 불던 그 시절, 이제는 다시는 오지 못할 그 옛날이

기도 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흘러 간 옛 추억속에 떠오르는 장미꽃 같은 옛 시절이기도 하고 해여 진 동무들과 다시 만나 옛 노래를 불러 볼 부푸는 희망이기도 하며 현실에서의 아픔을 두고 되새겨 지는 옛 상처이기도 한것이다.

현실에 살며 현실에서 래일을 그려 보며 내닫는것이 인간의 참 삶일진데 굳이 현실에서 지난 날을 돌아켜 보며 그때를 그리워 하는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그것은 분명 지난 과거보다 못한 현실, 당시 현실이 주는 불만들을 현실보다 나았던 지난 날에 하소하여 터뜨려 보자는 심사에서였을것이다.

더우기 현실에 대한 불만을 당시의 현실에 대고 터칠수 없었던 실정에서 지난 날에 대한 애착, 그리움속에 현실적모순과 불합리를 고발하는 심증의 토로가 슴배여 있는것이다.

분명 『옛...』은 당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킬수 없었던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차고 넘친 설움과 울분, 참된 삶에 대한 지향과 네원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서 매우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표현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날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 더 강렬하면 할수록 『옛...』에 은유된 우리 인민의 이러한 감정정서세계의 뜨거움은 더 강렬한것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가요의 가사들에서 널리 써인 『옛...』의 심원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님』의 정서적의미를 생각해 본다.

대중가요의 가사들을 보면 『님』은 『옛...』과 쌍벽을 이룬다고 할만큼 널리 그리고 자주 써였다. 개별적인 가요에서 『님』이 독자적으로 쓰인 경우도 많았지만 『옛...』과 함께 쓰인 경우도 적지 않다.

대중가요 전반을 놓고 볼 때 『님』의 의미는 『옛』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작품에서 쓰이게 된 사정은 『옛』의 경우와 엇비슷하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이다.

『옛』은 시간적견지에서 과거를 의미하는 정서적내용을 담고 써여 졌다면 『님』은 서정 분출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보다 은유적의미를 띠고 써여 졌다.

그러면서도 다같이 대중가요에서 당시의 시대상과 인민들의 심정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모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예로부터 시가들에서 많이 써여 왔다.

멀리는 그만 두고라도 1920~1930년대 우리 인민들이 식민지노예운명을 강요 당했던 시기의 시작품들의 갈피를 펼쳐 보아도 쉽게 찾아 볼수 있는것이 『님』이다.

신채호는 시『너의것』에서 『님』을 노래했고 한용운도 『님의 침묵』을 비롯한 많은 시작품들에서 『님』을 대상으로 서정을 더쳤으며 김소월도 자기의 시에서 『님』을 두고 심증의 하많은 생각을 뿜어 올렸다.

이밖에도 많은 시인들의 시작품에서 『님』을 찾아 볼수 있는것이다.

그러한 시들에서 노래된 《님》을 헤아려 보느라면 개인적련정의 대상으로서의 《님》이 있었는가 하면 사모하는 대상으로서의 《님》에 의탁하여 다양한 감정정서를 표현한 작품도 많았다.

대중가요에서의 《님》도 당시 시가들에서 널리 써인 《님》의 이러한 일반적경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도 대중가요의 구체적인 작품의 서정세계에 따라 《님》의 모습, 《님》의 정서적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예컨데 《비오는 해관》, 《련락선은 떠난다》, 《칠석날》등 작품에서의 《님》은 고스란히 개인적련정대상으로서의 《님》-애인이다.

비오는 포구에서 정든 님을 보낸다
비줄기 눈물속에 고동이 운다
잘 가소 잘 있소 인제가면 언제오나
아 바다끌 구름속에 등대가 쉽다 (1절)

[《비오는 해관》(작가 모름, 전기현 작곡)에서]

배고동 울어울어 련락선은 떠난다
잘 가소 잘 있소 리별 슬픈 밤 부두
진정코 당신만은 진정코 당신만은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갑니다. 아 울지를 말아요 (1절)

[《련락선은 떠난다》(박영호 작사, 김해송 작곡)에서]

비오고 어설픈 포구에서 정든 님과 리별하는 쓸쓸하고 애달픈 순간에 체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비통한 심정은 당시 시대상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얼마나 많은 우리 겨레들이 일제의 탄압과 강도적인 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강제로동으로, 징용으로, 종군위안부로 끌려 가며 생리별을 강요 당했던가.

잘 가오 잘 있소의 울부짖음만 소란한 읊산한 부두에서의 《님》과의 기약 없는 생리별은 당시 일제의 마수가 뻗친 우리 나라 어디에서나 벌어 지는 참상이였다.

《비오는 해관》, 《련락선은 떠난다》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는 정든 님과의 생리별을 통하여 일제의 포악성, 비인간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때의 《님》은 개인적련정의 대상으로서의 애인으로 되고 있다.

그 《님》-애인과의 리별의 서러움이 강조됨으로써 생리별을 강요한 당대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저주의 감정을 축발시키고 있는것이다.

그런가하면 《강남달》(김서정 작사, 작곡), 《집 없는 천사》(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 《청춘일기》(조령출 작사, 손목인 작곡), 《눈물 젖은 두만강》(한명천 작사, 리시우 작곡) 등 작품의 경우 《님》은 사모하는 대상으로서의 《님》을 뜻하면서도 그 정서적의미는 한층 심화 확대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다.

말하자면 이때의 《님》은 보다 상징적의미를 띠고 있는것이다.

1. 강남달이 밝아서 님이 놀던 곳
구름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 졌네
...
2. 멀고 먼 님의 나라 차마 그리워
정막한 강남가에 물새가 우네
...
3. ...
차라리 이몸이 잠들리로다
님이 절로 오시여 깨울 때까지
(《강남달》에서)

뒤골목 장담아래 무릎을 끓고
쳐다보는 칠성달이 정든 님이여
집 없는 몸이라고 한을 할소냐
울지 말아 고생속에 행복이 온다(3절)
(《집 없는 천사》에서)

시구절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남달》에서는 님이 놀던 곳, 그의 얼굴까지 부연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님》이 구체적인 현정의 대상인물처럼 표현되었지만 2절과 3절에서는 《머나먼 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 《님이 절로 오시여》깨울때까지 기다리리라는 서정이 토로됨으로써 님은 단순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아닌 숭고한 대상으로서의 보다 깊은 뜻을 간직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하여 동화세계를 련상시키는 작품의 감정정서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리상과 동경이 《님》에 실려 있다는것을 감득하게 한다.

《집 없는 천사》 역시 하늘을 지붕 삼고 땅도는 가련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뒤골목 장담 아래 무릎을 끓고 쳐다보는 칠성달이 정든 님》이라고 함으로써 《님》을 통하여 집 없는 가련한 처지에서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소원,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가 하면 《청춘일기》에서도 《올드(북구라파의 신화에 나오는 슬기와 용맹을 지닌 사람-필자주)가 숨 쉬는 푸른 언덕》, 《갈매기 춤 추는 푸른 바다》, 《가을의 기름진 이 거리》를 정황적으로 제시하고 《님이여 가잔다 구름 따라 저 멀리》, 《님이여 가잔다 물연기를 피우며》, 《님이여 가잔다 노래하며 웃으며》라고 함으로써 《님》을 그 어떤 희망과 리상의 세계로 함께 가는 상징적인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승화하여 노래하였다.

《강남달》, 《집 없는 천사》, 《청춘일기》에서의 《님》은 식민지 통치하의 참혹한 현실에서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리상, 희망, 소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서적의미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것도 아니다.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생활을 강요 당한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고통과 괴로움, 마음속 설음과 생각은 하많은것이였으며 그것은 가요에서 서로 섞이고 얹혀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는 리별의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나라 잃은 설음도 있고 고향 떠난 설음이 있는가 하면 망국인 된 울분도 있으며 또 빼앗기고 혼여 진 그 모든것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의 사무침이 있는가 하면 래일에로의 활기증진과 락관도 있는것이다.

이 모든 감정정서는 때로는 고유하게, 때로는 혼류되면서 분출되어 대중가요의 서정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러저러하게 분류하여 고찰하게 되는 대중가요에서의 감정정서의 특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것이라는것을 부언해 둔다.

대중가요에 구현된 감정정서의 특성을 두고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것은 많은 대중가요들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삼천리금수강산이 왜놈에게 짓밟히고 인간생지옥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침략자들에 대한 원한과 울분을 짙게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역사에 류례 없는 가장 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거대한 하나의 감옥으로 화해 갔고 민족적인 모든것이 여지없이 짓밟혔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참을수 없는 민족적의분이 끓어 올랐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가슴 아파하며 망국노의 신세를 빼저리게 통탄하는 울분의 감정이 훌러 넘쳤다.

이러한 민족적울분을 반영하여 《황성옛터》에서는 이 나라의 종묘와 사적을 간직하고 강성을 자랑하던 옛 수도가 폐허로 된 성터에서의 느낌을 통하여 식민지현실에 대한 통탄의 감정을 절절하게 토로하였으며 《무너진 황성》 역시 메마른 갈대꽃, 서글픈 물소리, 무심한 별빛을 정서적으로 부각하면서 짓밟힌 조국을 두고 느끼는 통탄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황성옛터》, 《무너진 황성》(박영호 작사, 김해송 작곡), 《목포의 눈물》등 작품들이 주로 식민지현실을 괴롭게 감수하면서 통렬하게 개탄하였다면 《락화삼천》(조령출 작사, 김해송 작곡), 《진주라 천리길》(조령출 작사, 리면상 작곡) 등 작품들은 역사적인 고사와 유적들에 의탁하여 식민지현실에 대한 통탄의 감정을 바탕에 깔면서 우회적으로나마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 굴함없이 민족적기개를 지켜 나가려는 의지를 노래하였다.

1.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가
촉석루의 달빛만은
나무기둥을 열싸 안고
아 타향살이 이 심사를
위로할줄 워 모르나

2.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가
남강가에 외로이
모래알을 만질적에
아 타향살이 설음인줄
내어이 몰랐던가

진주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안고 강물에 떨어져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의 기운개를 놓은 고장이고 축석루는 룬개의 애국적기개를 찬양하여 남강가에 세운 루 각이다.

서정적주인공은 타향살이에서 천리길을 달려 거기에서 숨 쉬는 민족적기개나마 느끼려 하나 달빛만 나무기둥을 열싸 안고 도는 모습이 보여 울뿐 모든것이 여지없이 짓밟히었음을 더욱 절감하며 솟구치는 울분을 늑잖히지 못한다.

이러한 울분의 바탕에는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황폐화시킨 일제에 대한 저주와 원한의 감정이 깔려 있다.

《진주라 천리길》에서와 마찬가지로 《락화삼천》에서도 천수백년전의 백제땅의 고적을 더듬으면서 왜적에게 항거하여 꽃다운 청춘을 강물우에 던진 3천궁녀들의 지조를 두고 《물어 보자 3천궁녀 간 곳이 어디이냐》고 토로함으로써 자랑스럽고 기개 높던 민족적전통이 모조리 짓밟힌 식민지현실을 울분에 넘쳐 통탄하였다.

많은 작품에서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울분을 장렬하게 토로하면서 그와 함께 일제강점하의 현실적모순과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는 현실비판적기백을 보여 주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당시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폭로하여 창작공연된 연극《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가 《홍도야 울지 말아》(리고범 작사, 김준영 작곡)이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울지 말아 오빠가 있다
안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1절)

노래는 연극의 주제가였던만큼 거기에는 기구하고 눈물 겨운 생활의 어려저러한 사연이 직접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체험세계에 바탕을 둔 감정정서가 다양한 시점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가사에서는 사랑을 돈으로 팔고 사는 혐악한 세상을 저주하면서 그 어지러운 현실속에서도 퇴폐와 타락에 섭쓸리지 말고 순정을 지켜 꽃꽂이 살아 갈것을 절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돈에 짓밟힌 사랑으로 하여 모진 운명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인간의 순정과 아름다움을 지켜 꽃꽂이 살아 가는 그 길에 밝은 앞날이 있음을 정서적으로 의미 깊게 강조하였다. 가사의 이러한 형

상에는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러한 현실에서도 굽히지 않고 살아 가려는 인간적기개와 량심의 울림이 있다.

당시 현실적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비판의 감정은 《세상은 요지경》(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 《청춘문제》(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 《기로의 황혼》(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 등 작품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 작품들은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한결같이 불합리하고 모순에 찬 당대 현실을 숙명적으로 감수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하여 그것을 비판하는 감정정서를 반영함으로써 그 모든 사회악을 놓은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식을 일정하게 구현하였다.

대중가요에 흐르는 감정정서에서 또한 특징적으로 찾아 볼수 있는것은 빼앗긴 향토와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 고향을 잃고 이국땅에서 방황하는 외로움과 설움이다.

향토와 고향에 얹혀 살 때에는 그 소중함을 미처 다 모르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더우기 그것을 잃고 해외에서 방랑의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 향토와 고향이야 말로 떨어져 살수 없는 살붙이이고 삶의 보금자리라는 그것이다.

살붙이를 떼우고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그 설움과 비애의 크기를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바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은 착취와 억압에 쫓기여 조상전래의 기름진 옥토와 고향집을 빼앗기고 혼해탄을 건느고 암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쓰라린 이국살이를 강요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난 많은 이국살이 생활체험과정에 우리 인민이 깊이 절감한것은 고향의 소중함과 그리움이였고 조국을 빼앗기면 고향도 잃는다는 가슴아픈 진리였다.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고 고향에 대한 애듯한 사랑으로 가슴 불 태우며 수난자의 운명에 몸부림 치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향토애는 누구나가 간직한 소중한 감정이였으며 따라서 이 시기 가요들에서는 이러한 감정정서를 반영하여 애향가(수향가)라는 하나의 가요군이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그런 가요들중에서 《잃어 진 고향》(윤시정 작사, 작곡), 《동무의 추억》(리하윤 작사, 가튼 작곡), 《타향살이》(김릉인 작사, 손목인 작곡), 《고향설》(조령출 작사, 김해성, 리봉룡 작곡), 《어머님 전상서》(조령출 작사, 김룡환 작곡) 등 많은 작품들이 있다.

몇 해만에 와보는 고향이련가
꿈결에도 그리움던 향촌마을아
내가 살던 정든 집 언제 헐렸나
오동나무 한그루만 홀로 서 있네(1절)
(《잃어 진 고향》에서)

한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이요

두송이 눈을 봐도 고향 눈일세
끌없이 쏟아 지는 하얀 눈속에
고향을 불러 보니 고향을 불러 보니
가슴 아프다(2절)

(《고향설》에서)

《잃어 진 고향》에서의 체험세계는 고향 떠나 방랑하다가 몇 해만에 와보는 고향이였건만 지난 날의 정든 집은 다 헐리우고 다정한 이웃들도 다 사라져 버린, 그전 날의 오동나무 한그루만 표적으로 남은 처량한 감정정서를 펼치고 있다면 《고향설》에서의 체험세계는 이국땅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두고 고향 그리는 비통한 감정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고향이라고 찾아 왔건만 옛 모습은 다 없어 져 버린 황폐화된 고향땅에서의 느낌이나 이국에서 떠나 온 고향을 두고 차마 못 잊어 하는 애달픈 느낌이나 그 체험세계가 다를뿐 거기에는 다같이 고향을 잃어 삶의 보금자리까지 빼앗긴 가련한 처지를 한탄하는 서러움과 함께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담겨 져 있다.

다른 작품들인 때이르게 먼저 간 죽마고우 어릴적동무의 무덤을 찾게 되는 비극적체험을 노래한 《동무의 추억》, 국경렬차에 몸을 싣고 멀어 지는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 적시는 비통한 심정을 노래한 《향수렬차》, 고향의 어머님이 보내온 편지를 받아 안고 눈물속에 회답을 올리는 한 녀인에 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고향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어머님 전상서》 등 작품들에도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의 감정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다.

잃어 진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거기에 리향민의 고달픈 생활처지와 설음이 짙게 반영되어 있는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에서 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작품들에서도 찾아 볼수 있지만 또한 《방랑자의 노래》(리규송 작사, 강윤식 작곡), 《이국의 등불》(박영호 작사, 리용준 작곡), 《타향살이》(김릉인 작사, 손목인 작곡), 《집 없는 천사》(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 《나그네 설음》(고려성 작사, 리재호 작곡) 등 리향민의 생활에 바탕을 두고 서정을 펼친 작품들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서정적주인공은 타향살이, 방랑생활을 두고 《나그네 심사》, 《부평 같은 이내 신세》,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나날에 《청춘만 늙어》버린테 대하여, 《락망과 설음에 병든 몸》, 《몸도 늙고 마음도 늙어 절로 시드》는데 대하여 늙어질할수 없는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리향민의 설음과 울분이 인간의 운명문제와 결부됨으로써 이러한 작품들에서의 감정정서는 당시 식민지사회가 우리 인민들에게 강요한 불행의 사회적근원과 심각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 있다.

고향을 잃은 설음, 잃어 진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고향 떠난 이국에서의 방랑인의 애달픔을 노래한 작품들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탄압밑에서 식민지노

예 생활을 강요 당한 우리 인민의 생활의 처참상과 함께 조국과 항토의 귀중함을 짚은 정서적 체험 속에서 반증적으로 잘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 시기 대중가요의 감정정서에서 특징적인 것은 또한 청춘남녀들의 사랑, 리별, 그리움을 그리면서 그를 통하여 당대 현실에 대한 울분과 밝은 앞날에 대한 기원을 반영한 것이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의 고달프고 비참한 생활이였다고 할지라도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지향하는 청춘남녀들에게는 눈물 겨운 사랑도 있고 앞날에 대한 꿈도 있었다. 당시의 가혹한 식민지현실은 이들의 소박한 사랑마저도 짓밟고 리별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사랑은 안제나 리별의 아픔을 동반하였고 사람들의 가슴은 그리움으로 재가 되도록 타버렸다.

많은 작품들에서는 련인들의 애통한 리별의 정서를 구체적인 시적계기와 생동한 시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드러내였다.

부실부실 비내리는 저문 항구에
기적도 구슬프다 리별의 손길
그대여 잘 가시오 갈리는 소리에
희미한 불빛아래 사라진 영상(1절)

[«항구야 잘 있거나»(리규희 작사, 손목인 작곡)에서]

울어라 쌍고동아 리별의 싸이렌아
이왕에 갈바에는 미련없이 가거라
련락선 란간머리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 치는 꽃을 몸부림 치는 꽃을
안 보느니 못하다(1절)

[«울어라 쌍고동»(조령출 작사, 김해송 작곡)에서]

비내리는 스산한 항구에서 리별에 몸부림 치는 련인들의 슬픈 참상, «련락선 란간머리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토록 헤여 지기를 괴로워 하는 사람들이건만 끝내는 갈라 쳐야 하는 것이다.

일제식민지사회에서 우리 인민은 사랑이자 리별이라는 비극적인 애정륜리를 강요당했다. 그것은 사랑을 깃들일 보금자리가 없었고 지켜 주는 품도 없었으며 사랑의 밝은 앞날을 바라는 사회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보는바와 같이 가사들은 깊이 있는 주정토로를 개방하기 보다는 구체적이며 생동한 묘사적인 시형상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당대 사회의 비극적인 생활단면들을 투시함으로써 불행을 강요하는 일제식민지사회제도에 대한 끝 없는 저주와 울분, 사무친 원한을 절절한 정서의 세계로 펼치였다. 이러한 정서적 특성은 «포구의 인사»(박영호 작사, 리봉룡 작곡), «애수의 제물포»(박영호 작사, 전기현 작곡) 등 여러 작품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대중가요들에서 가신 님에 대한 그리움도 중요한 감정정서의 하나로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눈물 젖은 두만강』처럼 『님』에 의탁하여 조국을 다시 찾을 그날에 대한 기대를 은유적으로 노래한 작품과 『사나이 가는 길에 가시덤불 넘고 넘어』 부디 성공하기를 바라는녀인의 심정을 토로한 『목단강편지』(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 『천리길이 멀다 해도 님만 계시면 폭풍우가 구질어도 나는 가』고 『가시성이 혐난해도 나는 가』겠노라는 『꿈길 천리』(남풍월 작사, 손목인 작곡) 등 님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면서 앞날에 대한 기대와 념원의 감정을 은연중에 반영한 작품들에 구현되어 있다.

현인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과 동시에 현인과의 리별의 애달픔이 강조되면서 또한 그리움이 강렬하게 솟구치게 함으로써 현정가요들은 그 아름답고 귀중한것을 짓밟힌 우리 인민의 말 못할 설음과 울분, 그것을 강요한 당대 현실의 가혹성을 정서적으로 드러냈다.

이상에서 보아 온 민족수난기 대중가요에서 흐르는 감정정서세계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비탄과 애조에 젖어 있는것으로 하여 공통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 온 비탄과 애조에 젖은 정서세계와는 달리 보다 밝고 희열에 넘치며 랑만에 끓는 그런 정서세계를 펼친 대중가요들도 창작되었는데 그러한 작품들의 감정정서는 대중가요의 여러 작품가운데서도 당시 시대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구현한 특성을 보여 주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서면서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전국적 범위에서 반일광복투쟁이 새로운 양양기에 들어 섰으며 인민들은 백두산장군별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로 희망에 넘쳐 들끓고 있었다.

당시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의 정신과 기운을 반영하여 시작품들도 창작되었으며 대중가요에서도 슬픔과 눈물에 젖은 지난 날의 정서 대신에 약동하는 기운과 환희, 희망의 감정을 랑만적으로 노래하려는 지향이 새롭게 나타났다.

『감격시대』(조령출 작사, 박시춘 작곡)는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대중가요의 제목만 보아도 『잃어 진 고향』이요, 『방랑자의 노래』, 『타향살이』며 『목포의 눈물』, 『애수의 소야곡』, 『울며 혜진 부산항』, 『나그네 설음』 등 설음과 비애에 젖은것이였는데 『감격시대』는 그 제목자체에서 벌써 격동적인 1930년대 후반기 현실의 기운을 담고 있는것이다.

1.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 쉬는 거리다
미풍은 속삭인다 빛나는 눈동자
불러라 불러라 불리라 불리라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을 불며 가자 래일의 청춘아

2. 바다는 부른다 정열에 넘치는 청춘의 바다여
오색기 팔랑팔랑 바람새 좋구나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바다의 사랑아
봄회망 멀지 않다 행운의 배길아

3. 잔디는 부른다 봄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자연
새파란 지평천리 꽃구름 곱구나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희망의 봄동산
저 언덕을 넘어 서자 꽂피는 마을로

환희에 빛나는 숨 쉬는 거리, 래일의 청춘, 봄회망 멀지 않다, 희망의 봄동산, 꽂피는 마을... 작품의 시구절마다에 넘치는 것은 환희와 랑만, 힘의 약동이며 래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이다.

슬픔과 비애에 젖어 있던 대중가요의 세계를 흔적도 없이 씻어 버리고 환희와 랑만, 열정으로 높뛰는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운 그 서정의 샘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백두의 총포성에서 조국광복의 미래를 확신하고 희망에 넘쳐 시련을 이겨나가려는 인민들의 신념 넘친 의지적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좌절을 모르고 희망을 안고 사는 당시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 백두령봉에서 전해 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온 나라가 들끓던 시대적분위기를 은유적으로 감동깊게 노래하였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청춘일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작품에는 재생의 환희를 맞이한 희열, 수난과 비운이 가셔 버린 신생의 세계로 한시바삐 달려 가려는 피끓는 열망과 랑만의 정서가 매우 강렬하게 노래되어 있다.

이밖에도 《락화류수》(조령출 작사, 김봉룡 작곡), 《바다의 교향시》(김릉인 작사, 손목인 작곡), 《인생가두》(조령출 작사, 손목인 작곡), 《청춘을 찾아서》(왕평 작사, 리면상 작곡) 작품들에서도 한결같이 격변하는 당대 사회의 분위기에 맞게 광복의 미래를 락관하며 억세게 살아 가는 우리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담아 밝은 희망과 활기찬 랑만적색조로 노래한 특성을 보여 주었다.

비탄과 애조의 비가들이 풍미하던 가요계에서 이런 밝은 색조의 노래들이 창작된 것은 대중가요의 감정정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는 이채로운 현상이며 대중가요의 가치를 보다 크게 해주는 의의 있는 일로 된다.

이처럼 민족수난기 대중가요는 그 감정정서에서 빼앗긴 조국을 두고 느끼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울분과 통탄, 고향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리움, 특히는 미약하게나마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급변하여 가는 시대적분위기를 담고 있는 특성을 보여 주었다.

물론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가요들이 당시의 주도적감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탄과 울분의 한계에 머물러 있은 것은 대중가요의 제한성이라고 본다.

이것은 가요계에 대한 일제의 혹심한 탄압과 함께 가요창작가들 자신의 세계관적 제약성과 관련되는 불가피한 사정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들은 그에 담겨져 있는 당시의 시대성과 우리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으로 하여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년

김정일 『음악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년

최창호 『민족수난기의 가요들을 더듬어』 평양출판사 주체86(1997)년

장영철 『신민요연구』 예술교육출판사 1995년

리숙영 『일제강점시기에 나온 진보적인 가요가사문학에 대한 연구』 교육도서출판사
1991년

『계몽기가요선곡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8(1999)년

『계몽기시가집』 문예출판사 1990년

『1920년대시선』 (1) 문예출판사 1991년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9(2000)년 8호

『조선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90(2001)년 12호

『문학신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9(2000)년 6월 10일

『조선일보』 1933년 9월 14일

《비변사등록》의 사료적가치와 그의 번역에서 견지한 몇가지 원칙

송 현 원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과 전통도 잘 알아야 한다.』
(『주체문학론』 33페지)

『비변사등록』은 16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약 300년간 리조봉건국가의 최고중앙관청으로 운영되어 온 비변사의 관청일지이다.

언제나 우리 인민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리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우리 당에서는 『비변사등록』이 가지는 사료적가치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원문그대로 전면번역할데 대한 혁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학자집단은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계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번역전투를 벌려짧은 기간에 『비변사등록』을 번역해 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변사등록』의 사료적가치와 그에 대한 번역에서 우리 학계가 견지한 몇가지 원칙에 대하여 학술적견지에서 밝히려고 한다.

1. 『비변사등록』과 그의 사료적가치

『비변사등록』의 사료적가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비변사등록』이 어떤 책이며 어떠한 내용들을 어떤 원칙에서 수록하고 있는가 하는것부터 밝혀야 한다.

1) 『비변사등록』에 대한 서지적개괄

주지의 사실이지만 『비변사등록』은 비변사의 관청일지이다.

관청일지란 말그대로 해당 관청에서 자기가 진행한 정무처리내용들을 매일매일 수록해 두는 일지를 말한다. 리조시기에는 중앙의 각 관청들에서 자기가 진행한 정무처리내용들을 일지형식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었다.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일부 사료들을 보면 『비변사등록』이외에도 우로는 의정부와 6조로부터 아래로는 사용원이나 귀후서와 같은 하급관청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중앙관청들에 자기의 등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칭 각사등록(各司謄錄)이라고 하였다.¹

1 영조시기인 1746년에 인조원년(1623년)-경종원년(1721년)의 99년간의 『승정원일기』를 복원할 때 이러한 각사등록이 주요사료로 리용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리조시기 일부 중앙관청들 가운데는 승정원이나 홍문관과 같이 자기가 진행하고 관여한 사무내용을 등록이 아니라 일기라는 이름으로 관청일지를 정리해 두는 곳도 있었다. 등록과 일기는 염밀하게 따지면 그의 내용수록범위나 원칙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지만 매일매일 기록하고 또 자기가 관여한 정무내용들을 수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따라서 둘다 해당 관청의 관청일지인 것이다. 결국 리조시기에는 중앙의 각 관청들에서 관청일지를 정리하는 것이 규례화, 법제화되어 있었다.²

《비변사등록》은 리조기시의 관청규례에 따라 편찬된 관청일지로서 그것은 비변사가 상설관청으로 설치된 1541년부터는³ 의례히 편찬되었을것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광해군 9년(1617년)부터 고종 29년(1892년)까지의 등록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광해국시기와 인조시기의 일부 등록들을 비롯하여 결질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도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왕대 (광해군-고종)	결질된 연도와 달 (1617년 1월-1892년 12월)	포괄년대
광해군	10년(7-12), 11-15년	5년 6개월
인조	2년(7-12), 3-11년, 14-15년, 17-18년, 21년	14년 6개월
효종	2년, 6년, 9년, 10년	4년
현종	7년, 13-15년	4년
숙종	6년, 7년, 22-24년, 27년, 38년(7-12)	6년 6개월
경종	원년, 2년	2년간
영조	19년(7-12), 20년, 24년, 26년(7-12), 30년(1-6), 48-49년, 52년	6년 6개월
정조	7년, 9년, 16년(7-12), 17년(7-12), 18년(1-6), 23년(1-6)	4년간
순조	8년, 15년, 21년	3년간
현종	8년	1년간
철종	없음	0
고종	원년, 2년, 4-6년, 11년	6년간
계		57년간

()안이 수자는 달을 표시함, ()가 없는 연도는 1-12월까지 전부 없는 해임.

표를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현존 《비변사등록》은 광해군부터 고종까지 17왕대의 276년간의 역사적시기를 포괄하고 있지만 그 안의 결질된 57년간의 등록을

2 리조시기의 등록들 가운데는 관청일지가 아니라 일종의 규례집도 있었다. 실례로 동래부나 의주부에 있던 등록은 관청일지가 아니라 왜인이나 청나라사람들과의 교역이나 접촉에서 준수하여야 할 전례들과 각종 규정을 수록한 규례집이였다.

3 《비변사의 상설년대에 대하여》 (《역사과학》1996년 2호)

제외하면 실지로는 219년간의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비변사등록》은 일지편찬의 고유한 방식대로 년, 월, 일의 차례로 정리되었다. 《비변사등록》의 정리는 매일매일 룬번체로 당직을 서던 비변사의 당직랑청들이 담당하였는데 그들은 매달 초하루마다 자기의 관직체계에 망라된 관리전원의 명단을 주고 간지년대와 달, 날로 된 항목을 준 다음 날자별로 해당한 내용들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비변사등록》은 후날의 참고만을 위하여 정리된 관청일지인것으로 하여 일관한 편집요강이 없이 정리되었다. 이런데로부터 매달 초하루에 있어야 할 관리명단이 12개월분이나 한곳에 수록된 곳도(《비변사등록》인조 24년) 있으며 간지년대가 없이 달과 날자만으로 항목을 설정한 곳도(《비변사등록》인조 22년) 있다. 뿐만아니라 작은 글자로 써야 할것이 큰 글자로 써여 졌거나(《비변사등록》영조 10년 10월 22일) 제목화 된 절목안의 세칙이 전혀 별행없이 써여 진 곳도(《비변사등록》숙종 9년 1월 22일, 23일) 있는 등 항목설정이나 서술방식이 매 등록마다 일치하지 않다. 이것은 《비변사등록》이 일관한 편집요강이 없이 단지 관례적인 일지편찬방식에만 의거하여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년, 월, 일의 차례로 기록되는 《비변사등록》은 원칙상 1해분의 등록으로 1책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지만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상, 하 2책으로 나누던가 혹은 상, 중, 하 3책으로 나누고 《XX 등록 상》, 《XX 등록 하》 등으로 책명을 달았다. 현존 《비변사등록》은 이러한 등록 27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이렇듯 《비변사등록》은 219년간의 273책의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관한 편집요강이 없이 일지편찬방식대로 정리된 그의 관청일지이다.

2) 《비변사등록》의 내용수록원칙

《비변사등록》에는 219년간 비변사에서 토의처결한 정무처리내용들이 일일이 꼽을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야와 부문에 걸쳐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비변사에서는 비변사에서 토의하고 취급한 일체의 내용을 깡그리 등록에 수록한것이 아니라 일련의 내용수록원칙에 따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비변사등록》정리에서 적용된 내용수록원칙은 첫째로, 비변사관리들과 국왕사이에 진행된 정사토의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하는 원칙을 적용한것이다.

비변사가 봉건국가의 최고중앙관청으로 운영된데로부터 비변사에서는 정치, 경제,

4 비변사는 1865년에 해체되었지만 그의 관계와 운영방식은 의정부를 통해 그대로 유지되고 실현되었다. 그런데로부터 1865년이후 《비변사등록》은 《정부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의연 편찬되었고 그것도 《비변사등록》안에 포함되었다.

5 원래 《비변사등록》은 출판을 목적으로 편찬된 책이 아닌 것으로 하여 그것에는 전체적인 책명이 없었다. 《비변사등록》이라는 책명은 후세에 붙인것이며 원래는 간지년대에 《등록》이라는 글자만을 붙여 《갑자등록》, 《병신등록》등으로만 책의 표지를 달았다.

군사, 외교 등 중요제반문제들이 광범하게 토의되었다. 비변사에서는 비변사관리들끼리 토의한 문제인 경우에는 토의과정을 등록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지만 국왕과 진행한 정사토의인 경우에는 그의 전과정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비변사관리들이 국왕과 정사를 토의하는 기본 공간은 빈좌(賓坐)였다.⁶ 빈좌는 초기에 매달 3일, 13일, 23일, 3차례 진행되였지만 1706년부터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29일) 6차례 진행되었다.

빈좌이외에도 비변사관들중에 경연이나 내의원의 관직을 겸한 관리들이 있은데로부터 경연의 강론석상이나 내의원의 치료좌석에서도 비변사관리들과 국왕사이에 정사문제가 토의되거나 하였다. 뿐만아니라 상소처결을 위한 접견, 부름접견, 요청접견, 각종 행차때의 접견 등 비변사관리들과 국왕사이에 정사를 토의하는 공간은 매우 많았다.

비변사에서는 시간과 장소에는 관계없이 비변사관리들과 국왕사이에 진행된 정사토의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것이든 보지 못한것이든 관계없이 토의전과정을 등록에 기록하였다.

둘째로, 비변사에서 작성한 문건들 가운데서 국왕의 비준을 받은 성문화된 문건만을 추려서 수록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비변사에서는 매일과 같이 회의를 가지고(비변사에서 진행되는 비변사회의는 주좌(籌坐)라고 한다.) 제기되는 정사문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국왕에게 올리거나 하급관청들에 발송하는 문건들을 작성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이런 각종 문건들 가운데서 오직 국왕에게 올라 가 비준을 받은 문건만을 등록에 수록하였다.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비변사의 문건들은 그 작성된 형식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ㄱ. 회답제의서와 회답보고서

《6조직계제도》가 실시되던 시기 국가의 모든 정사처리는 국왕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국왕들은 자기에게 집중된 각 관청의 제의나 개인들의 상소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비변사에 내려 보내여 가부를 둔던가 대책을 세워 제의하도록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지는 비변사회의에서 그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국왕에게 회답하였다. 《비변사등록》에는 이러한 성문화된 회답보고서나 회답제의서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ㄴ. 각종 제의서와 보고서

비변사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들에서 비변사에 보낸 공문이나 개인(집단)들의 청원서 등에 대해 자체로 토의하고 그에 대한 대책적의견을 국왕에게 문건으

6 빈좌는 일명 빈대(賓對), 차대(次對), 일차(日次)라고도 하였다.

로 올리곤 하였다. 또한 비변사에서는 비변사회의를 조직하고 자기 관직체계에 망라된 관리들을 선발임명하며 자기 관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문제 등 관청내부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국왕에게 문건을 올리였다.

『비변사등록』에는 비변사에서 자체로 토의하고 국왕의 비준을 받은 이러한 각종 제의서와 보고서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셋째로, 일부 다른 관청의 문건들도 수록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다른 관청의 문건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ㄱ. 비변사를 경유하여 국왕에게 올라 간 다른 관청의 문건

최고중앙관청 비변사에는 중앙의 군소관청들이 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배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 관청들에서는 자기 관청에서 직접 국왕에게 올려 보낼 형편이 못되는 경우 비변사를 통하여 자기 관청의 보고서나 제의서들을 올려 보내고 하였다. 비변사에서 다른 관청의 문건을 국왕에게 대신 올려 보낼 때에는 그에 대한 비변사의 의견은 전혀 첨부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성문화한 문건을 그대로 올렸다.⁷ 결국 이러한 문건들은 비변사의 정무처리내용과는 아무리한 관계도 없는 것이였으나 비변사를 경유하여 국왕에게 보고된 문건인것으로 하여 비변사에서는 그것들도 자기의 등록에 수록하였다.

ㄴ. 비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관청들에서 국왕에게 올렸된 문건

각 관청들에서는 비변사에서 맡아 보고 또 포치하였던 사업내용들에 대한 자기 관청의 의견이나 집행정형 등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승정원을 통하여 국왕에게 보고된 이러한 문건들은 국왕의 비준을 받으면 다시 승정원을 거쳐 해당 관청들에 내려 가게 되여 있었다. 그러나 일부 문건들인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그의 부분을 비변사에 내려 보냈다. 비변사에서는 승정원에서 내려 보낸 국왕의 비준을 받은 다른 관청의 문건들도 모두 자기의 등록에 수록하였다. 이런데로부터 『비변사등록』에는 승정원, 병조, 훈련도감, 금위영 등⁸ 각 관청의 문건들도 적지 않게 수록되었다.

넷째로, 비변사에서 진행한 관리추천에 대해서는 각 관리들의 관리추천정형을 상세히 수록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원래 비변사에서는 국왕에게 올려 보낸 성문화된 문건만을 등록에 기록하였지만 관리추천인 경우에는 국왕에게 보고하지 않은 추천정형까지도 등록에 수록하였다. 최고중앙관청 비변사에는 일부 관리들에 대한 추천이 그의 직능으로 규제되어 있었다. 비변사에서는 평안감사와 함경감사, 개성, 강화, 수원, 광주부의 류수, 의주부윤과 동래부사, 제주목사 등 지방관리들과 병사, 수사, 통제사, 통어사 등 무관들, 순무사, 순찰사, 암행어사 등 림시로 파견되는 관리들에 대한 추천을 담당하였다. 비

7 『비변사등록』숙종 37년 12월 30일

8 『비변사등록』인조 23년 2월 28일

변사에서의 관리추천에는 도제주를 제외한 비변사 당상관 전원이 참가하였는데 비변사에서는 국왕에게 보고한 비망(備望)의 추천자명단(望單)만이 아니라 매 관리들의 추천정형까지 등록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다섯째로, 비변사에 내려 보낸 국왕의 지시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최고중앙관청 비변사에는 국왕의 지시들이 자주 내려 오군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이러한 국왕의 지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자기의 등록에 수록하였다. 따라서 《비변사등록》에는 국왕이 내려 보낸 비망기(備忘記), 년초의 의례적인 권농문(勸農文), 재해나 흉작때의 선유문(宣諭文), 류음(綸音), 교지문(教旨文) 등의 각종 지시문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변사등록》은 일련의 내용수록원칙에 따라 정리되었다.

3) 《비변사등록》의 사료적가치

《비변사등록》은 리조중후반기 역사연구에서 매우 큰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민족고전중의 하나이다.

《비변사등록》에는 최고중앙관청 비변사에서 200여년간 진행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제반 중요정책작성과 그 집행정형을 보여 주는 각종 토의내용과 문건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변사등록》은 리조시기의 제도사연구와 부문사연구에서 《리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맞먹는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비변사등록》의 사료적가치는 첫째로, 봉건정부에서 토의처결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에 관한 사료들이 집약적으로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있다.

리조중후반기 비변사는 의정부를 뒤전에 밀어 내고 봉건국가의 최고의정기관, 최고행정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국가정권운영에서 제기되는 주요정사문제들은 거의나 비변사에서 토의되고 대책이 세워 졌으며 그 집행결과까지도 비변사에 보고되었다.

《비변사등록》에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부문의 사료들이 집약적으로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널리 알려 진 《리조실록》과 간단히 대비해 보려고 한다.

《비변사등록》의 총분량은 《리조실록》에 비해 절반이 채 못되지만 실자의 포괄년대가 219년이고 보면 두책의 분량은 거의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사료의 취급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는 《리조실록》이 등록에 비하여 비활바없이 넓고 방대하다. 상술한바와 같이 등록에는 국왕과 비변사관리들사이에 진행된 주요정사토의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적의견이 담긴 문건들이 위주로 수록된것으로 하여 그의 사료취급범위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부문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실록은 봉건국가의 정부일지로서 주요정사관련기사만이 아니라 자연현상, 생물현상 등 각종 부문의 기사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결국 등록과 실록의 시기별 분량이 비슷한 조건에서 사료취급범위가 협소한 등록에는 그의 주요취급대상인 정치, 경제, 군사, 외교부문에 관한 사료들이 실록에 비해 더 집약적으로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직관적인 표상을 주기 위하여 『비변사등록』 효종 4년 3월과 8월분의 기사들 가운데서 『리조실록』에 실려 있지 않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관계사료들을 뽑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날자	사료의 내용
3월 1일	변경백성을 찾아 돌려 보내지 못한 고을원인 경우 1명이면 록봉 1기, 2명이면 록봉 2기를 전녀 땐다는데 관한 사료
3월 3일	초지만호를 옮겨 설치하자는에 관한 사료
3월 7일	경기에서 거둔 수미(収米)의 총량 1,153섬 가운데서 1000섬을 강화에 옮겨 보낼데 관한 사료
3월 12일	금군에게 비변사에서 저축한 화살대 10만개 가운데서 3만개를 병조에서 나누어 주게 할데 관한 사료
3월 13일	광주(廣州)의 새로 군역을 지게 된 유생들을 본 광주의 군사로 소속시킬데 관한 사료
3월 19일	△ 칙사비용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의 각 참(站)에 관향미(管餉米) 500섬씩 떼줄데 관한 사료 △ 청나라의 차인(差人)들이 회령에 머무르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각 역로에 파발을 2명씩 더 들여 세울데 관한 사료
8월 8일	해미에 병영과 주진의 군사들의 일부를 떼내여 소속시키자고 론의한데 관한 사료
8월 9일	궁가와 각 아문소속 배들에 대해 파시평에서 물고기로 배세를 거둘데 관한 사료
8월 19일	여정(餘丁)이 한집에서 3~4명씩 군역을 지고 있는 부류에 대해 1명씩 뽑아내여 군역을 지우지 않고 베 1필씩 거두는 자들이라는에 관한 사료
8월 23일	△ 군기시에 무기제조용으로 여정포(餘丁布) 22동 30필을 떼줄데 관한 사료 △ 지방고을권들이 말미를 받거나 공무로 수도에 올라 올 때 병부(兵符)를 병영에 보내지 말고 겸임고을원(兼官)에게 맡길데 관한 사료
8월 27일	△ 수어청의 한량군관들을 본읍한량군관(本邑閑良軍官)으로 명칭을 만들고 따로 대장을 작성할데 관한 사료 △ 중국에 보내는 제물(祭物)을 의주의 변방장수가 맡아 가지고 넘겨 보낼데 관한 사료

표를 통하여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이 2달분의 『비변사등록』에만도 『리조실록』에 실려 있지 않는 사료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효종 4년 『비변사등록』의 분량이 『리조실록』의 해당 시기 분량에 비해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건에서 분량이 비슷한 『비변사등록』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주요정사부문의 사료들이 수록되어 있다.⁹

9 『비변사등록』에 『리조실록』에 없는 사료들이 많다고 하여 그것이 실록에 비해 총체적인 사료량이 더 방대하다거나 그의 사료적가치가 실록에 비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주요정사부문의 사료들이 집약적으로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은 《비변사등록》이 가지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의 하나이다.

둘째로, 《비변사등록》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비변사등록》에는 실록에 없는 사료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6조직계제도》의 실시로 각 관청의 보고가 승정원을 거쳐 국왕에게 올라 가고 국왕의 지시도 모두 승정원을 통하여 해당 관청들에 전달된 것으로 하여 《승정원일기》에는 등록의 내용들이 거의 다 실려 있다. 하지만 《비변사등록》에는 일체의 문서가 집대성되어 있는 《승정원일기》에도 올라 있지 않는 각종 절목(節目), 사목(事目), 별단(別單)등이 수많이 수록되어 있다.¹⁰

절목과 사목은 봉건정부에서 토의하고 실시하는 여러 가지 시책 등을 집행하는데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규정을 적은 세칙을 말하며 별단은 집행정형이나 실태를 보여 주기 위해 작성한 별지문건이나 별지명단을 말한다. 비변사에서 작성공포한 절목과 사목은 곧 그대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나 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비변사의 절목, 사목, 별단 등은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고 사회상을 파악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 된다.

절목, 사목, 별단 등도 그에 대한 비변사의 제의와 함께 승정원을 거쳐 국왕에게 보고되고 그의 결재를 받은것들이지만 승정원에서는 비변사의 기본제의만을 자기의 일기에 수록하였을뿐 별지의 절목, 사목, 별단 등은 전혀 실지 않았다.

《비변사등록》에 실려 있는 절목, 사목, 별단 등을 왕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왕 대 별	류 형	개 수
광해군	절목(사목)	0
	별 단	1
	기 타	0
인 조	절목(사목)	10
	별 단	11
	기 타	3

은 결코 아니다. 실록에는 등록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사료들이 수많이 실려 있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주요정사관련사료에 있어서도 오히려 등록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것도 많다.

요컨대 이러한 대비고찰은 《비변사등록》에 상기한 자료들이 집약적으로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등록과 실록이 리조사연구에서 호상 사료를 보충해 주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에 있을 따름이다.

10 비변사에서 작성한 절목, 사목, 별단 등은 《승정원일기》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그중 일부는 실록에 실려 있다. 그러나 실록에도 그의 대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절목, 사목, 별단 등은 오직 《비변사등록》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왕 대 별	류 형	개 수
효 종	절목(사목)	9
	별 단	9
	기 타	1
현 종	절목(사목)	13
	별 단	5
	기 타	1
숙 종	절목(사목)	47
	별 단	35
	기 타	6
경 종	절목(사목)	2
	별 단	2
	기 타	0
영 조	절목(사목)	91
	별 단	32
	기 타	4
정 조	절목(사목)	15
	별 단	8
	기 타	4
순 조	절목(사목)	3
	별 단	14
	기 타	0
현 종	절목(사목)	5
	별 단	6
	기 타	0
철 종	절목(사목)	3
	별 단	5
	기 타	1
고 종	절목(사목)	6
	별 단	13
	기 타	1
총 계		366

표안의 『기타』 항목은 제목도 명확치 않고 또 사목인지 별단인지 가르기 어려운 것들이다. 절목과 사목은 명목은 다르지만 본질상으로는 아무리 한 구별도 없다. 그러므로 표에서는 절목과 사목을 같은 류형으로 설정하였다.

표를 통하여 알수 있는 것처럼 『비변사동록』에는 무려 300여 개에 달하는 절목, 사목, 별단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리조중후반기의 각 제도사와 부문사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지만 필자의 안목으로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본다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날자	절목, 사목, 별단의 제목
인조 24. 4. 1	경상도 방어사사목
인조 24. 4. 2	공청도 조방장사목
인조 26. 6. 13	상평청사목
효종 5. 2. 2	함경북도 포수 넝고탑입송시절목
효종 5. 3. 16	영장사목
현종 원년. 12. 4	모곡(募穀)사목
현종 3. 1. 24	진휼청제언(堤堰)사목
현종 6. 10. 30	강화도사목
현종 10. 2. 10	안민창(安民倉)사목
숙종 원년. 9. 26	5가통사목
숙종 3. 1. 8	호폐사목
숙종 4. 4. 15	호폐사목(보총한것)
숙종 4. 윤3. 24	화폐류통절목
숙종 10. 2. 30	송금(松禁)사목
숙종 10. 11. 26	송금사목
숙종 14. 4. 4	삼사금란(三司禁亂)절목
숙종 17. 7. 16	동래상고정액(東萊商賈定額)절목
숙종 20. 8. 19	경외면신(京外免新)금단사목
숙종 21. 6. 23	문수산성절목
숙종 28. 9. 17	해유규식증순(解由規式增損)별단
숙종 37. 3. 6	개성부 관리사절목
숙종 37. 10. 18	북한산성별단
숙종 38. 3. 5	차관(差官)집대시별단
숙종 42. 10. 24	각군선제(船制)정액수
숙종 43. 1. 28	제도어염(魚鹽)수세징수절목
숙종 43. 7. 29	왕세자청정(聽政)절목
영조 4. 3. 19	남한시사(南漢視事)절목
영조 6. 9. 25	속오(束伍)절목
영조 7. 10. 4	진휼청 주전절목
영조 12. 4. 23	제도각읍저곡(諸道各邑儲穀)절목
영조 13. 4. 16	해유신정식(解由新定式)
영조 14. 7. 12	금삼(禁參)절목
영조 21. 11. 4	산산창(蒜山倉)절목
영조 25. 2. 2	왕세자청정절목
영조 28. 8. 29	옹판개분정(應辦改分定)절목
영조 29. 2. 4	옹판개분정절목
영조 34. 10. 11	영종독진(獨鎭)절목
영조 35. 11. 14	수어청변통절목

날자	절목, 사목, 별단의 제목
영조 36. 5. 16	준천사절목
영조 38. 7. 4	옹판개절목
영조 38. 10. 27	금군(禁軍)절목
영조 39. 2. 4	로문(路文)별단
영조 40. 11. 27	보민사(保民司)절목
정조 2. 1. 13	제언절목
정조 11. 10. 5	금교(禁絞)사목
정조 21. 6. 24	삼포(參包)절목
순조 23. 11. 12	서얼소통절목
현종 10. 6. 28	보미(保米)변통절목
현종 12. 8. 12	총위영절목
철종 5. 8. 14	만부관세청(灣府關稅廳)구폐절목
고종 3. 11. 16	진무영별단
고종 13. 6. 3	일본리사관집용절목
고종 17. 12. 20	신설아문절목

이렇듯 오직 『비변사등록』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리조사연구에서 『비변사등록』이 가지는 중요한 사료적가치의 하나이다.

셋째로,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사료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비변사등록』은 국왕과 비변사관리들사이에 진행된 정사토의 내용과 비변사와 기타 관청들에서 작성한 문건들로 자기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사토의 내용과 각종 문건들은 정리이전에 벌써 성문화된 것들이 였다. 비변사와 기타 관청들에서 작성한 문건들인 경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국왕과 비변사관리들사이에 진행된 정사토의 내용도 승정원의 사관들이 성문화하여 비변사에 내려 보낸것들이였다.¹¹

『비변사등록』의 정리를 담당한 비변사의 랑첨들은 바로 이런 성문화된 문건들만 등록에 수록하였을뿐이며 따라서 『비변사등록』의 내용들에는 정리자의 주관적의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비변사등록』에는 일부 정리자가 주석을 가한 곳들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기본내용과는 련관이 없는 보고문의 회답정형, 국왕의 지시가 내려 오고 제의를 올린 날자, 추천에서의 비변사관리들의 태도, 좌목(座目)에서의 관리들의 사고정형과 맡은 직무, 관리해임 및 추천에서의 이유 등 국히 제한된 개소에 불과하였다.

결국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사료들은 아무리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은 수백년

11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정사토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승정원에서 성문화하여 비변사에 내려보내 준것인데로부터 그러한 기사는 해당 날자보다 늦게 등록에 수록되는것이 보통이였다.

전의 원사료 그대로로서 그의 신빙성은 다른 서적들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비변사등록》이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사료적가치가 있는 것이다.

2. 《비변사등록》번역에서 견지한 몇가지 원칙

우리 당에서는 일찌기 민족고전번역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들을 명철하게 밝혀 주었다. 우리 당이 밝혀 준 민족고전번역의 기본원칙은 원전의 내용을 덜지도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번역하는것이며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학자집단은 우리 민족이 남긴 귀중한 민족고전인 《비변사등록》을 번역하면서 민족고전번역의 기본원칙의 요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변사등록》의 원문상태와 《리조실록》번역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원문을 철저히 교감하여 그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원칙과 통속적으로 번역하면서도 역사물의 성격에 맞게 일부 용어들에 한자를 넣어 주는 원칙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아 번역하는 조건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1) 원문을 철저히 교감하는 원칙

원래 민족고전번역에서는 원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존 《비변사등록》류통본의 원문상에는 초서로 되여 있는 원문을 해서로 바꾸어 놓는 과정에 역서자의 부주의나 혹은 기타 리유로 하여 생긴 오자, 탈자, 겹자, 루락 등의 많은 오유들이 있다. 그러므로 원전의 내용을 역사적사실 그대로 번역하기 위하여서는 원문상의 이러한 오유들을 철저히 바로 잡은 기초우에서 번역하여야 한다.

《비변사등록》번역에서는 현존 류통본의 원문상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다른 역사서적 특히 《승정원일기》의 원문과 철저히 교감하면서 번역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상술한바와 같이 등록의 대부분의 사료들은 일기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록의 원문상에 있는 오자, 탈자, 겹자, 루락 등의 오유들은 일기의 원문과 서로 대조하여 보면 어느 정도 바로 잡을수 있다. 그러나 일기의 원문과 교감한다고 하여 무턱대고 일기의 원문이 정확하다고 보거나 또 일기와 등록의 원문이 같다고 하여 그 원문에 아무런 오유도 없다고 보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의 류통본도 초서로 된 원본을 후세에 해서로 바꾸어 놓은것이다. 그런 것으로 하여 일기의 원문상에도 적지 않은 오유들이 있다.¹²

12 일기와 등록의 역서자들이 호상 두책의 원문을 참고한데로부터 일기와 등록의 원문상에 같은 오유가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비변사등록》효종 3년 11월 25일에 수록 되여 있는 《啓曰遠接使及都監官官即為差出事早朝既已啓下》라는 원문의 두번째 관(官)자는 틀림없이 원(員)자로 되여야 할것이지만 일기의 원문에도 관자로 되여 있다.

따라서 『비변사등록』번역에서는 등록의 원문을 일기의 원문과 철저히 대조하면서도 원문의 문맥과 문장짜임새, 한문의 문법 등을 따져 가며 원문상의 오유를 바로 잡았다. 뿐만아니라 역자의 교감내용을 집체적인 토의속에서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확정함으로써 원문의 교감이 철저히 원전의 복원으로 되도록 하였다.

『비변사등록』원문교감정형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인조 16년분의 『비변사등록』원문에 대한 교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책	페 지	줄, 글자	틀린 류형	교감내용
1	309 우 뒤	2, 4	틀림	列은 别
〃	315 아래 앞	8, 17	〃	破은 波
〃	315 아래 앞	10, 15	〃	城은 成
〃	317 아래 뒤	1, 16	〃	驛은 譚
〃	319 아래 앞	3~9	뒤바뀜	318페이지 아래 앞 12를 뒤에 가져감
〃	322 우 앞	8, 14	틀림	特은 持
〃	326 우 앞	6, 6	더 들어 감	百
〃	327 우 앞	7, 18	틀림	亦은 廿
〃	327 아래 앞	9, 7	〃	白은 曰
〃	328 우 뒤	9, 13	〃	年은 承
〃	329 아래 앞	8, 7	〃	之는 親
〃	341 우 뒤	2, 7	빠짐	道
〃	346 우 뒤	1, 8	틀림	喜는 眞
〃	346 우 뒤	9, 13	〃	是는 示
〃	351 아래 앞	1, 3	더 들어 감	朔
〃	354 우 앞	12, 8	틀림	仕는 佐
〃	355 우 뒤	9, 12~13	〃	欲有는 有欲
〃	355 아래 앞	7, 6	〃	茲는 急
〃	355 아래 뒤	11, 12	〃	宥는 有
〃	356 아래 앞	4, 16	〃	適은 遷
〃	358 아래 뒤	4, 2	〃	問은 曰
〃	361 아래 뒤	4, 13	〃	黨은 黨
〃	361 아래 뒤	4, 19	빠짐	也
〃	362 우 앞	6, 14~15	〃	保合
〃	362 우 앞	8, 1	틀림	黨은 黨論
〃	364 우 뒤	7, 17	빠짐	言
〃	364 아래 뒤	1, 9	틀림	故는 時
〃	367 아래 앞	6, 10	〃	渠는 準
〃	369 우 앞	8, 9	빠짐	不
〃	371 우 뒤	1, 12	틀림	已는 以
〃	374 아래 앞	1, 3~4	〃	浣志는 沈之

책	페이지	줄, 글자	틀린 류형	교감내용
"	374 아래 뒤	1, 5	"	方은 姉
"	374 아래 앞	7, 10	"	速은 送
"	374 아래 앞	9, 15~16	빠짐	知道
"	377 우 앞	5, 4	틀림	年은 前
"	378 아래 뒤	9, 3	더 들어 감	洪
"	379 아래 앞	4, 16	틀림	牢는 牽
"	379 아래 앞	6, 8	"	守는 寺
"	379 아래 뒤	8, 3	"	啓는 達
"	380 우 앞	7, 2	빠짐	使
"	381 아래 앞	12, 6	틀림	匹은 兩
"	381 아래 뒤	4, 1	"	下는 一ト
"	382 아래 앞	2	더 들어 감	徒二年
"	382 아래 뒤	10, 1	틀림	心은 以
"	383 우 앞	9, 13	"	收는 復
"	383 우 앞	11, 14	아래로 빠짐	一結三十負黃海道則
"	384 우 앞	11, 17	틀림	收는 復
"	384 아래 앞	9, 9	"	施는 旋
"	384 아래 뒤	6, 4	"	司는 月
"	385 아래 앞	9, 7	"	已는 以
"	385 아래 뒤	1, 18	빠짐	物
"	385 아래 뒤	1, 20	틀림	發은 散
"	385 아래 뒤	2, 1	"	聞은 周
"	386 아래 뒤	10, 5	"	然은 惇
"	390 아래 앞	4, 18	"	牢는 牵
"	392 우 앞	8, 6	"	命은 令
"	392 우 뒤	12, 3	"	夜는 招
"	393 우 뒤	2, 1~2	더 들어 감	其中
"	394 우 뒤	3, 4	틀림	供은 共
"	396 우 앞	11, 18	"	難은 雖
"	397 아래 앞	1, 7~8	"	祗梧는 稽慢
"	401 우 앞	4, 3	"	日은 自
"	401 아래 앞	11, 12	"	都는 部
"	405 아래 뒤	12, 5	"	右는 左
"	405 아래 뒤	12, 9~10	"	口選은 眞禎
"	407 우 앞	5, 3	"	補는 輔
"	407 우 뒤	6, 1	"	甲은 戊
"	407 아래 뒤	1, 2	"	別은 列
"	409 우 앞	6, 10	"	去는 等
"	410 아래 앞	11, 7	"	有는 間
"	411 아래 뒤	10, 10	"	年은 斗

책	폐지	줄, 글자	틀린 류형	교감내용
〃	412 아래 뒤	3, 18	〃	易은 兩
〃	413 아래 앞	7, 14	〃	立은 意
〃	416 우 앞	12, 5	〃	事는 似
〃	416 우 뒤	1, 8	〃	采는 半
〃	416 아래 앞	10, 2	〃	取는 所
〃	416 아래 앞	11, 10	〃	除는 餘
〃	417 우 앞	6, 4	〃	米는 半
〃	417 아래 뒤	9, 9	더 들어 갑	受
〃	418 우 앞	2, 13	틀림	寥는 知
〃	419 우 앞	5, 14	〃	割은 害
〃	419 아래 앞	3, 3	〃	先은 重
〃	423 우 뒤	3, 1~4	〃	禮曹判書는 吏曹參判
〃	424 우 뒤	6, 18	〃	切은 竊
〃	424 아래 뒤	6, 4~5	루락	司官
〃	424 아래 뒤	9, 19	틀림	祇는 稽

※ 표는 《비변사동록》류통본 1책에 기준하여 작성하였음. 표의 양식과 항목은 우리 학계가 통일한것임.

표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비변사동록》번역에서는 원문상의 오자, 탈자, 겹자, 루락 등의 착오개소들을 과학적으로 교감하고 그에 기초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학자 집단은 《비변사동록》을 원사료 그대로 번역하기 위해 원문을 철저히 교감하여 원문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2) 한자를 넣어 주는 원칙

사료로 리용되는 민족고전에 대한 번역은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과는 달리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번역하면서도 역사물의 성격에 맞게 학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일부 용어들에 한자를 넣어 줄 것을 요구한다.

《비변사동록》번역에서는 지난 시기 《리조실록》을 번역하면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문장전체를 우리 말의 언어발전방향에 맞게 그리고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번역하면서도 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역사용어들과 일부 고유명사들은 풀지 않고 원음대로 표기한 다음 한자를 넣어 주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우선 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역사용어들에 한자를 넣어 주었다. 학계에서 쓰이는 역사용어 다시말하여 학술용어들은 매 시기마다 그 내용이 다르며 따라서 그에 꼭 부합되는 뜻을 찾아 번역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심화되는 조건에서 학술용어들에 대한 해석은 가변적이다. 따라서 《비변사동

록》번역에서는 학술용어들에 대해 때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후날 등록에 대한 색인까지 예견하여 지난 시기 번역해 놓았던 것들까지 모두 원음대로 표기하고 한자를 넣어 주었다.¹³

실례: 가포(價布)	가미(價米)
대동목(大同木)	대동미(大同米)
모미(耗米)	번미(番米)
복호(復戶)	속전(續田)
수미(収米)	수미(需米)
전선(戰船)	제방미(除防米)
차인(差人)	차왜(差僕)
품관(品官)	아병(牙兵)
역녀(驛女)	원전(元田)

둘째로, 일부 관직명이다.

지난 시기 《리조실록》번역에서는 《경국대전》에 올라 있는 정식관직이 아닌 럼시관직인 경우에는 그것을 풀어 놓았다. 혜건대 원접사(遼接使)에 대해서는 《멀리로 나가서 접대하는 관리》, 관반사(館伴使)는 《접대하는 관리》등으로 풀어 놓았다. 그러나 이번 등록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일체의 럼시관직에 대해 원음대로 표기하고 한자를 넣어 주었다.

실례: 주청사(奏請使)	변무사(辨誣使)
동지사(冬至使)	진하사(進賀使)
선유어사(宣諭御史)	시재어사(試才御史)
접위관(接慰官)	반송사(伴送使)

이밖에 《비변사등록》번역에서는 일부 단위사들과 고유명사들에 대해서도 한자를 넣어 준 곳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한자를 넣어 주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여 아무런 의의도 없는 일반 단어들에까지 원음을 주고 한자를 넣어 주지는 않았다. 실례로 품달(稟達), 하교(下教), 계품(啓稟), 하명(下命), 계사(啓辭), 성려(聖慮), 전교(傳教), 명하(命下), 정사(呈辭), 치계(馳啓) 등과 같은 단어들은 오래전에 사멸하여 자취를 감춘 낡은 한자말일뿐 아니라 한자를 넣어 준다고 하여도 하등은 학술적 가치나 의의가 없는 것들이다.

《비변사등록》번역에서는 이러한 낡고 사멸하여 버린 한자말들은 그에 대응되는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음으로써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우리 학자집단은 《비변사등록》번역에서 우리말의 언어발전방향에 맞게

13 실례로 든것들은 지난 시기 《리조실록》 번역에서 풀어 놓았던 역사용어, 학술용어들의 극히 일부이다. 이밖에 등록번역에서는 많은 용어들에 한자를 넣어 주었다.

문장과 단어 전체를 통속적으로 번역하면서도 역사물의 성격에 부합되게 일부 학술 용어와 고유명사 등에 한자를 넣어 주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3) 일관성의 원칙

다른 민족고전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비변사등록』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집체적으로 번역하는 민족고전물에 있어서는 사건이나 사실, 문장과 단어 등 전반 내용의 번역처리에서 일관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비변사등록』번역에서는 등록의 번역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조건에서 전체 번역본의 문체처리와 용어처리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비변사등록』의 원문과 그에 수록된 내용들에 대한 면밀한 료해에 기초하여 자주 반복되는 문체들과 용어들에 대한 통일안을 작성하고 그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비변사등록』은 국왕과 비변사관리들의 접견내용과 각 관청의 제의서, 그리고 비변사관리들의 추천 등으로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나오는 문체들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이번 번역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문체들에 대해 통일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체의 류형	통일한 내용 및 실례
관리접견	<p>△빈정정기모임과 관련되는 문체 -今日賓廳日次而國忌相值頃稟 {오늘은 빈정정기모임날인데 나라제사날과 서로 겹친다는 사유를 보고하였다} -堂上位不齋頃稟 {당상관들이 더러 없다는 사유를 보고하였다.} -賓廳坐起頃稟 {빈정정기모임을 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보고하였다}</p>
관리접견	<p>△국왕의 관리접견방식과 관련되는 문체 -引見入侍時 {접견에 참가하였을 때} -請對入侍時 {요청접견에 참가하였을 때} -召對入侍時 {부름접견에 참가하였을 때} -藥房入診入侍時 {내의원에서 진찰하는데 참가하였을 때} -受針入侍時 {침을 맞는데 참가하였을 때} -留待引見入侍時 {머물러 대기하다가 접견에 참가하였을 때}</p>
각종제의	<p>△제의 서두 -司啓曰 {비변사에서 제의(보고)하였다.} -啓辭 {제의(보고)하였다.} -所啓 {제의(보고)하였다.} -陳達 {제의(보고)하였다.} -達曰 {세자에게 제의(보고)하였다.}</p>

문체의 류형	통일한 내용 및 실례
각종 제의	<p>△ 제의안의 국왕의 지시와 다른 관청의 제의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啓曰…言于備局事傳教矣{제의하였다} <〈비변사에 말할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啓曰云云事傳教矣{제의하였다} <이리이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啓曰以本司草記答曰…蒙宥不可矣事傳教矣{제의하였다} <본사의 초기와 관련하여 대답하기를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啓曰前因…狀啓…意入啓蒙允矣{제의하였다} <전에…의 장계와 관련하여…의 내용으로 제의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추천	<p>△ 다른 관청의 관리추천과 관련되는 문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水原府使議薦洪錫輔陞遷代戶曹判書權尹鳳朝洪啓迪金在魯 薦望 ○魚有龜 李萬稷 金鎮玉 {수원부사에 대한 토의추천(승급조동원 홍석보의 대신) 호조판서 권 [상유] - 윤봉조 홍계적 김재로 추천된 후보자: ○ 어유구 리만직 김진옥} <p>△비변사 광청추천과 관련되는 문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郎廳望趙彥臣改差代前掌令鄭東復 {문광청 후보자(교체된 조언신의 대신): 전 장령 정동복} - 郎廳望李禮男外任代宣傳官權信道二月四日啓下 (광청후보자(지방관리로 임명된 리례남의 대신): 선진관 권신도(2월 4일 비준됨)} - 武郎廳申謹汰去代前半官閔延啓下 (무광청 신근이 쫓겨 난 대신에 전 판관 민연을 비준하였다.)

표를 살례로 든 문체들은 통일한 문체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도 《비변사등록》번역에서는 용어통일안도 작성하였다. 《비변사등록》도 리조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책인데로부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실록에 나오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번역에서는 지난시기의 《〈리조실록〉번역용어통일안》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새로운 원칙에 따라 통일할 용어들로 《〈비변사등록〉번역용어통일안》을 만들고 번역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비변사등록》번역에서는 일관성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체와 용어 통일안을 작성하고 모든 번역자들이 철저히 준수하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번역, 교열, 최종교열, 편집 등의 공정을 설정하고 매 공정마다에서 제원칙의 요구가 일관하게 실현되도록 하였다.

우선 번역공정에서는 매 번역자들이 어디까지나 통일안의 요구대로 번역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번역과정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통일안의 내용을 계속 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교열공정에서는 1차적으로 통일안의 요구가 관철된 번역원고를 놓고 재번역하는 입장에서 원고의 질상태를 바로 잡는

추물축사)라고 하였다.

그는 더 명백하게 천이 목적의지를 가지고 만물을 주재한다는 주자성리학적 견해를 반대하여 《천은 뜻이 없이 만물을 낳는것이니 만물은 스스로 발생하는것이다.》(《기축체의》 추축록, 권2, 추기축리)라고 하였다.

최한기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는 철저히 물질적이며 세계만물의 차이는 기의 각이한 결합방식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그는 우주의 시초에는 다만 물질적인 기만 존재하였으나 점차 기에 의하여 질이 형성되고 그 형질의 차이에 의하여 무기물과 유기물, 그리고 만물의 차이가 생긴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기가 경고하게 영키여 질이 된다》(《기축체의》 추축록, 권2, 추기축리), 《우주의 다양한 사물이 존재하는것은 기와 질이 서로 결합되는데 있다.》(《기축체의》 신기통, 권1, 채통, 기질각의)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는 만물형성의 시원인 물질적인 기는 좀 더 구체적인 물체의 재료, 질을 형성하며 그 질의 차이에 의하여 만물의 차이가 이루어 진다고 인정하였다고 볼수 있다.

최한기는 기를 《천지의 기》와 《형체의 기》로 구분하여 《천지의 기》는 시원적인 기로서 무궁무진하며 불멸하나 《형체의 기》는 질과 결합하여 만물을 이루는 기이므로 만물의 생성소멸에 따라 생성소멸하며 소멸되면 《천지의 기》로 환원된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에는 시원적물질로서의 기는 영원하다고 인정하는 물질적인 기의 《불멸론》이 기초에 놓여 있다.

최한기는 물질적인 기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에 관한 리해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사회, 사유의 제반 현상들에 대한 관념론적리해를 반대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물질적인 기의 각이한 측면, 속성 또는 작용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기는 하나인데 그의 여러가지 측면을 가리켜 각이한 이름을 붙인다. 전일체로서의 기를 가리켜 천이라고 부르고 기가 주재하는 측면을 가리켜서 제라고 부르며 기의 운동을 가리켜서 도라고 부르며 기가 사람과 동물에게 본래부터 주어 진다는 측면을 가리켜 명이라고 부르며 기를 인간과 동물이 선천적으로 타고 난것을 성이라고 하며 몸의 주인으로서의 기를 심이라고 하며 또 기의 운동의 각이한 측면을 가리켜 각이하게 부른다》(《기축체의》 추축록, 권2, 추기축리)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한기는 일련의 철학적 범주와 개념들에 대한 주자성리학적 해석을 반대하고 그것을 물질적인 기로써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철학적 범주와 개념해석에서 목적의지적인 신비적 해석이 부정되고 그것이 전적으로 물질적인 기와 그의 운동으로 해석되었다.

최한기는 주자성리학자들이 절대적, 정신적, 실체로까지 내세운 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물질적인 기에 내재하고 있는 법칙(조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리를 기의 운동변화의 법칙으로 인정하면서 《기는 천지에 차 있어서 그 순환이 무궁하며 모였다 흩어 졌다 하는것이 때가 있으니 그의 법칙(조리)을 가리켜 리라고 한다》(《기축체의》 추축록, 권2, 추기축리)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리는 기의 조리이므로 기가 없으면 반드시 리가 있고 기가 있으면 반드시 리도 없다》(《기축체의》

추측록, 권2, 추기측리, 대상일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한기는 물질로부터 물질의 운동법칙을 분리할수 없듯이 물질적인 기로부터 그의 조리, 법칙으로서의 리를 분리시킬수 없다고 정당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무한한 우주자연은 물질적인 기의 산물이며 그것은 법칙에 따라 운동변화한다고 인정하였으며 그 물질적인 기의 운동변화의 법칙을 《《운화의 리》》(運化之理)라고 하였으며 그 객관적자연 법칙이 주관의식에 반영된 사유의 법칙을 《《추측의 리》》(推測之理)라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그는 법칙을 객관적자연법칙과 주관적사유법칙으로 갈라서 고찰하였다.

그는 객관적자연법칙은 물질적자연과 통일되어 있으며 주관적사유법칙은 사람의 능력과 경험, 견문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식대상과 분리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자연의 운동법칙은 기와 통일되어 있고 스스로 한계가 있어 사람의 힘으로 증감할수 없는것이다. 또한 더디고 빠른것도 사람의 힘으로 진퇴하는것이 아니다. 사유의 법칙은 기와의 관계에서 전후가 있으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진퇴가 있으니 기질의 제한을 받아 통하고 막하여 배운바에 습관되며 전문이 다른데 따라서 많이 어그러 지게 되는것이다. 사람들의 노력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자면 기에 의하여 리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준칙이 있으며 또한 기준이 있는것이다. 만약 기를 버리고 그 리를 알자고 한다면 허다한 견강부회와 무한한 황당한 설들이 모두 이로부터 나온다》》(《기측체의》 추측록, 권2, 추기측리)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사유법칙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기에 의하여 형성되고 자기 법칙에 따라 운동변화하는 객관적인 자연속에서 진행될 때에야만 옳게 파악될수 있으나 만약에 이를 위반한다면 법칙을 옳게 파악할수 없을뿐아니라 주관을 확장하여 황당한 설과 억지에 떨어 지고 만다는것이다.

최한기의 이러한 견해는 결국, 리가 기와 분리될수 없으며 분리시키는것은 주관이지 객관세계 그 자체에는 근거가 있을수 없다는 심오한 유물론적리해이다.

리와 기에 관한 명백한 리해를 가지고 있던 최한기는 《리재기중》(理在氣中)의 관점에서 《진실로 기에 밝다면 리는 스스로 그 안에 있다. 먼저 리를 구하려 한다면 기조차 알수 없게 되고 기준이 없이 되고 말것이다.》(《기측체의》추측록, 권2, 추기측리, 리재기중)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최한기는 동방철학에서 리와 기와의 관계로 표현된 철학의 기본문제에서 명백히 물질적인 기의 일차성을 주장하고 리를 기에 내재하는 법칙성으로 리해하는 유물론적립장에 섰다.

최한기는 유물론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리의 일차성을 주장하는 관념론자들을 반대하여 법칙으로서의 리를 기에 앞세우는것을 주관에 의한 객관세계에 대한 외곡이며 《만일 기를 버리고 도나 리를 규명한다면 이는 마치 형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구하는 것과 같다》(《인정》권10, 도리구어기)라고 정당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유물론과 관념론을 대치시키고 관념론의 허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히 비판하였다.

『초불가운데 물건을 밝게 비칠수 있는 리가 있기때문에 밝다는것은 리를 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불이 밝은것은 물건을 밝게 비칠수 있는 기가 있기때문이라는것은 기를 주되는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리를 주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헛된것을 추측하고 있는것이요, 기를 주되는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은 실지로 있는것을 추측하고 있는것이다.』(《기축체의》추측록, 권2, 초기축리, 주리주기)

리기문제해결에서 표현된 최한기의 유물론적자연관은 그 리론전개의 수미일관성에서나 론리의 심오성에 있어서 당시까지의 동방철학사상사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룬 사상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최한기의 유물론적자연관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인간의 인체는 한 개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계라고 인정한 《인간기계론》적견해이다.

그는 『사람의 형체는 바로 하나의 기계이다. 안에는 사유기관이 달려 있어 외부 세계의 온갖 작용에 접하고 있으며 이목구비, 수족, 머리, 몸뚱이도 또한 각각 접촉 작용을 하는 기물을 가지고 있다. 귀에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 있고 입은 수저로 음식을 먹으며 코는 냄새를 맡는 기물이고 손은 움켜 쥐는 기물이고 발에는 신이 있고 머리에는 쓰개가 있으며 몸에는 의복이 있다』(《기축체의》신기통, 권2, 목통, 궁격기용)고 하였다. 그는 또한 사람의 신체의 맥박수는 시계와 같이 규칙적이며 시계를 대신할수 있으며 신체는 일종의 랭열기와도 같다고 하면서 《사람의 한몸은 본래 기계이다》(《기축체의》추측록, 권6, 추물측사, 신위기본)라고 하였다.

그는 인간을 기계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을 갖추고 사물의 법칙, 리치를 통달하는 《사유하는 기계》로 보았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인간의 감각기관의 작용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한 《신기통》에서 《사람의 형체는 바로 온갖 쓸모가 갖추어 진 사유하는 기계이다.》(《기축체의》신기통, 서)라고 하였다.

그의 《인간기계론》적 견해는 자연에 관한 유물론적견해의 연장으로서 그의 유물론적견해의 전일성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인간에 관한 견해에서의 관념론적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최한기의 유물론적자연관은 그의 자연에 대한 지식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최한기는 만년에 쓴 저서 《신기천험》에서 《생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을 《양기, 담기, 습기, 탄기, 경기, 전기》(《신기천험》)로 분류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생기(공기)는 영원히 존재하는것으로 질적으로 같은것이며 다만 중량적으로만 서로 구별되어 양기, 경기, 담기, 탄기, 습기, 전기로 갈라 지며 세상만물은 이 원소들의 양적결합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것이다.

이리하여 최한기의 기일원론적유물론은 전통적인 기에 대한 개념에 근대자연과학적인 원소 개념을 도입하여 그의 유물론적성격과 과학적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최한기의 유물론은 우리나라 중세유물론의 최고봉에 올랐으며 중세유물론으로부터 근세유물론으로의 전환의 다리를 놓아 주었다.

2) 인식론

최한기는 인식론문제도 자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물론적으로 해결하였다.

그의 철학사상에서 인식론은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사상들로 빛나고 있다.

그는 인식론을 심리학에 대한 깊은 연구에 기초하여 론리학과 변증법과 밀접히 결부시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나라 인식론발전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겨 놓았다.

최한기는 우선 세계의 개인식성을 확신하였다.

그는 세계는 본질상 물질적인 기이며 그 물질적인 기는 자체의 운동, 변화, 발전의 법칙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매개의 사물도 자기의 법칙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사물의 법칙에 대한 인식은 외부세계의 물질적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리는 형태가 없으나 기는 흔적이 있다. 따라서 흔적을 따르면 리는 스스로 밝혀 지는것이니 찾는 실머리가 있게 되는것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2, 추기축리, 리재기증)라고 하였다.

그는 사람이 자기 몸에 감각기관과 사유능력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능히 모든 법칙을 인식할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기에 그는 «이 모든것(감각기관과 사유능력—주)이 한 몸에 있어 의식에 의하여 주재되여 모든 구멍과 촉각으로부터 여러가지 현상들을 거두어 들인다»(《기축체의》신기통, 서), «사람은 스스로 인식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판단하는것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2, 추기축리, 류행리추축리)라고 하였다.

최한기는 인간의 감성적인식과 론리적인식에 대한 심오한 파악에 기초하여 인간은 자로부터 미지애로 부단히 심화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인식 할수 있는 일들에 불과하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라고 확신하였다.

세계의 개인식성에 관한 최한기의 사상은 그의 저서 『추축록』 자체가 세계의 모든 사물의 법칙을 해명할수 있다는 확신에서 써여 졌다는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객관세계가 물질적인 기로 이루어 져 있으며 그 물질세계는 자체의 법칙에 의하여 운동, 변화하기때문에 인간의 사유가 객관적물질세계를 대상하여 사물의 법칙을 구명한다면 구명하지 못할 법칙이 존재할수 없다는것이 바로 최한기의 유물론적 세계개인식성사상이다.

최한기는 인식과정에 대해서도 심오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는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감각으로부터 시작, 표상, 추리, 판단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동시에 그는 이러한 인식과정은 인식의 심화, 풍부화를 의미하며 발전을 의미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경험이 인식의 전 과정의 기초로 된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인식발전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경험과 견문에 기초하여 점차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아이가 처음 태여 나서는 곁에 있는 사람이 기뻐서 웃으며 성나서 질책하는것을 똑똑히 모르는』 단계로부터 성장함에 따라 『보고 듣는것이 익숙해 지면서 사람들이 기뻐 하며 성내는것을 조금 깨닫게 되고 또 접촉하는 사물에 대하여 점차 좋고 나쁜것을 깨닫게 되며 또 편리하고 빠른것 오활하고 먼것, 성공과 실패, 수고롭고 안일한것에 대하여 점차 알게 되며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이르러 완전히 자기로 인식할수 있다』(『기축체의』신기통, 권1, 체통, 명생어신력생어기)고 하였다.

그는 인식이 감성적단계에서 리성적단계에로 심화된다는 사실을 자기의 저서 『신기통』서문에서부터 명백히 제기하고 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을 무시한다면 어디에 털끝만치라도 알아 낼수 있는 리치가 있으며 경험할만 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인식, 경험은 감각을 떠나서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감각주의자는 아니였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이 모든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 의식에 기억과 경험이 없다면 평생에 여러번 듣고 자주 본 사물이라도 그때마다 처음 보고 듣는것으로 될것이다』라고 하면서 리성적인식으로 심화될 때 진리인식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최한기는 인식과정을 자기 독자적체계에 근거하여 『들어 오는』단계, 『머물러 있는』단계, 『나가는』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는 『사람의 정과 사물의 리치는 감각기관을 따라 통하는데 그것을 밖에서 얻어 들이고 안에서 (의식속에서—주)습염시키며 그것을 발용하여 밖에서 시행하게 될 때에는 이와 같이 들어 오고 머물러 있고 나가는 단계의 자취가 뚜렷이 있게 된다』(『기축체의』신기통, 권1, 체통, 수입어외발용어외)라고 하였다.

최한기의 세 단계설에는 초보적으로나마 감각을 통한 감성적인식에서 리성적인식으로, 그것이 다시 실천으로 심화된다는 사상이 놓여 있다.

그는 감성적인식에서 윤리적, 리성적인식에로의 심화과정에 대하여 『심의 능력은 본것으로 미루어 아직 보지 못한것을 판단하고 들은것으로부터 미루어 아직 듣지 못한것을 판단하며 익힌것으로부터 미루어 아직 익히지 못한것을 판단하며 존재하는것으로부터 미루어 존재하지 않는것을 판단하는것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 추축즉시지)라고 하였다.

최한기는 인식론에서 중요한것은 감각기관과 의식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사물에 대한 인식의 법칙성을 해명하려고 한것이다.

그는 감각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 하면서 『만약 아전에 들은 일이 없고 본 일도

없다면 어떻게 때리지 않고 종시 소리가 있다는것을 알겠는가》(《인정》권11, 교인, 지각개자득)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감각기관은 외부세계의 사물과 현상을 거울과 같이 단순히 반영할뿐이며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은 의식의 도움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그러나 안으로 과거와 미래를 인식하고 이해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일신의 의식이 통하기때문이다》(《기축체의》신기통, 권2, 목통, 물색영모)라고 하였다.

그는 의식의 능동적작용에 대해서도 감각과 구별하였다. 그는 《의식에 물체의 형태가 들어 배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 지지 않고 눈동자에 비치는 물체의 형태가 알게 들여 봄에 스쳐 지나는 족족 잊어 버리며 아무리 자주 와서 비치는 물체의 형태라도 의식이 통함이 없으면 비치고 난 뒤에는 곧 잊어 버리는 것이다》(《기축체의》신기통, 권2, 목통, 물색영모)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눈이 능히 색을 알아 낼수 있으며 귀가 능히 음향을 들을수 있으나 그것을 분별하고 취사선택하는것은 의식이다》(《인정》권7, 통인, 감평)라고 하였다.

최한기는 이와 같이 감각을 외부세계의 단순한 반영에 불과하며 오직 의식의 능동적작용에 의해서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 지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를 인식하고 이해관계를 경험》하며 《분별하고 취사선택》한다고 인정하였다.

최한기는 리성적, 론리적 인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리성적인식만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 사물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으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특히 추리, 판단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추리를 옳게 하면 판단도 역시 바르게 되며 추리를 그릇되게 하면 판단도 그릇된다》고 하면서 《표준규칙을 지나치면 허황한것으로 되고 미급하면 비루하고 막히게 된다》(《기축체의》추축록, 서)라고 하였다.

최한기의 추리, 판단에 관한 사상은 인식론과 론리학의 통일로 이루어 졌다.

그는 《추리에는 반드시 무엇때문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하며 판단에는 반드시 무엇으로써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원인도 근거도 없는 추리와 판단은 허무한것으로 된다》(《기축체의》추축록, 권3, 추축제강, 사기불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은 추리, 판단의 도움으로 지로부터 미지의 영역으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간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눈으로 이미 본것으로부터 추리하여 아직 보지 못한것을 판단하고 이미 귀로 들은것으로부터 추리하여 아직 듣지 못한것을 판단한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 사기불가)라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물의 본질, 법칙을 파악할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사물의 법칙은 반드시 계단적으로 해명할수 있는것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 사리가심)

최한기는 사유법칙은 객관적자연의 법칙에 의거한다고 인정하면서 《배우기 전에는 다만 이 자연의 운동변화의 법칙이 있었다. 이미 배운 뒤에야 비로소 추리의 법

칙이 있는것이다. 추리의 법칙이 자기의 운동변화의 법칙에서 나왔다는것은 옳다. 만약 추리의 법칙이 곧 자연의 운동변화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기축체의》추축록, 권2, 추기축리, 천인유분)라고 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주관관념론자들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물의 법칙이 나의 마음에 구비되어 있어 사물의 법칙을 다만 나의 마음에서만 구별하고 사물에서 추리 할줄 모른다》(《기축체의》추축록, 권2, 추기축리, 천인유분)라고 하였다.

그는 추리와 견문, 경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당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견문, 경험은 추리의 기초로 되나 정확한 추리는 주로 견문과 경험의 질에 의존된다고 인정하면서 덮어 놓고 견문을 넓힌다고 정확한 추리가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인식론에서 인식의 형식으로서의 론리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전개하였다.

그는 추리형식으로서의 귀납법과 연역법을 다 같이 중시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추리를 통하여 심화되는바 추리에는 이미 알고 있는 개별적인것으로부터 일반적인것을 인식하는 귀납의 방법과 이미 알고 싶은 일반적인것으로부터 개별적인것을 인식하는 연역의 방법이 있다. 그는 이에 대하여 《하나를 추리하여 만가지를 아는것은 곧 근본을 추리하여 결말을 아는것이다. 만을 추리하여 하나를 아는것은 결말을 추리하여 근본을 아는것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 추축원위)라고 하였다.

그는 인식의 일반적과정을 귀납추리에 의거하여 자식을 얻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그가 감성적인식, 견문, 경험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이 인식의 원천이라고 인정한테로부터 흘러 나오는 당연한 론리적귀결이였다. 그는 글을 배우는 사람의 실례를 들면서 《글을 배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마땅히 글자를 알고 글자를 미루어 문구를 알며 문구를 미루어 문장의 본질을 알며 문장의 본질을 미루어 사물의 법칙을 안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 점차화행)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애기들이 처음에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나 성장함에 따라 견문에 의하여 점차 그것을 알게 되며 그로부터 추리하여 사랑과 감정도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한기는 추리에서의 귀납과 연역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론하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것은 귀납추리에 의거하며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연역추리가 주로 작용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귀납과 연역의 호상관계에서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경험론자들이 귀납추리를 절대화하고 합리론자들이 연역추리를 절대화한것처럼 그 어느것도 절대화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이 모두가 인식, 추리에서 필요한 형식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종교, 미신의 관념론적인 인식론적근원을 인식론적 및 론리학적견지에서 분석하면서 종교론자들이 추리의 전제부터 허망하게 설정하기때문에 결론도 허망할수 밖에 없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편벽하고 암둔한 견해는 허망한것을 가지고 추리

하여 실제하는것으로 만든다. …방술, 화복에 미혹된 자들이라고 어찌 추리가 없어서 이렇겠는가, 반드시 방술, 화복의 견문과 인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들은 이로써 추리하여 자신을 깊이 믿고 인용하는 근거도 떠 넣어 나중에는 들이킬수 없이 되였다. 비록 어떤 사람이 자세히 진실한 추리에 대하여 알려 주어도 처음은 의견이 대립되며 나중에는 마스지 못한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 수용이불지추)라고 하였다.

그는 추리가 비록 주관적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주관적으로나 자의적으로 꾸며 낸것이 아니라 이미 획득한 지식, 견문, 경험, 실험 등에 기초하여 사물의 객관적합법칙성에 의거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종교, 미신의 관념론적허망성은 추리에서의 허망성뿐아니라 추리하지 않거나 편중하게 추리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미혹된 사람은 추리란 없으며 굳어 진 벼룩을 가진 사람은 추리에서 편중한다》(《기축체의》추축록, 권5, 추기축인, 무추축급편추축)라고 하였다.

동방철학사상에서 종교, 미신의 허황성에 대하여 비판한 학자는 많으나 최한기와 같이 종교의 인식론적근원을 론리학적으로 정연하게 비판한 사람은 없다.

최한기는 인식은 개인의 인식뿐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식의 총화로 이루어 져야 하며 그것을 어느만큼 섭취하는가에 의하여 완전한 인식과 편협한 인식이 갈라 진다고 하면서 《1년의 짧은 견식을 가지고 백년의 장기적사업을 론할수 없으며 한집안의 짧은 견해를 가지고 한 나라의 사업을 론할수 없다》(《기축체의》추축록, 권1, 추축제강, 대소원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인식론적견해가 그로 하여금 당대에 가장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로 되게 하였으며 《세계학》을 창조하고 《개국통상》의 구호밑에 세계과학문화의 교류를 주장하는데 이르게 하였다.

최한기의 인식론에서 또한 중요한 사상은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에서의 절대적 및 상대적성격문제와 진리의 객관성문제에 대한 그의 독창적견해이다.

그는 세계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있으며 인간은 인식활동을 통하여 그를 인식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천지에는 운동변화의 법칙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인식의 법칙이 있다. 사람은 인식의 법칙을 가지고 운동변화의 법칙을 사고한다. …만약에 기에 의거하지 않고 혓되어 사고한다면 기의 운동변화와 어긋난다. 무릇 기의 운동변화에 의하여 인식하면 참된 법칙이 아닌것이 없다》(《인정》권8, 교인, 리죽기)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은 인식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객관적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연의 운동변화의 법칙을 인식할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객관적합법칙성의 인식은 제한되어 있으며 상대적이다.

최한기는 자연은 인간의 인식과는 관계없이 자기 법칙에 따라 운동변화하고 있으나 《사람의 인식으로 말하면 먼데를 본다는 자는 다만 별들이 밟아 졌다 없어 졌다 하는것이나 안개의 가로 막힌것이나 보며 먼데것을 듣는다는 자는 세계 각국의

번역을 통하여 전해 지는 말이나 글을 듣는데 불과한데 그것도 실지는 불완전한 것들이다. 무엇을 가지고 자연계 범위의 법칙을 밝히겠는가》(《기축체의》추측록, 권2, 추기축리, 천난추측)고 하였다.

그는 진리인식에서의 상대성을 견문의 제한성과 세계문화교류의 제한성밖에 자연과학발전의 제한성에서 찾았다.

그는 자연계의 범위에서도 그 법칙성을 해명하였다는 것이 《닭알에 의하여 천체의 형체를 알고 개미가 불은 매돌을 보고 태양의 운행을 안데 불과》한테 《닭알이나 개미가 불은 매돌을 가지고 어떻게 천체의 진짜 닮은 모양에 비유할수 있겠는가》(《기축체의》추측록, 권2, 추기축리, 천난추측)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인식의 상대성은 객관세계의 무한성에도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천하의 사물은 무궁하나 나의 인식은 유한하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 심밖에 사물이 없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면 심밖에 허다한 사물이 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가운데도 또한 알지 못하는것의 축적이 있으니 실지로 알고 있는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기축체의》추측록, 권1, 추축제강, 소지무기)라고 하였다.

그는 인식의 상대성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결코 불가지론자는 아니였다.

그는 《인식의 방도는 알거나 모르는것으로 하여 구속되지 말고 추리할수 있는것은 추리하고 판단할수 있는것은 판단하는것이다. 전제가 없는 결론은 아는것으로 인정하지 말고 경험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는 결론은 아는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기축체의》추측록, 권1, 추축제강, 소지무기)라고 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를 인식해 나간다면 세계의 사물은 무궁무진 하지만 옆은데로부터 깊은데로 점차 인식을 심화시켜 나갈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또한 《사물은 비록 무궁하나 인식방도가 있는것이다. 가까운것, 천한것, 면으로 된것, 적은것, 시초, 옆은것을 인식하고 견문이 거듭되는데 따라 먼것, 귀한것, 모난것, 큰것, 마지막, 깊은것을 인식한다》(《기축체의》추측록, 권6, 추물축사, 추축유방)라고 하였다.

최한기의 인식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식에서 진리의 기준에 관한 사상이다.

조선철학사상에서 과거의 모든 관념론자들은 진리의 기준을 주관의식에서 찾거나 절대적인 리념에서 찾았다. 주자성리학자들은 정신적이며 절대적인 《실체》인 《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진리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양명학자들은 주관의식으로서의 《량지》에서 진리의 기준을 찾았다.

최한기는 이전의 유물론자들은 진리의 기준이 행(실천)에 있다고 하였으나 그 실천은 봉건적인 윤리도덕적 실천을 의미하였거나 어떤 지식의 실용성에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도 물론 진리의 기준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진리는 객관적이며 시험, 경험, 검증, 사회활동, 그리고 중요하게 대중의 경험을 진리의 기준으로 내세움으로써 진리의 기준에 관한 인식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

하였다.

그는 『통(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주)과 불통에 대하여 어찌 스스로 단정하거나 만족히 생각할것인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증험해 보아야 하며 그 불통한바를 통하여 보아도 아직 석연하지 못하면 또다시 사물에 증험에 보아야 한다』(『기축체의』신기통, 권1, 체통, 물아증험)고 하였다.

그는 진리는 주관적이 아니라 대중의 견문, 인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바로 자기의 통한바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의 통한바에 의하여 통하며 여러 사람의 의식으로써 자기의 의식을 통하여 되면 내가 비록 두 귀와 두 눈을 가졌지만 만개의 눈과 만개의 귀의 작용을 함께 하며 만개의 귀와 만개의 눈이 얻은것을 보아 두 귀와 두 눈에 사용하게 되면 내가 비록 한개의 의식을 가졌지만 억의 의식의 작용을 하게 되며 만억의 의식에서 얻은것을 모아서 한 몸의 의식에 사용하게 된다. 그런후에서 공정한 대도(진리—주)가 만, 억 사람이 통한 공명정대한 진리, 원칙을 따르게 될것이다』(『기축체의』신기통, 권1, 체통, 이목신기통만위일)라고 하였다.

최한기의 진리의 기준에 관한 견해는 새로운것이다. 그러나 그 견해에는 『만인에게 파악된것은 진리』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당시 봉건적륜리도덕 규범인 『삼강오륜』도 『만민에게 파악』된것이기때문에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상이 전제로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하여 그는 『세계학』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삼강오륜』, 『인의』의 도덕은 세계 만민이 준수하여야 할 진리로 된다고 인정하였던것이다.

그는 인식에서 『증험』(검증, 실험)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의 『증험』에 관한 리론은 인식의 『시, 중, 종』(始, 中, 終)에 관한 리론과 지와 행의 선후차성문제에서 더욱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그는 인식의 과학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참증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인식은 실천과정에서 심화되고 『증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외부세계의 사물을 감각기관으로 반영함에 있어서는 『참증』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이 많고 적음과 선후차에 관계없이 받아 들이면 되지만 일단 지식으로 된 인식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시작과 중간과 종결의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는 사물에 대한 방위와 름관을 아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물을 고찰하거나 어떤 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단계이며 셋째 단계는 이렇게 한후에 증험을 통한 재인식단계라고 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대체로 통에는 세 단계가 있으니 일에 앞서 그 <범위지통>이 있고 일을 실천하면서 <점진의 통>이 있고 일이 끝난 후에는 <증험의 통>이 있다. 어찌 <범위지통>을 가지고 자만자족하여 <증험의 통>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 기뻐 하겠는가』(『기축체의』신기통, 권1, 통유시증종)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초보적으로나마 인식의 심화과정은 필연적으로 실천과 결부되어 있으며

인식의 진리여부는 실천을 통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그리하여 인식은 현상에서 본질에로 심화된다는 변증법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유물론적인식론에 기초하여 최한기는 지와 행에 관한 문제에서 관념론적견해를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은 선천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행동한다는 주자성리학의 『지선행후』설을 반대하였고 지나 행이나 다같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량지』를 파악하는것이라는 양명학의 『지행합일』설도 반대하였으며 일부 유물론자들이 주장한 『지행병진』설도 반대하였다.

그는 『지행합일설과 지행병진설은 바로 흐리멍텅하게 지와 행을 조화시키는 솔책이다』(『기축체의』추측록, 권4, 추동측정, 지행선후)라고 하였다.

그는 행이 인식의 기초이며 진리의 기준이라는 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지행문제를 고찰하였다.

그는 처음 배울 때의 귀납추리는 다름아닌 『행한 다음에 아는』것이며 일단 지식을 얻은 다음은 연역추리를 할수 있는바 그것은 『알고 행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지가 먼저인가 행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는 본래 발전순서가 있다. 그 시초로 말하면 행에 의하여 지가 있게 되고 이미 지가 있으면 혹시 지에 의하여 행이 있게 된다』(『기축체의』추측록, 권4, 추동측정, 지행선후)라고 하였다. 그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보다 완전한 지식을 얻는것도 『지선행후』가 아니라 『선행후지』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미 『참증』, 『증행』을 통하여 확고하게 인식된 지는 그에 의거하여 실천할수 있기때문에 『지선행후』로 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런 경우의 지도 선천적으로 인식된 지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된 지라고 인정하면서 『행은 지에 의하여 출발하며 지는 행에 의하여 완성된다』(『기축체의』신기통, 권1, 체통, 지각우렬종신기이생)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최한기는 동방철학사에서 기본적으로 리론과 실천문제로서 수백년동안론쟁되어 온 지행문제를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결속 지었다.

총적으로 최한기는 심오한 심리학과 론리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인식론을 전개하였는바 그것은 과장없이 당시의 동방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룬 자랑할만 한 성과였다고 말할수 있다.

3) 변증법

최한기의 철학사상에는 변증법사상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그의 철학에서의 자연관 특히 인식론 및 론리학사상의 기초에는 변증법사상이 놓여 있다.

세계를 하나의 물질적인 기에 의한 련관과 부단한 생성, 발전 소멸의 운동과정으로, 그것도 물질적인 기자체와 원인으로 설명한 최한기의 유물론적자연관, 그리고 인식을 객관세계사물의 법칙성의 인식으로 이해한 그의 유물론적인식론과 사물의

인식법칙을 해명한 그의 철학 등에는 변증법사상이 그 기초에 놓여 있었다.

그의 변증법사상을 관통하는 사상은 세계만물의 부단한 운동변화의 법칙성에 대한 이해와 그로부터 출발하여 전통, 교조, 우상적권위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의 부정과 《변통》사상이다.

그는 《천하의 어떤 사물도 운동변화에 의하여 시작되고 끝나지 않는것이 있는가》(《인정》권1, 교인, 사물준적)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는 나라의 제도와 풍속, 사물의 법칙도 변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나라의 제도와 풍속 같은것은 옛날과 지금이 서로 맞지 않고 사물의 리치를 추산하는 것은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 밝아 진다》(《기축체의》서)고 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이 운동변화한다는 관점에 서서 당시 주공, 공자를 《성인》으로 우상화하고 그들을 절대시하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주공, 공자의 옛 사적에 매여 달려 아무런 변통수도 취하지 않겠는가》(《기축체의》서)라고 하였다.

그의 《변통》사상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적관념에서 벗어 나지 못한 그는 《변통》을 질적변화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양적축적, 점진적진화로 이해하는 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성은 사회력사령역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는바 그는 사회력사발전을 단순한 양적축적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변통》을 사물의 운동변화에 순응해 나가는 인간의 주관적노력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사회나 인간은 끊임 없이 운동변화하는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사회도 인간도 그 법칙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그를 어기면 《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나라의 정치도 《오래면 폐해가 있고 폐해가 있으면 반드시 구하는 방도가 있다》, (《기축체의》추축록, 권6, 추물축사, 정손의학연혁)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변통》이란 바로 사회와 인간이 자연법칙을 어기고 전진에 장애가 조성되었을 때 그 장애를 사람의 노력으로 제거하고 자연법칙에 순응시키는 행위 즉 《개혁》, 《변법》을 의미하였다. 그는 《변통》에 대하여 《모든 사업을 경영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시기와 형세를 보고 기회를 이용하여 잘 인도함으로써 아무런 장애가 없이 순탄한데로 나아 가게 하며 그 힘을 빌고 마음을 합하며 권도를 써서 적당하게 하는것은 어느것이나 다 변통하는것이니 변통은 곧 사람의 일이다. 자연법칙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 가는 자는 인간에 대한 변통이 꼭 필요하지 않다》(《기축체의》신기통, 권3, 변통, 변통조목)라고 성격지었다.

그는 《변통》은 《손의》(덜것은 덜고 더할것은 더한다는 뜻) 또는 《수정》이라고 표시하였는바 개념자체에서 보다깊이 사회의 근본적변혁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그는 《변통》리론에 근거하여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봉건제도자체의 근본적변혁으로 자향하지 못하고 세계발전의 추세에 맞게 봉건제도를 《변통》, 《수정》함으로써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개량적 입장이였다.

그의 《변통》사상에서의 이와 같은 제한성은 유교의 전통적관념의 제약과 함께

중요하게는 당시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발전이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자본가계급이 아직 독자적인 정치적력량으로 등장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최한기의 『변통』사상은 사회령역에서 아무런 변화와 개혁도 기대하지 않는 통치계급의 보수적, 반동적견해와는 구별된다. 그의 『변통』사상은 세계발전의 추세 즉 자본주의적발전의 추세를 따르기를 염원하나 봉건제도자체의 근본적변혁을 위한 혁량을 준비하지 못한 미숙한 시민 계층의 계급타협적, 개량적립장을 반영하였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역사적조건하에서의 『변통』사상의 진보성은 의심할바 없다.

최한기의 변증법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물질과 운동, 운동의 절대성과 정지의 상대성이에 관한 사상이다.

그는 『세계에는 운동하지 않는 사물이란 없다』(『인정』권2, 측인), 『천기는 운동하여 끝이 없다』(『기축체의』추축록, 권4, 추동측정, 왕래작식유통정)라고 하면서 모든 사물은 운동하며 운동은 절대적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사람도 호흡, 혈액운동으로부터 사유활동에 이르기까지 운동하지 않는것이란 없다고 하면서 『어찌 고요히 운동하지 않고 정지하여 아무 작용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이루지 않겠는가』(『인정』권2, 측인, 측정)라고 하였다.

그는 정지에 대하여 『그 운동의 안정상태를 정지라 한다』(『인정』권2, 측인, 측정)고 하였다. 즉 정지란 운동의 상대적안정상태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는 운동과 정지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운동중에 원래 정지가 있고 정지중에 원래 운동이 있다. 운동할 때에도 그 정지를 상실하지 않고 정지할 때에도 그 운동을 볼수 있으니 운동과 정지를 서로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기축체의』추축록, 권4, 추동측정, 동정호근)라고 정식화하였다.

그는 운동과 정지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더 깊이 분석하면서 『의기를 가지고 태양의 이르고 늦은것의 그림자를 측정하는것은 비록 정지한것으로 운동하는것을 측정하는것 같으나 지구가 운동한다는 리론으로써 추리한다면 사실은 빠른 운동을 하는것으로써 늦은 운동을 하는것을 측정하는것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4, 추동측정, 이동속측동치)라고 하였다.

최한기의 변증법에 관한 사상에는 사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발전의 견지에서 보며 시공간적기준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는 진리도 시공간적으로 달라 지고 발전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도 그에 맞추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이런 견지에 서야 옳게 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경험도 다르고 지식정도도 다르고 실천행동도 다른 옛 사람과 지금 사람을 직선적으로 비교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상고인은 상고인과 비교하며 중고인은 중고인과 비교하며 근고인은 근고인과 비교하며 현대인은 현대인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당시의 역사적조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것이다』(『인정』권16, 선인, 고금인비교)라고 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정식화하여 『일이 비록

고금에 같으나 오늘 그에 따라 실시하자고 해도 맞지 않는것이 많은것은 시간과 위치와 지식과 사는 곳이 다르기때문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6, 추물축사, 사동불합)라고 하였다.

최한기의 견해는 역사발전을 직선적이며 고정불변한것으로 이해하는 형이상학자, 복고주의자들에 대한 타격으로 되었다. 고대를 리상화하는 복고주의자들은 덮어 놓고 인물도 학문도 옛것이 지금것보다 나으며 현대는 오직 그의 예리기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최한기의 리론은 이에 대한 리론적비판으로 될뿐아니라 고대 《리상》론의 전통적관념에 타격을 가하고 근대문명으로 나갈수 있는 리론적근거로 되었다.

4) 무신론

최한기는 유물론자인 동시에 무신론자였다.

그는 당시 존재한 모든 종교와 미신 즉 카톨릭교와 불교, 도교와 귀신설, 방술, 관상, 점 등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최한기는 세계는 물질적인 기로 이루어 졌으며 그것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으며 물질적인 기에 내재하는 법칙에 의하여 끊임 없이 운동변화한다고 인정한 철저한 유물론자였다. 이러한 그의 세계에 《신》 또는 신비스러운 《우상》이나 《조화》가 끼여 들 자리가 없었다.

그는 종교, 미신은 실재하는 객관적세계를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허망하게 인식하는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허망성은 점점 덧붙여서 그 폐해는 더욱 커졌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허망하게 통한 자는 그 정도가 얕으면 자기를 망치나 남을 해롭게 하는것이 적고 그 정도가 깊으면 사물과 만물이 그 해독을 많이 입게 된다.……듣고 보는것이 진실에 통하지 못하고 허망을 통하여 되여 불교를 숭배하게 되고 귀신을 섬기며 화복설과 음양방술을 믿어 좋다거니 나쁘다고 하는 미신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처음에 제창한 자들은 꼭 그렇게까지 미혹되지 말고 그 시초를 조금 열어 놓았는데 후세의 신봉자들이 그에 덧붙여서 광명한 큰 길을 버리고 암매한 술법을 꾸며 내여 평탄한 큰 길을 피하고 험한 오솔길로 뛰여 들어 후세 사람들을 그릇치며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원근에 가득차게 되였다.

그러나 거의 다 해롭기만 하고 리익은 없다》(《기축체의》신기통, 권1, 허망지해)고 하였다.

그는 카톨릭교를 비롯한 신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에 의한 세계주재설을 주장하는 종교에 대하여서도 리론적타격을 주었다.

그는 그 신앙의 기초에 《령혼불멸성》이 놓여 있다고 인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그는 《사는것은 기가 모인것이며 죽은것은 기가 흩어 지는것이다》라는 생사관에 기초하여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종교, 미신에 떨어 지는것은 결국 무지몽매한데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귀신에 매혹되고 화복에 빠지는것은 우매하고 미혹된 자들이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기축체의』추축록, 권2, 추기축리, 귀신화복)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조물주가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하는 카톨릭교의 허황성을 반대하여 물질적인 기와 관련이 없으며 『증험』할수 없는 『공담허설』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신령하고 괴이한 설로 대중을 미혹』하며 『여러 령훈이 괴이하게 노니 또한 불교보다 해가 심하다』(『기축체의』추축록, 권5, 추기축인, 서교연혁)라고 카톨릭교를 비판하였다.

그는 당시 카톨릭교를 리용하는 서양침략자들의 침략적기도를 간파하고 그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매화하며 미신에 빠지게 하려 한다고 폭로하였다.

동시에 그는 이와 같은 황당하고 허황한 종교도 『서양 각국이 재능과 지혜가 날이 발전하며 법도 점차 밝아 지니』(『기축체의』추축록, 권5, 추기축인, 서교연혁) 결국 폐지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최한기가 종교, 미신의 인식론적근원은 옳게 이해하고 있었으나 보다 중요한 사회계급적근원에 대하여, 더욱기 제국주의자들의 종교침략정책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말해 준다.

최한기는 종교에 대하여 비판배격하였으나 당시 통치자들이 실시한 『이단』탄압정책도 반대하였다. 그는 『외도이단을 성실한 길로 감화함을 위주로 할것이지 쪼개고 배척하여서는 안된다』(『인정』권12, 교인, 배이불가급)라고 하였다.

최한기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미신도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멸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정밀한 기계들이 사람에 의하여 제작되어 사람들의 식견을 리롭게 하며 혹 기계로 하여 식견을 넓히며 옛날 사람들이 발명못한것을 발명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미신에 이르러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도 그에 의하여 시정된다. 얻는바 허실을 알수 있다』(『기축체의』추축록, 권6, 추물축사, 성명재상지비)라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 어떤 신의 조화이거나 신비적인 원인과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사람자체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평생의 길흉화복은 자기의 말과 행동에 의하여 초래된다』(『기축체의』추축록, 권6, 추물축사, 화복조단호부부)라고 하였다.

이렇듯 유물론사상과 밀접히 결부된 최한기의 무신론사상은 당시의 조건에서 계통적의의가 큰 진보적인 사상이였다.

최한기는 련면히 계승되여 온 우리 나라 중세 기일원론적유물론철학을 계승하여 그를 높은 수준에서 집대성한 자랑할만 한 유물론철학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사람은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도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재능 있고 지혜로운 문명한 민족입니다.』(『김일성저작집』1권, 231페이지)

최한기의 철학사상은 재능 있고 지혜로운 문명한 조선민족의 공동의 민족문화유

산이다.

우리는 최한기의 철학사상이 우리 나라 유물론 철학사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을뿐아니라 세계유물론철학발전에도 응당한 기여를 한데 대하여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나라 철학사를 더 깊이 연구하여 우리 민족이 과학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빛나는 전통을 세계만방에 소개선전하여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惠岡崔公傳》

崔漢綺著 《氣測體義》

〃 《仁政》

정성철 저 《朝鮮實學の系譜》 1982年 雄山閣

정성철 저 《조선철학사》(2) 1987년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교착어 접사의 이론바 <단의성>을 론함

정 순 기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어가 교착어에 속하는 언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교착어에 속하는 조선어의 접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의미의 성격을 론하기에 앞서 조선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먼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계언어의 형태론적 분류를 진행할 때 일부 언어들은 그것이 교착어에 속하는가 굴절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어는 전형적인 교착어이다.

지난 시기 언어의 형태론적 분류를 진행한 학자들 가운데에는 교착어와 굴절어 사이에 교착굴절적 언어를 따로 설정하고 거기에 쎄미트어들을 소속시킨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면서 교착굴절적 언어는 교착어와 달리 단어의 어근들이 굴절되는 것과 함께 접사가 교착됨으로써 문법적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때 어근과 접사사이의 관계는 교착어와 류사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 언어에서 문법적 형태를 조성할 때에 어미의 굴절과 접사의 교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굴절어이지만 교착의 수법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언어가 있으며 교착어이지만 굴절의 수법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실례로는 아랍어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실례로는 일본어를 들 수 있다.

아랍어에서 명사의 격형태는 굴절의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 지지만 명사의 지정 및 미정관계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첨가하여 조성한다. 즉 지정의 의미는 접두사 <al>을 첨가하여 조성하고 미정의 의미는 접미사 <n>을 첨가하여 조성한다. 명사의 복수형태도 거의 모두가 어간형태의 구조변화에 의하여 이루어 지지만 일부 단어들은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 진다. 이와 류사한 현상들은 동사의 미완료형과 완료형의 조성, 법형태의 조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어의 격조사는 교착의 수법에 의하여 문법적 형태를 조성하지만 일본어 동사 변화는 굴절의 수법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일본어 동사 <yomu>는 <yoma(미연형), yomi(련용형), yomu(종지형), yomu(련체형), yome(기연형), yome(명령형)...> 등으로 어미변화에 의하여 각이한 형태가 조성된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 즉 어간은 <yom>이고 변하는 부분 즉 어미는 <a-i-u-u-e-e...>이다. 이런 데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일본어는 교착어에 속하지만 동사와 형용사는 어미변화에 의하여 문법적 의미가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어 동사, 형용사는 굴절적 수법에 의하여서만 문법적 형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동사, 형용사가 굴절한 뒤에 다시 조사 <to, ba, kara, ga, keredomo>와 같은 것이 교착되어 <ik-u-to, ik-e-ba, ik-u-kara, ik-u-ga, ik-u-keredomo>와 같은

문법적변화형태를 조성한다. 이것은 일본어 동사, 형용사에서 찾아 보게 되는 교착의 수법이 굴절어미뒤에서 이루어 지는 것만큼 교착어로서의 전형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교착의 수법이 격조사형태를 비롯한 그밖의 여러 형태 조성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에 일본어를 교착어에 소속시키고 있는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형태론적분류는 적지 않은 경우 상대적인것이여서 학자들로 하여금 교착굴절적언어와 같은 하나의 부류를 설정하는가 하면 해당 언어를 교착어나 굴절어에 소속시켜 놓고 다른 수법에 의하여 문법적형태가 조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를 가져 오군 하였다.

그러나 조선어는 교착어로서의 특징이 전형적이여서 굴절이나 포함과 같은 다른 수법에 의하여 문법적형태가 조성되는 일이 없다.

물론 조선어에서도 격범주와 용언의 시간이나 말차림범주 같은것이 다 같이 교착의 수법에 의하여 문법적형태가 조성되지만 그 자립성과 교착의 정도에서 차이가 없는것은 아니다. 격토는 용언에 붙는 여러 토들에 비해 볼 때 상대적자립성이 더 강하며 용언토들은 어간에서 떨어 져 나가기가 체언토에서보다 더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어의 동사, 형용사의 변화와 어느 정도 류사한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굴절이 아니라 교착의 수법에 의하여 문법적형태가 조성된것이다. 조선어 동사는 일본어에서처럼 어미변화를 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조선어가 교착의순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교착어라는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조선어의 문법적특성은 교착어의 문법적특성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수 있다.

교착어는 굴절어나 포함어와 달리 접사의 교착에 의해 문법적형태가 조성된다는 데 그 특성이 있고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교착어연구자들은 교착어접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그것도 굴절어의 어미와 대비하여 그 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굴절어에서 문법적형태 조성이 어미변화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것만큼 교착어의 문법적형태조성수단인 접사와 대비하는것은 불가피한것이며 응당한것이다.

그러나 교착어접사의 문법적특성을 밝히는데서는 보다 심오한 분석과 론증이 요구되는것이다.

이러한 실례의 하나가 바로 교착어접사의 이른바 『단의성』에 관한 문제이다.

슬라브어를 모국어로 하는 많은 학자들이 로어의 굴절어미와 교착어에 속한 우랄-알타이어의 많은 언어들의 접사와 대비하면서 문법적의미의 단의성이 교착어접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아. 아. 레포르마쓰끼는 1960년에 출판한 자기의 저서 『언어학개론』에서 굴절어인 로어와 교착어인 까자흐어의 격형태를 비교하면서 문법적의미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저서에서는 『톱』을 가리키는 로어단어 『пила』와 까자흐어단어 『апа』의 수 몇 격변화를 대조하였다.

로 어	까자흐어
пил - а (단수, 주격)	a pa
пил - э (단수, 여격)	a pa - га
пил - ы (복수, 주격)	a pa - лар
пил - ам (복수, 여격)	a pa - лар - га

필자는 이러한 대비를 하고 결론을 내리였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로어어근은 어음구성에서 변화되지만 까자흐어어근은 변화되지 않는다.
- ② 로어접사는 단의적인것이 아니지만 까자흐어접사는 단의적인것이다. 로어의 «am»은 복수와 여격의 의미를 함께 표현하지만 까자흐어접사«Fa»는 여격의 의미, «лар»는 복수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 ③ 로어접사는 틀에 박힌 고정된것이 아니지만 까자흐어접사는 틀에 박힌 고정된것이다.
- 로어에서는 다른 단어인 경우 복수여격이 «am»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다른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까자흐어에서는 언제나 같은 형태로 규격화되어있으며 고정적인것이다.
- ④ 로어에서는 어간에 접사가 첨가되지만 까자흐어접사는 그것없이도 독자적으로 쓰이는 단어에 직접 첨가되는것이다.
- ⑤ 로어에서는 어간 및 어근과 접사의 련결은 밀접하게 엉켜 있는 관계에 있지만 까자흐어에서는 기계적인 접촉상태에 있다. 로어에서는 어근의 마지막음운과 접미사의 첫 음운이 호상작용하지만 까자흐어에서는 그 계선이 명백하게 그어 지는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견지에서 교착어접사의 의미표현적기능과 특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¹

우에서 보여 준 5가지 차이점중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②과 ③이다.

여기서는 교착어접사의 의미적특성을 단의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주적 의미의 테두리안에서 론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굴절어의 격접사(격어미)는 성, 수, 격을 다 함께 나타내지만 교착어접사는 그렇지 못하다는것이다.

물론 여기서 조선어를 포함한 우랄-알타이어의 대다수 언어가 체언적단어에서는 접사가 하나의 범주적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격접사, 수접사 등이 따로 있어 제각각 자기의 범주적의미만을 나타낸다.

조선어에서는 격토와 복수토가 구분되어 있어 제각기 격의 의미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측면에서는 교착어접사가 단의적(더 정확히는 단범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1 1. 계, 데, 쌈제예브 «몽골어비교문법» 로문판, 1953년판
 2. 계, 데, 쌈제예브 책임편집 «부리야뜨어문법» 로문판, 1962년판
 3. «쏘련대백과사전» 로문판, 1970년판
 4. «국어학사전» 한글학회, 1995년판

그러나 조선어의 구체적인 설정과 교착어의 여러 접사들을 고찰해 보면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회박해 진다.

조선어의 맷음토에서는 말차림의 문법적의미와 법의 문법적의미가 동시에 표현된다. 즉 2개의 범주적의미를 나타낸다.

실례 :

- 〔 ○ 책을 읽습니다. (높임의 말차림과 함께 알림의 말법을 나타낸다.)
- 〔 ○ 책을 읽습니까? (높임의 말차림과 함께 물음의 말법을 나타낸다.)
- 〔 ○ 책을 읽소 (같음의 말차림으로 알림의 말법을 나타낸다.)
- 〔 ○ 책을 읽소 (같음의 말차림으로 쓰이는데 억양의 도움에 의하여 명령, 의문, 권유 등 여러 말법을 나타낸다.)

조선어의 맷음토는 말차림과 말법의 문법적의미만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양태적의미와 말하는 사람의 여러가지 감정정서적의미도 함께 나타낸다.

- 〔 ○ 비가 오네(단순한 현실긍정)
- 〔 ○ 비가 오네(일정한 억양의 도움에 의해 감탄의 의미 표현)

다른 실례를 들어 보자.

○ 무척 아버지가 기다려지는게로구나

토 《로구나》는 체언의 용언형과 단어 《아니다》에 붙어 쓰이는데 시간토뒤에 서는 쓰이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되 반말의 말차림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알림의 말법을 나타낸다. 여기에 현실긍정의 양태적의미와 함께 말하는 사람의 여러가지 감정, 즉 어떤 사실을 발견한데 대한 기쁨, 반가움, 놀라움, 유감스러움 등의 감정이 함께 표현된다.

우에서 보여 준 맷음토 《습니다, 습니까, 소, 네, 로구나》를 비롯하여 많은 맷음토들은 그것자체만으로 현재의 시간을 나타낸다. 끼음토 《았/었/였》과 《겠》이 결합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측면에서 맷음토는 일부 경우 말차림, 법, 시간 등 세개의 문법범주적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조선어의 맷음토는 하나의 범주적의미만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범주적의미를 나타내며 일부 경우 그밖의 여러가지 문법적의미와 보충적인 의미, 표현적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조선어의 규정형토 《ㄴ/는》과 시간토 《ㄴ/는》은 그가 붙어 쓰이는 단어의 품사적성격여하에 따라 그 문법적의미가 달리 표현된다.

○ 이깔도 분비도 푸른 빛인데

봇나무 너흘로 하얀 빛인가
 2월의 고향집 단장하자고
 티 없는 흰 눈빛 고이 담았나
 ○ 먼저 떠나 간 선열들의 넋을 지켜
 조국방선 지켜 선 이 나라의 장한 아들을

우의 실례에 있는 토«ㄴ»은 형용사(체언의 용언형도 포함)에 붙었을 때에는 현재, 동사에 붙어 쓰일 때에는 과거를 나타낸다.

- 형용사
푸른 빛, 하얀 빛, 흰 눈빛, 장한 아들
- 동사
떠나 간, 지켜 선

동사의 규정형에서 현재를 나타내려면 토«는»을 써야 한다.

- 떠나 가는, 지켜 서는...

규정토에서 나타나는 시간관계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 간	토	규정형이 이루어 지는 품사	해
과 거	ㄴ / 은	동사	지나간, 읽은
과거지속	던	동사, 형용사, 체언의 용언형	읽던, 많던, 사람이던
현 재	는	동사	읽는
	ㄴ / 은	형용사, 체언의 용언형	많은, 사람인
미래	ㄹ / 을	동사, 형용사, 체언의 용언형	갈, 많을, 사람일

도표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하나의 규정형토가 동사, 형용사에서 각기 다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것은 형태위주로 본다면 다의미적인 현상이고 의미위주로 본다면 하나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현상이다.

시간관계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지난 날 조선어에서 동사, 형용사가 미분화상태에 있었던 사정과 관련된것으로서 토(접사)의미의 단의성을론하는데서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할 측면이다.

동사, 형용사의 시간관계에서의 차이는 끼움시간토의 사용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끼움시간토«ㄴ»은 동사에서 모음으로 끝난 말줄기와 풀이토«다, 다며, 다오, 다네...»의 사이에서 쓰이며 토«는»은 자음으로 끝난 동사의 말줄기와 맷음토«다, 다며, 다네, 다오...»사이에서 쓰인다. 일부 경우 모음으로 끝난 동사의 말줄기와 맷음토 «도다, 구나...»사이에서도 쓰인다.

- 영철이는 여섯살이지만 신문을 꽤 잘 본다.
- 영철이가 소리를 크게 내며 책을 읽는다.
- 새해 첫 봄비가 소리없이 내리는구나.

현재시간을 나타내는 끼움시간토 《ㄴ/는》은 형용사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형용사는 끼움시간토 없이 현재를 나타낸다.

- ✗ 훤다, 푸른다
- ✗ 희는구나, 푸르른구나
- 조국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현재)
-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 순풍금소리 울려라(현재)

이처럼 조선어 동사, 형용사의 규정형과 맷음형에서 시간관계는 각기 다른 접사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이것은 해당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하나의 접사만이 리용된다는 교착어의 특성에 맞지 않는것으로서 교착어접사의 의미와도 관련되는것이다. 하나의 같은 어음적외피 다시말하여 하나의 문법적 형태가 서로 다른 여러개의 의미를 나타내는것과 같은것이기때문이다. 규정형토 《ㄴ/는》은 본래 같은 하나의 형태이지 다른 어떤 형태에서 기원한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시간을 나타내는 끼움시간토 《ㄴ/는》이 동사에서는 쓰이고 형용사에서는 쓰이지 않는것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진 용언적품사안에서도 서로 차이 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교착어접사의 일반적특성 다시말하여 단의성과 규격성을 규정할때에 고려해야 할 측면이다. 동사에서는 이런 끼움시간토가 있어야만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형용사에서는 이런 끼움시간토가 없이도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는것은 조선어용언에서 쓰이는 맷음토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결합조건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이것은 아, 아, 레토르마쓰끼가 지적한 굴절어와 교착어의 차이 ③과 다른것이다.

이때까지 교착어의 접사와 굴절어의 접사(어미)사이의 차이를론할 때 많이는 굴절어명사의 격어미와 교착어의 체언적단어에 붙는 접사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되었 다. 다시말하여 굴절어의 어미는 성, 수, 격의 의미를 다 함께 나타내지만 교착어에서는 수의 의미, 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며 해당한 예격이나 조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교착어접사는 언제나 고정된 하나의 형태로 규격화되여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보아 넘길 문제로 되지 않는다. 조선어명사의 예격형태는 그 명사가 활동체명사인가, 비활동체명사인가 하는데 따라 다르게 이루어 진다. 즉 활동체명사인 경우에는 토 《에게》가 결합되어 쓰이고 비활동체명사인 경우에는 《에》가 결합되어 쓰인다. 토 《에게》와 《에》는 다음

과 같은 5개의 뜻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① 어떤 행동이 미치는 간접적인 대상

- 복이 말라 하는 철수에게 시원한 파일물을 주었다(활동체명사)
- 꽃에 물을 주었다(비활동체명사)

② 행동방향으로 되는 대상

- 구원의 손길은 하루빨리 그들에게 가닿아야 한다(활동체명사)
- 숙식조건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비활동체명사)

③ 그 어떤 행동의 주체

- 원쑤에게 죽은 부모형제들의 원한(활동체명사)
- 파도에 밀려 온 바다나물(비활동체명사)

④ 그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 나는 위치

- 동무의 관람권은 박동무에게 보관되어 있다(활동체명사)
- 우리의 힘은 당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힘
가슴에 자닌 필승의 신념 그어이 드팀이 있으랴(비활동체명사)

⑤ 일정한 기준적단위

- 한 학생에게 차례지는 끝
- 하루에 두번씩 읽어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어에서 체언적단어인 경우에 해당한 하나의 격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활동체명사인가 비활동체명사인가 하는데 따라 그 형태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으로서 교착어에서 하나의 격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고정된 하나의 형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 곤난하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또한 조선어에서 여격토《에》는 여격의 고유한 의미와 함께 위격토《에서》가 나타내는 장소, 위치, 범위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행동이 진행되는 고정된 공간적위치

- 들국화가 산에 피였다 / 들국화가 산에서 피여 났다.
- 평양에 산다 / 평양에서 산다.

- 행동 또는 상태가 일어 나는 기준점으로 되는 대상

- 베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베줄에서 어긋나는것은 삼가해야 한다.

- 행동이 미치는 대상 또는 범위

- 기술혁신안이 공장에 보급되었다 / 기술혁신안이 공장에서 보급되었다.

또한 조선어의 위격토《에서》는 그 어떤 접단과 관련된 체언에 붙어 쓰일 때는 그 접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문장에서 주어가 됨을 나타낸다.

즉 주격처럼 쓰인다.

○ 우리 학급에서 일등을 하였다.

이처럼 조선어에서 격형태와 격의미는 서로 넘나들면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쓰이며 다른 한편 그것으로 하여 단의적인것이 아니라 주격과 위격, 여격과 위격 등 다의미적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조선어에는 이른바 절대격형태가 있다.

아무런 격토가 붙지 않은채 단어결합과 문맥의 도움에 의하여 여러개 격의 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 광장에 천만의 대오 흐른다(행동의 주체, 즉 주격의 의미)
- 높은기 높이 들고 총 진군 앞으로(직접객체, 즉 대격의 의미)
- 조국강산 아름다움이 이 마음속에 젖어 듈다(규정적관계의 대상, 즉 속격의 의미)
- 염소 먹일 풀을 베고 있는 청년(행동의 간접객체, 즉 여격의 의미)
- 개 물린 다리(행동의 주체, 즉 여격의 의미)
- 나도 언니처럼 당의 참된 땔 되리라(변화되어 이루어 지는 대상, 즉 주격의 의미)
- 그 사람은 우선 사람 아니다(부정의 대상, 즉 주격의 의미)
- 고향 떠나 10년(행동의 출발점, 즉 대격의 의미)
- 공장 가는 길에 만난 친구(행동의 방향, 즉 여격이나 조격의 의미)
- 산골 사는 더벽머리총각(행동의 위치, 즉 여격이나 위격의 의미)
- 전적지답사 떠났다(행동의 목적, 즉 대격이나 조격의 의미)
- 불 같은 열정, 강철 같은 의지(비교되는 대상, 즉 구격의 의미)
- 이런 황홀경을 처음 봅니다(순서, 즉 조격의 의미)
- 순회, 언제 떠나오(호칭, 즉 호격의 의미)
-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강조, 즉 대격의 의미)

조선어에서 절대격형태가 널리 쓰인다는것은 하나의 격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격형태가 규격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착어접사의 일반적특성을 가지고는 설명할수 없는 현상이다. 해당한 격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격토《에》나《에게》, 대격토《를》, 조격토《로》등이 쓰이는것과 함께 아무런 격토도 붙지 않은채 절대격형태로 쓰인다는것은 그만큼 조선어접사가 이른바 《규격화》되어있지 않다는것이다.

체언적단어에 붙어 쓰이는 접사에 대하여 론할 때 조선어의 복수토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조선어문장에서 수적개념은 필수적인것이 아니다.

○ 사과가 많이 열렸다 / 사과가 열렸다

첫번째의 《사과》는 문장에 《많이》가 있기에 문법적으로는 단수로 표현되었지만 론리적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복수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의 《사과》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수 없다.

조선어에서 단수는 아무런 토가 붙지 않은채 이루어 지고 복수는 복수토《들》의 참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조선어수범주는 철저하지 못하다. 복수토《들》에 의해 조성된 복수형태와 토없이 표현된 단수형태로 수범주가 이루어 지는데 교착어에 속한 다른 여러 언어들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숙한 문법적범주이다. 교착어에 속한 몽골어나 바슈끼르어 등 여러 언어들에는 복수접사가 단일하지 않고 여러개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우랄 — 알타이어들은 단수접사는 없고 복수접사만 있는데 그것이 량적으로 하나밖에 없는것이 아니라 여러개가 있는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조선어수범주는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수 있다.

조선어복수토는 일반적으로 어근과 격토사이에 끼이여서 쓰이는데 꼭 그런것도 아니다. 어근과 격토사이에서만 복수토가 쓰이는 다른 교착어에 비해 볼 때 이것은 다른 언어와 차이나는 조선어의 특성이다.

물론 조선어에서도 《열다섯명의 학생들이 떼지어 오고 있었다》에서처럼 복수토《들》은 어근 《학생》과 주격토 《이》사이에서 쓰이는 것이 전형적인 실례이다.

그러나 《인민들속에서》, 《학생들가운데에는》, 《자동차들 앞으로》와 같이 어근과 그 뒤에 오는 단어 사이에서도 쓰일수 있으며 《자기들끼리》, 《자기들쯤은》에서와 같이 어근과 다른 접사사이에 끼여 들어서 쓰일수도 있다.

지어 복수토《들》은 체언적단어에만 붙어 쓰이는것이 아니라 부사나 용언토 뒤에서도 쓰인다.

이런 면에서 복수토가 꼭 체언토라고만 하기 곤난한 점도 있다.

○ 삽을 가지고들 오라 / 삽을 가지고 오라들

○ 빨리 들어들 오게 / 빨리 들어 오게들 / 빨리들 들어 오게

○ 용감하게들 일어 났어 / 용감하게 일어 났어들

○ 어서 많이들 들라구 / 어서들 많이 들라구 / 어서 많이 들라구들

복수토《들》은 어근과 격토사이에서 쓰이기도 하고 그 위치를 바꾸어 어근과 격토가 결합한 다음 격토 뒤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뜻이 달라진다.

○ 차가 위험하니 큰 길에서들 놀지 말아라

○ 차가 위험하니 큰 길들에서 놀지 말아라

여기서 《길에서들》의 《들》은 노는 행동의 주체가 복수임을 나타내고 《길들에서》의 《들》은 노는 곳이 복수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복수토 《들》은 격토나 도움토와 결합하여 쓰일 때 결합위치가 바뀔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어떤가 하는데 따라 복수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난다.

복수토 《들》은 격토나 도움토와 결합하여 쓰일 때에 그 위치를 서로 엇바꿀 수 있지만 용언토와 결합하여 쓰일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 부속품을 나누어 가지고들 가라
- 부속품을 나누어 가지게들 하여라

여기서 복수토 《들》은 언제나 용언토 《고》, 《게》뒤에서만 쓰이지 그 앞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즉 《가지들고》, 《가지들게》로는 되지 못한다. 용언토와 결합할 때에는 자리토 뒤에서만 쓰인다. 이것은 조선어에서 복수토가 끼움토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수토 《들》은 행동의 주체가 복수라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내용을 강조하거나 표현적 색깔을 들구는데도 효과적인 것이다.

비교

- 어서들 들어 오시지 않고 그렇게 서계십니까?
- 어서 들어들 오시지 않고 그렇게 서계십니까?
- 어서 들어 오시지들 않고 그렇게 서계십니까?
- 어서 들어 오시지 않고들 그렇게 서계십니까?

조선어의 복수토 《들》은 이처럼 구조결합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다른 교착어들의 복수접사와 다르며 따라서 복수를 나타내는 굴절어어미와 대조하는데서도 다른 교착어들의 경우와 구별해 보아야 한다. 조선어는 몽풀어와 달리 복수접사가 하나밖에 없고 그 결합도 자유분방하여 지어 맷음형과 이음형, 꾸밈형 뒤에서도 불어 쓰이며 그 의미도 복수의 문법적 의미만이 아니라 강조와 같은 표현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복수토의 쓰임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비교: 나무들을 많이 심었다 / 나무를 많이 심었다) 접합명사인 경우에는 복수토가 붙지 않고도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등 굴절어의 수범주에 비해 불 때 차이나는 점이 허다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굴절어에서는 하나의 어미가 수와 격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고 조선어의 복수토 《들》을 까자호어나 몽풀어 등의 복수접사와 같이 취급하면서 복수의 의미만 나타내며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접사가 규격화되어 있다고 말하기 곤난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어수범주가 철저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어접사(토)는 하나의 범주적 의미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법과 말차림, 때로는 현재시간의 문법적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도 하며 양태적

의미와 표현정서적의미도 보충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일부 격토인 경우에는 자기의 격의미뿐 아니라 다른 격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구조결합적특성도 자유분방하여 각종 토들의 결합위치가 서로 바뀔수도 있으며 체언에서 쓰이는 복수토가 맷음토나 이음토, 꾸밈토 뒤에서 쓰이는 등 교착어일반에서 흔히 찾아 볼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교착어들에도 교착어접사의 단의성을 해설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들이 없지 않다.

예컨대 부리야뜨몽꼴어에서는 동사의 인칭형태가 동사의 명령-희망법형태에 의해 표현된다. 다시말하여 같은 하나의 접사로써 명령-희망과 인칭의 범주적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부리야뜨몽꼴어에서 다른 나머지접사들은 단의성으로 특징되고 있다.

부리야뜨몽꼴어의 수범주는 순수하지 못하며 교착어일반의 특성에 꼭 부합되는것도 아니다. 부리야뜨몽꼴어에서 수범주는 동사에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동사1인칭과 2인칭의 일부 명령-희망형태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다시말하여 일인칭형태는 동시에 수형태로도 되는것이다. 그밖에 수범주는 인칭-술어조사에 의하여서도 표현된다.

할하몽꼴어에서는 복수접사가 조선어비슷하게 부사에서도 쓰이는데 다른 말에서 차용한것이다. 서부몽꼴어 역사사료에서 동사알림법형태로 쓰이는 뛰르끼예말 접미사《л ар》를 찾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복수의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동사의 맷음형에서 쓰인다.

аб а л а б а(사냥하였다-단수)

а б а л а б а л а р(사냥들을 하였다-복수)

또한 할하몽꼴어에서 동일한 어간에 쓰인 복수형태들은 여러 가지 뜻빛갈을 나타낼수 있는데 인칭대명사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실례로 《우리》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б и д》를 들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색채적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б и д Н а р》라고 하면 특별히 강조하는 뜻빛갈을 가진다. 《б и д н у у д》라고 하면 비칭으로 된다. 《당신》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т а》는 아무런 의미적색채도 없지만 《т а н у у д》는 멀시의 뜻, 《т а Н а р》라고 하면 정중성의 뜻을 나타낸다.²

교착어에 속하는 일본어에서는 수범주가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조선어의 토에 해당하는 조사가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 말에서처럼 그 결합적특성이 자유분방하지 않고 동사활용형이 대단히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일본어에는 동사의 인칭형태도없고 성범주도 없다.

2 이상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참고한것

① 게, 데, 쌈제예브 《몽꼴어비교문법》 로문판 1953년

② 게, 데, 쌈제예브 책임편집 《부리야뜨어문법》 로문판 1962년

그러므로 일본어인 경우 글절어의 체언적단어에서 쓰이는 어미(접사)와 대조하여 성, 수, 격의 다의성과 교착어접사의 단의성을론하기조차 힘들게 되여 있다.

일본어에서는 격조사에 의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의미가 표현되고 있다.

이음조사와 맷음조사, 도움조사들은 동사, 형용사의 어미변화형태뒤에 붙어서 여러 가지 문법적의미, 표현적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조선어와 그밖의 다른 교착어의 접사들이 나타내는 의미적특성과 구조결합적특성은 교착어접사의 범주적의미의 단의성에 대하여 단언해서도 안되고 교착어에 속하는 구체적인 민족어문법서술에 그대로 받아 들여서도 안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교착어들에 대한 보다 심오하고 전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며 그 정식화도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적어도 단의적이라는 말은 문법적범주에서의 단의성으로 정밀화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조선어연구가들 속에서는 교착어접사가 단의성을 가지고 있다는데로부터 조선어토의 특성을 해명하는데서도 직선적으로 받아 들여 단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로부터 조선어격토나 이음토를 비롯한 여러 형태들의 문법적의미와 기능을 규정하려고 하였다.³

문법적의미의 단의성이 교착어일반의 특성인것만큼 교착어에 속하는 조선어도 토가 하나의 문법적의미밖에 나타내지 못한다는것이였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인 경우에는 토가 하나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격토나 맷음토, 이음토가 여러 개의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것으로 분석서술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어토의 문법적기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선어토가 하나의 의미밖에 나타내지 못하는것만큼 구체적인 문장속에서 파악되는 의미는 기능이라고 하면서 문법적의미와 기능, 문법적의미와 사용 등을 인위적으로 갈라 놓고번잡한 리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교착어접사의 단의성을 범주적의미에서의 단의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장속에서 실현되는 토의 일반적인 문법적의미에서의 단의성으로 이해한것이다.

조선어토는 많은 교착어접사들이 문장에서 쓰일 때 여러개의 문법적의미를 표현할수 있듯이 다의적인것이다.

물론 조선어토에는 의미기능적측면에서 볼 때 많은것들이 하나의 문법적뜻을 가진것들도 적지 않지만 문법적다의성을 가진것들도 적지 않다.

적지 않은 교착어연구자들이 교착어접사는 다의적인것이 아니라 단의적인것이라고 하면서 격형태나 용언의 문법적형태가 모두 해당한 형태에서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핀란드와 마쟈르어문법에서는 여러개의 격형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매개 격형태에서 하나의 의미만 나타낸다는것이다. 핀란드어에서는 15개격(주격, 속격, 대격, 태격, 분격, 전격, 내격, 출격, 입격, 접격, 리격, 향격,

3 1. 《조선문화어문법규범》 1976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조선어토의 문법적기능에 대한 연구》 리봉석 1992년 금성정치대학

결격, 공격, 조격), 마자르어에서는 20개격(대격, 여격, 내격, 출격, 입격, 상격, 처격, 위격, 접격, 리격, 향격, 종격, 원인격, 조격, 전격, 태격, 형격, 분격, 반복격, 공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개 격형태는 자기의 고유한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같은 교착어에 속한다는 조선어나 일본어, 몽골어와 구분되는 특성의 하나이다.⁴

우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조선어의 여격토《에》와 위격토《에서》는 서로 넘나드는 관계에 있으며 여격토《에》와 《에게》도 그 사용에서 일련의 차이와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어격조사《ni, ga, io, be》등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일본어격조사《ni》는 장소, 도착점, 시간, 대상, 상태, 결과, 목적 등의 여러가지 문법적뜻을 나타내며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데서 《ni, ga, io, be》등이 통용해쓰일수 있다.

조선어토(접사)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의 다의성은 하나의 토가 여러 문장에서 쓰이면서 여러개의 뜻을 나타내는데서 찾아 볼수 있다.

실례로 조격토《로》의 의미를 살펴 보자.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조격토《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례문, 레구는 간략함)

- ① 동사와 결합하여 그 행동수행의 수단 또는 도구임을 나타낸다. / 대패로 나무를 깎는다.
- ② 동사와 결합하여 그 행동에서 필요한 재료임을 나타낸다. / 종이로 만든 포장곽
- ③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 지는 방향을 나타낸다. / 조국으로 돌아 오다
- ④ 동사와 결합하여 그 행동의 결과 얻어 지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이 밭을 논으로 풀면 좋겠다.
- ⑤ 동사와 결합하여 그 행동의 실현양식, 양상을 나타낸다. / 바쁜 걸음으로 뛰여간다.
- ⑥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그 자격으로 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단발머리 간호원으로 있었던 때의 일이다.
- ⑦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그 행동이나 상태가 실현되는 한정된 시간을 표시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우리는 오전중으로 작업을 다 끝내야 한다.
- ⑧ 주로 동사와 결합하여 그 행동이 일어 나는 원인으로 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 ⑨ 일부 보조적으로 쓰이는 단어《말미암아, 의하여, 하여, 하여금…》등과 결합하기 위하여 쓰인다. / 장마로 말미암아 강물이 불어 났다.

4 《세계언어개요》 박재원 1989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이와 같이 조격토《로》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타내는 《수단, 재료, 방향, 결과, 양식, 자격, 시간, 원인》의 의미와 보조적인 사용의 의미는 모두 행동이나 상태의 수단 및 도구관계를 나타내는 본래의 문법적인 뜻과 유기적인 현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토의 역사적변화발전과 관련된것으로서 토의미의 발전 풍부화과정을 보여 주는것이다. 언어사적인 연구는 이 과정을 얼마든지 밝힐수 있다.

조선어토의 문법적의미의 다의성은 체언토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것이 아니라 용언토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용언토《고》를 들어 살펴 보자.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이음토《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① 두개의 사실이 같은 자격으로 나란히 이어 짐을 나타낸다. /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
- ② 주로 동사에서 쓰이여 뒤의 행동보다 앞선 행동임을 나타낸다. / 일을 끝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다.
- ③ 뒤의 행동에 대한 이미 이루어 진 상황을 나타낸다. / 모자를 쓰고 갔다.
- ④ 뜻이 반대되는 단어로 쌍을 이루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낸다. / 옳고 그른것을 똑똑히 분별해야 한다.
- ⑤ 종속적으로 이어 주면서 근거의 뜻을 나타낸다. / 이악하게 달라붙고 못해 낼 일이 있겠소?
- ⑥ 주로 체언의 용언형에서 도움토처럼 쓰이여 어느것을 가리지 않고 다 포함시킴을 나타낸다. / 무슨 일이고 침착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 ⑦ 같은 단어를 겹쳐서 강조함을 나타낸다. / 넓고 넓은 바다
- ⑧ 일부 보조적으로 쓰이는 단어와 이어 준다. / 책을 읽고 있다.
- ⑨ 《에서고》의 형식으로 겹쳐 쓰면서 그 어느것을 선택함을 나타낸다. / 집에서 고 학교에서고 학습에 열중해 있다.

실례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용언토도 구체적인 문장에서 쓰이면서 여러개의 뜻을 나타낸다. 이때 용언토는 자기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되였거나 전의된 다른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다. 이음토《고》는 두 사실을 나란히 이어 주는 뜻을 기본뜻으로 하여 나머지 7개의 뜻이 생겨 났다.

다의적인 토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구조는 마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서의 의미구조가 기본의미를 기초로 하여 여러개의 의미를 파생하듯이 다의적인 토도 비록 실질적인 어휘적의미는 아니지만 관계적의미를 파생시키는데서 류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어토는 그 어떤 추상적이고 범박하고 포괄적인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다의성은 기능현상이라는데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파볼 필요가 있다.

조선어토가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착어의 접사가 단의적이라는 리론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맥에서 나타나는 토의미의 다의성을 부정하고 문법적 기능이나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선어의 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언어학적인 견지에서 보아도 고려하여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일반언어학적인 견지에서 실질적 단어의 어휘적 의미의 실현 조건과 토의 의미 실현 조건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다의성을 가진 조선어 단어(례전대 『길』, 『손』, 『사람』, 『밥』, 『높다』, 『가다』, 『하다』...)의 어휘적 의미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실현되며 문맥 속에 있는 의미로 단어의 의미 구조가 이루어 지게 된다.

언어 사용과 동떨어진 그 어떤 추상적인 의미 구조가 있을 수 없듯이 문맥 밖에 있는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언어적 단위인 토도 구체적인 사용과 떨어져서 자기의 의미를 체현할 수 있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토나 단어는 하나의 언어적 단위라는 데서는 공통적인 것이다. 단지 그것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는데서, 그리고 자립적으로 쓰이는가 그 어떤 단어의 어간에 붙어 쓰이는가 하는데 따라 구별될 따름이지 하나의 어음복합체로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는데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토와 단어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 과정에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할 수 있으며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것 만큼 그 의미의 변화 발전과 풍부화도 언어 사용, 문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단어의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는 언어 사용, 문맥과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고찰하고 토의 의미는 그것과 다르게 그 어떤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불균형적이고 모순적인 처리로 밖에 설명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어미 변화로 단어의 문법적 형태를 조성하는 유럽언어들에서도 하나의 문법적 형태가 여러 개의 문법적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는 조건에서 문법적 의미의 담당자인 토와 어미를 갈라 토는 문법적 의미를 하나밖에 표현할 수 없고 어미는 여러 개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의적 의미 표현의 가능성을 놓고 말한다면 그래도 하나의 접사인 토가 어미보다 그 확률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속격 토는 다만 『속성』의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휘적 의미의 상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얻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속격 토의 문법적 의미를 그가 붙어 쓰이는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분리 시켜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문법적 의미와 기능도 분리 시켜 놓고 고찰할 수 없다. 문법적 기능은 문법적 의미를 가진 언어적 단위의 기능이며 따라서 그것은 문법적 수단이나 그밖의 언어적 단위를 전제로 한다. 문법적 기능은 문법적 의미가 발현되어 얻게 되는 기능이다.

문법적 의미와 문법적 기능은 일반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구현되는 그런 언어적 현상이 아니다. 『책상』, 『의자』, 『책장』, 『옷장』, 『이불장』의 상위 개념이 『가구』인 것처럼 문법적 기능의 상위 개념이 문법적 의미로 되는 그런 논리적 관계가

아니다. 《공장의 모든 직장》, 《공장의 주인》, 《공장의 설비》, 《공장의 관리운영》등 했을 때의 《공장》과 그 뒤에 오는 단어들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윤리적관계가 아니라 문법적인 관계, 단어들의 상관관계의 한 측면이다. 따라서 문법적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갈라 보면서 상치시켜 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문법적 의미와 문법적 기능은 하나의 현상의 두 측면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음토의 경우에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음토 《고》가 나타내는 문법적 현관관계, 문법적 의미는 언어표현의 객관적 요인이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문법적 의미로만 나타난다고 하면서 토 《고》의 의미는 《선차성》하나뿐이고 《원인, 방식, 동시, 병렬》 등 다양한 의미는 문법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존재의 객관성 원리와 맞지 않으며 구체적인 속에 일반적인 것이 있고 일반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실현된다는 일반원리에 어긋 나는 것이다. 문법적 의미와 문법적 기능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문법적 의미의 실현과정이 곧 기능과정이며 문법적 사용속에 그 의미와 기능이 표현되고 발양되는 것이다. 사실 《선차성》의 문법적 의미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가진 《동시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어의 접사(토)는 문장에서 하나의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문장 속에서 그때그때의 의미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착어의 접사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문장에서 쓰이는 현상은 다른 일련의 교착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예컨대 일본어와 부리야뜨몽골어를 들어 살펴 보자.

일본어의 격조사들은 여러 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어의 속격토 《의》에 대응할 수 있는 격조사 《no》는 ① 소유, 소속, ② 주격, ③ 체언의 자격, ④ 겹침, ⑤ 병렬, ⑥ 대상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어의 여격토 《에》에 대응할 수 있는 격조사 《ni》는 ① 행동, 작용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대상, ② 행동, 작용이 직접 미치는 대상, ③ 행동이나 작용이 진행되는 장소 또는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 ④ 행동, 작용이 진행되는 시간, ⑤ 행동이 가닿는 도착점, ⑥ 행동이 일어 나는 상태, ⑦ 행동이 일어 나는 방도, ⑧ 행동, 작용의 결과, ⑨ 행동의 목적, ⑩ 피동상과 사역상의 출처와 목표, ⑪ 행동의 원인과 리유, ⑫ 병렬, ⑬ 풀이의 강조, ⑭ 비율이나 배합, ⑮ 행동의 기준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⁵

물론 일본어 격조사의 의미는 책에 따라, 필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1976년에 외국문도서출판사에서 발행한 《일조사전》에서는 격조사 《ni》의 의미를 16개로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 격조사의 의미를 몇 개로 보는가 하는데 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의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되지 못한다.

몽골어학자들도 격의미의 다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1962년에 출판된 《부리야뜨

어문법》에서는 생격은 ① 소속, ② 전체와 부분간의 관계, ③ 입장과 태도, ④ 구분, ⑤ 주체, ⑥ 객체, ⑦ 시간, ⑧ 장소, ⑨ 지시, ⑩ 규격 혹은 척도, ⑪ 평가 등 11개의 의미로, 여위격은 ① 행동이 미치는 인물 혹은 대상, ② 행동의 방향, ③ 행동수행의 장소, ④ 행동수행의 시간, ⑤ 피동상 혹은 사역상의 행동을 하는 본리적 주체, ⑥ 목적, ⑦ 원인, ⑧ 《사랑하다》 혹은 《사랑》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술어의 직접적객체, ⑨ 행동이 수행되는 상황 등 9개의 의미로 분석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교착어의 접사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질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적지 않은 경우 언어사실에 맞지 않으며 같은 교착어에 속한 언어들이라고 하여도 천태만상인것만큼 심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단정을 피하여야 한다고 말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어토(접사)의 의미적다의성을 인정하는것은 의미발전의 역사적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는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릇 단어가 부단한 변화발전과정에 있듯이 토 역시 부단히 변화발전하고 있다. 고정불변한 사물이 없듯이 고정불변한 언어적현상도 없다. 변화속도와 기간이 다를지언정 부단히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이 언어적단위들인것이다.

언어에서의 변화발전은 물질적측면인 어음구조에서만이 아니라 어휘와 의미, 문법구조와 문체 등 언어구조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 진다. 이러한 변화발전의 흐름 속에서 토의 의미도 변화발전하는데 새로운 의미의 형성과 본래 의미의 상실, 의미의 풍부화와 축소, 전의와 파생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것이 오늘날의 토의 의미인것이다.

조선어토가 나타내는 의미폭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오늘날 여러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도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예컨대 조격토 《으로》는 대격토 《을》에 《오》가 들어 붙어서 《으로》가 되여 조격토를 산생케 하였는데 처음에는 오늘날의 조격토와 같이 다양한 문법적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것은 대격토 《을》에 붙은 《오》가 부사적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대격토에서 생겨 났던것만큼 처음에는 대격토와 조격토의 미분화상태에 있다가 후에 조격의 의미가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더 풍부화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어에서 주격토 《가》를 비롯하여 많은 토들이 후기에 발생하였으며 그 의미가 발전풍부화되었다.

이와 반면에 토 《에서》와 같이 일부 의미가 소극화되여 의미폭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15세기 후반기에 간행된 《내훈》에는 다음과 같은 실례가 있다.

○ 두터오미 이에서 重호니 업스니라.

《가체률음》 5에도 이와 비슷한 실례가 있다.

○ 이에서 몇몇 훌거시 엽눈자라.

이 예문에 있는 토《에서》는 토《보다》의 뜻으로 쓰이였는데 지난 날에는 많이 쓰이였다. 오늘날에도 《그 영광 이에서 더할소냐!》라는 옛스럽거나 형상적인 글에서 더러 쓰이고 있다. 그러나 토《에서》의 이러한 쓰임은 극히 제한적인것이며 소극적인것이다. 격토《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가운데서 《대비》의 의미는 그후 토《보다》에 넘겨 주고 자기의 뜻구조에서 없애버렸다고 말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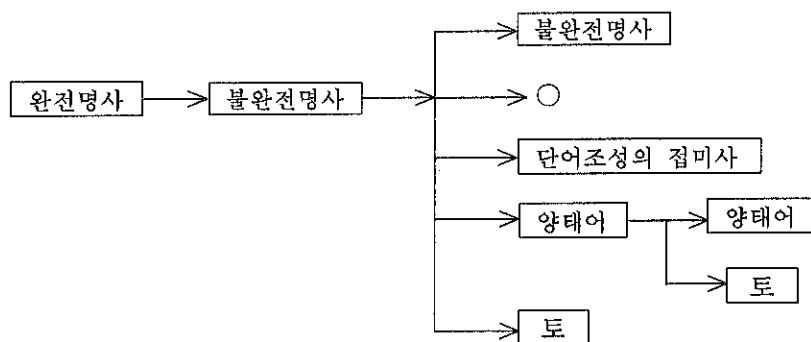
이와 같이 조선어토는 자기 발전의 일정한 특성에 따라 적지 않은것들이 의미가 변화되여 왔는데 이것은 조선어토의 의미가 단의적인것인가 다의적인것인가 하는것을 규정하는데서 웅당히 관심을 두어야 할 측면인것이다. 더구나 교착어에서 문법적형태조성의 기본수단인 접사가 많은 경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자립적단어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결부시켜 볼 때 접사의미의 다의성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교착어에서 접사의 형성과정은 단어의 문법화과정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이 문법화과정은 의미발전의 여러 단계와 그 과정을 보여 준다. 그런것만큼 이러한 언어적단위들에서는 자기의 기본의미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전의된 그리고 문법화된 여러 의미들을 찾아 볼수 있는것이다.

교착어에 속하는 바슈끼르어에서는 자립적단어에서 보조적단어, 보조적단어에서 후치사, 후치사에서 접사가 형성되었는데 그 모습은 정연하고 뚜렷한것이다.⁶

조선어는 교착어에 속한 언어인것만큼 실직적단어의 문법화과정이 존재하는데 다양한 발전로정을 보여 주는것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조선어에서의 전형적인 문법화과정은 보조적명사 즉 불완전명사의 산생 및 추상화에서 찾아 볼수 있다.

불완전명사의 역사적발달정형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보여 줄수 있다.⁷



6 앤. 까. 드미뜨리예브 《바슈끼르어문법》 로문판 1948년

7 구체적인 설명은 《조선어의 보조적단어에 대한 연구》(정순기 1988년 과학백과 사전출판사)를 참고할것

오늘날 많이 쓰이는 토들인 《데, 데도, 는데, 는바, 르지라도, ㄴ즉, ㄴ지, 르망정, 르소나, 르수록》등은 불완전명사 《데, 바, 즉, 지, 망정, 사》등과 규정토 《ㄴ/는, 르》등이 결합된것으로서 본래의 불완전명사가 가지고 있던 의미의 혼적을 오늘날에도 남기고 있다. 토 《ㄴ데, ㄴ데도, ㄴ즉, ㄴ지, 르망정》 등에서는 2개의 의미를 분석해 낼수 있다.⁸

이와 같이 조선어에서 불완전명사의 역사적음직임은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의미변화의 혼적을 실질적단어의 변화형태인 불완전명사에 만이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문법화된 토에도 남기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불완전명사가 가지고 있던 어휘적의미로부터 그것이 들어 가 있는 합성토의 의미도 여러개로 표현되는 것은 토의미의 다의성을 본증하는데서 하나의 근거로 된다.

이상에서 이야기된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접사의 의미적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선어의 언어사실을 전면적으로 짚어 있게 분석서술할뿐만아니라 다른 일련의 교착어들과의 대비속에서 밝혀야 한다. 교착어일반의 특성도 조선어나 그밖의 다른 교착어에 내재하는 언어법칙과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우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과 관점에서 조선어접사, 나아가서 교착어접사의 의미적특성을 밝히려고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수 있었다.

우선 교착어접사의 단의성에 대한 정식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교착어접사의 단의성은 범주적의미에서의 단의성으로 수정정밀화되어야 한다.

교착어접사의 단의성을 범주적의미에서의 단의성으로 이해한다고 하여도 조선어와 일부 다른 교착어에서 용언형의 문법적의미가 단의적인것이 아니기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선어의 용언맺음토는 법과 말차림 지어 일부 경우에는 시간의 문법적의미를 한개 형태로 나타내며 몽골어에서는 법과 인칭 등 2개의 범주적의미가 한개 형태로 표현된다. 조선어의 시간토와 규정토 같은 것은 그가 붙어 쓰이는 단어의 품사적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조선어의 일부 격토도 자기 격의 고유한 의미만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다른 격의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굴절어에서 성, 수, 격 등의 의미가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면서 다의적인것으로 되는데 반하여 교착어접사는 수와 격의 의미가 각각 따로 분리되어 다른 형태로 표현된다는것도 조선어의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교착어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정밀화되어야 한다.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는 문법적범주로서의 수범주가 없는것만큼 굴절어에 대응해서 문제자체를 설정할수 없으며 조선어나 몽골어 같은 언어에서는 복수범주가 불철저하고 순수하지 못하며 그 의미가 복수의 의미만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보충적의미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것만큼 고려할 측면들이 없지 않다. 토(접사)의 결

8 이 토들의 구체적인 의미분석은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할것

합구조적특성이 특이하고 하나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개의 문법적 형태가 준비되어 있으며 절대격형태가 발달되어 있는것만큼 교착어접사는 규격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는 일반적원리에 기초하여 조선어접사의 특성을 밝히기 곤난하다. 따라서 조선어접사도, 교착어접사도 그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단의적이며 규격화되고 고정된 형태라고 단정하기가 힘든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어(접사)의 일반적문법적의미에서조차 단의성을 주장하면서 문법적 의미의 다의성을 부정하는것은 조선어의 언어현실에 맞지 않는것이며 다른 일련의 교착어문법에서 말하고 있는 교착어접사의 의미적다의성리론에도 맞지 않는것이다.

문법적의미와 문법적기능은 유기적인 통일속에 있으며 그 어떤 상위질서와 하위 질서로 갈라 지는 문법적개념이 아닌것이다. 문법적기능에서 문법적수단을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듯이 문법적수단이 담고 있는 문법적의미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문법적기능은 문법적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적수단이 수행하는 기능이며 문법적의미가 표현되면서 수행하게 되는 기능이다. 문법적의미는 일반적인것이고 문법적기능은 구체적인것으로 보아서도 안된다. 문법적의미와 문법적기능은 함께 존재하고 실현되는 한개 사물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인것이다. 문법적의미는 구체적인 문장속에서 여러가지 의미로 실현될수 있다. 문법적의미의 실현조건과 구체적인 표현형태는 실질적인 어휘적의미를 가진 단어들에서와 같이 통일적과정으로 고찰하는 것이 옳은 입장이고 연구방법인것이다.

<참고문헌>

- 《조선어문법(1)》 1960년 과학원출판사
- 《현대조선어(2)》 김수경, 김백련 1962년 고등교육도서출판사
- 《조선문화어문법규범》 1976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조선문화어문법》 1979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어리론문법(형태론)》 리근영 1985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어문법》 김용구 1989년 사화과학출판사
- 《조선어의 보조적단어에 대한 연구》 정순기 1988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어토의 문법적기능에 대한 연구》 라봉석 1992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Введение в языкознание》 А.А. Реформатский Москва. 1960 г.
- 《Сравнительная грамматика монгольских языков》 И. Г. Д. Санжеев Москва. 1953 г.
- 《Грамматика бурятского языка》 Г. Д. Санжеев Москва. 1962 г.
-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70 г.
- 《Грамматика башкир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1948 г. Н.К. Лмитриев
- 《Грамматика нанайского языка》 И.П. В.Аворин Москва. Ленинград. 1961 г.
-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А. Холодович Москва. 1954 г.
- 《大日本百科事典》 第二版 七. 十四. 昭和49年
- 《일본어문법》 차용찬 1977년 외국문도서출판사

『일본어격조사에 대한 연구』 최구봉 1991년 인민대학습당

『세계언어개요』 박재원 1989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일본어조사에 대한 연구』 김광렬 1992년 인민대학습당

조선식한문의 특성고찰

최동언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중국 한족(漢族)의 글자인 한자와 접촉하고 그것을 받아 들여 서사수단으로 리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문을 단순히 서사수단으로 리용하기만 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말 구조에 접근시켜 여러 측면에서 보충풍부화시켰다.

그런데 다른 나라 글을 서사수단으로 리용하는 과정에는 그 속에 우리의 고유한 구두어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 들지 않을수 없었고 우리의 구두어구조가 서사어에 반작용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런 사정과 관련하여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의 적지 않은 민족고전(民族古典)들에는 독특한 조선식한문투가 반영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은 중국사람들이나 인디아사람들이 쓰고 있는 한문투와는 차이나는 독특한 한문투, 리두가 섞인 한문투로 써여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선식한문의 본질적내용은 일반한문투와는 다른 독특한 한문투, 리두(吏讀)가 섞인 한문투라는것이다.

한문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글자와 어휘, 문장의 여러 측면에서 자기의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문을 끌어다 서사수단으로 쓰는 경우 결코 그것에만 구애되는것이 아니고 이려저려한 자기식 보충과 수정을 가하게 되는것은 불가피한것이다. 같은 하나의 언어인 경우에도 장구한 기간의 내적발전과정에 어차피 그러한 변천이 있기 마련인데 더구나 한 나라의 서사어를 다른 나라에서 서사어로만 받아 들여 쓰는 경우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문을 서사수단으로 쓰면서 한문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적지 않은 보충을 가하였다. 글자와 어휘들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그것들에 새로운 뜻이나 음을 보충하고 한자음을 우리 어음체계에 복종시켜 끊임없이 변화시켰으며 한문문장을 우리 말 문장구조에 접근시켜 우리 말 어순으로 만들고 자기식 읽기방법을 고안하여 냈을뿐아니라 독특한 서사체계인 리두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조선식한문이 생겨 나고 그것이 우리 고전문현들에 반영되게 된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식한문의 본질적특성은 리두가 섞여 있고 우리 나라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한문의 요소들이 일반한문가운데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 점이다.

조선식한문의 중요한 내용은 리두가 섞여 있는 한문투라는것이다.

리두란 우리 선조들이 한문을 서사수단으로 쓰면서 한자의 뜻이나 음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적은 독특한 서사방식이다. 리두는 우리 나라에서 먼 옛날에 발생하여 오

래동안 쓰이여 오는 과정에 리두자, 리두어, 리두토 등 내용을 포괄하게 되였으며 리두식문장까지도 나오게 되였다.

리두는 그 본질과 구성으로부터 일반한문과 쉽게 융합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리두 그 자체가 물론 한문과 구별되지만 그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기성한자들이다. 우리 말을 적는데 리용한 글자의 뜻과 음은 바로 다름아닌 한자의 뜻과 음이였으며 새로 만든 리두자인 경우에도 글자의 구성부분은 물론 뜻과 음도 주로는 기성한자의 뜻과 음을 융통하여 반영하였고 지어 정음자의 받침결합형식으로 만들어진 리두자까지도 그 구성부분은 대부분이 기성한자였다. 따라서 그것들은 혜외없이 한자의 외피를 쓰지 않을수 없었다.

리두어인 경우에도 그 조성에 참가하고 있는 글자들은 원칙적으로 한자나 한자의 외피를 쓰고 있는 리두자이며 리두문장도 어순에서 차이가 날뿐 기사수단은 모두 한자와 리두자였고 문장구성에 들어 간 어휘들은 모두 한자어나 리두어였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리두는 일반 한문속에 쉽게 침투될수 있었고 그것과 자연스럽게 융합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리두가 섞인 한문투, 조선식한문이 생겨 나게 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리두적요소들이 섞이여 있다는 점이 조선식한문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것이다.

조선식한문의 다른 하나의 내용은 우리 나라에서만 특수하게 쓰이는 한문요소들이 일반한문속에 섞여 있는 한문투라는것이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일반한자모양의 글자나 일반 한자어형식의 어휘들은 우리의 민족고전들에서만 국한되어 쓰이고 있는 점에서 일반한자나 일반한자어휘와는 구별되며 또 리두적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리두자나 리두어와도 구별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나 어휘라고 하여 그것을 일괄적으로 리두자나 리두어로 간주한다는것은 그 타당성이 납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어진 글자나 어휘들이 리두자나 리두어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은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나 어휘인가 아닌가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들속에 리두적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있지 않은가 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글자나 어휘들은 따로 하나의 부류로 둑어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조선고유한자나 조선고유한자어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식한문의 다른 하나의 내용으로 우리 나라에서만 특수하게 쓰이는 한자나 한자어휘들을 들게 되는것이다.

이제 조선식한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글자

— 순수리두자

- 僕, 檻, 級, 蔡, 枇

- 智, 哲, 蕤
- 爲, 杏
- 기성한자에 뜻과 음이 보충된 글자
 - 庫, 衿, 德, 淸, 員
 - 上, 城, 召, 史
 - 干, 鞍, 淢, 穢, 檻
- 조선고유한자
 - 嘴, 鐸, 鰐, 檻, 桀

△ 어휘

- 순수리두자가 섞인 리두어
 - 烤音, 獄皮, 吠匠, 人嬖, 枳木
- 기성한자에 뜻과 음을 보충한 글자가 섞인 리두어
 - 家代, 衿記, 鞍鞋, 鹿茸, 海蘆
- 조선고유한자어휘
 - 去骨匠, 舉條, 東軒, 嘴殺, 知家

△ 문장

-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
 - 西邊牆基今日親見近處居人搜出
- 혼합식어순으로 된 문장
 - 箭串牧馬三百匹分給禁軍

필자는 조선식한문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글자, 어휘, 문장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 일련의 문제점들에 류의하였다.

1. 글자의 측면

우리 나라에서는 한자를 서사수단으로 쓰면서 한자구성의 기본요소들인 글자의 모양, 글자의 뜻, 글자의 음 등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보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여러 면의 보충을 하는데서는 어디까지나 한자 자체의 내적법칙에 의거하면서도 우리의 고유한 언어의식, 언어관습과 언어구조의 반작용을 받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글자의 새로운 보충에는 조선식의 독특한 측면, 색채들이 반영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점이 글자의 측면에서 고찰할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다른 한편 오랜 역사적기간을 두고 내려 오면서 만들어 지고 써온 한자에 새로운 보충을 하는데서는 어차피 그것이 한자와 전혀 생소한 일종의 새 문자가 아닌 이상 기성한자들의 제약을 받지 않을수 없으며 기성한자들과의 내적 및 외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 날수 없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로부터 새로 보충한 글자들에 대한 고찰에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옹당 류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 보충한 글자들에 대해서는 새로 만든 글자, 새 뜻과 새 음을 보충한 글자, 글자의 모양을 고친 글자 등 측면에서 고찰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들에는 외적징표로 보아 일반한자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정음자의 받침결합형식으로 만들어 진 리두자들이 속하며 조선고유한자로 볼수 있는 글자들도 속한다.

새 뜻과 새 음을 보충한 글자들에는 새 뜻만 보충된 한자와 새 음만 보충된 한자, 새 뜻과 새 음이 함께 보충된 한자들이 속하고 모양을 고친 글자들에는 조선고유의 간략자들이 속한다.

1) 새로 만든 글자들 가운데서 구조상 일반한자와 구별이 없는것들은 한자의 일반적 조성원리에 따라 만들어 졌다.

새로 만든 글자들도 일반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형성자(形聲字)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 졌으며 회의자(會意字)가 극히 드물게 있을뿐 상형자(象形字)는 없다.

형성자: 檻, 繁, 垈, 鐏, 蟠, 帖, 樵

회의자: 耷

형성자인 경우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놓이는 위치나 음을 나타내는 훌자의 음이 겹자의 구성속에 들어 갈 때 부분적으로 변하는것과 같은 점들은 일반한자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단지 《楓》자와 같이 음을 나타내는 훌자인 《瓜》의 음이 그 겹자의 음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그 훌자의 뜻이 겹자의 음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점이다.

2)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들 가운데서 그것을 조선고유한자로 보는가 아니면 리두자로 보는가 하는 판별이 명백치 않은것들도 있다.

원래 한자를 서사수단으로 쓰는 나라들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기식의 고유한 한자형식의 글자를 만들어 쓸수 있는것이다. 일본인 경우 국자(國字)라고 하여 자기 특유의 글자를 만들어 쓴 것이 그 한 실례로 된다.

우리 나라에도 리두적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조선고유한자들이 있는데 《囂》이나 《闔》등과 같은 글자들을 들수 있다. 이런 글자들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밀몰아 리두자로 취급하였는데 아직 보다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 하나의 문제점으로 된다고 보아 진다.

3)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들 가운데서 정음자의 받침결합형식으로 이루어 진 것들은 그 구조와 음표시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으로서 조성원리가 정음자의 활용과 유사하며 지어 우리 글자의 자음자들이 받침형태로 결합된것들까지 있다.

이런 부류의 글자들로는 기성한자의 아래에 우리 글자의 자음자를 받침형태로 붙인 《특》, 《ಡ》등과 구결자(口訣字)를 받침형태로 붙인 《哿》, 《哿》, 《哿》, 《哿》등과 한자 《乙》, 《音》, 《邑》, 《叱》등을 받침형태로 붙인 《哿》, 《哿》, 《哿》, 《哿》등이 있다.

이런 글자들에서 끝소리는 받침형태로 붙은 글자들의 음 곧 《ㄱ》와 《ㄴ》(ヰ), 《ㄹ》(乙), 《ㅁ》(音), 《ㅂ》(邑), 《ㅅ》(叱)이며 끝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 글자들은 그 글자의 한자음이나 그 글자의 뜻으로 읽는다. 《薨》, 《哿》, 《薨》, 《薨》등은 각각 《돌》, 《감》, 《곱》, 《잇》과 같이 한자음으로 읽고 《薨》, 《薨》, 《薨》, 《薨》등은 각각 《글》, 《돌》, 《발》(별), 《굿》(끝)과 같이 한자의 뜻으로 읽는다.

『리조실록』에서는 우에서 든 받침형태로 결합된 글자들이 나오기전에 《加乙》, 《石乙》, 《件乙》, 《內隱》, 《古音》, 《者叱》등의 형식으로 받침형태가 분리되어 2개의 글자로 널리 쓰이였는데 이런 형식은 이미 세 나라때의 일련의 향가(鄉歌)들에서 그 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받침형태로 가장 널리 쓰인 글자들로는 《隱》, 《乙》, 《音》, 《邑》, 《叱》, 《應》과 같은것들을 들수 있는데 《隱》은 《ㄴ》, 《乙》은 《ㄹ》, 《音》은 《ㅁ》, 《邑》은 《ㅂ》, 《應》은 《ㅇ》에 대응되었다. 《叱》은 문헌적 자료들에 의하면 현행 우리 글 받침들인 《ㄱ》, 《ㅅ》로 통용되고 《ㅂ》로 쓰인 경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ㅅ》로 많이 쓰이였다.

ㅅ : 肅(굿), 蔷(놋), 肇(좆) [리조실록]

余叱(엿) [향약집성방]

ㄱ : 林巨叱正 (림꺽정) [리조실록]

卧叱多太 (왁대콩) [금양잡록]

ㅂ : 仍叱菜 (넘나물←넙나물) [향약집선방]

이 부류의 글자들은 전형적인 리두자로서 고전문헌들에서 사람이름, 고장이름, 물건이름들에 많이 쓰이였다.

4)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들은 그 음과 뜻을 바로 판명하거나 찾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다.

새로 만든 글자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음보다 뜻을 기본으로 만들어 졌을것이며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글자가 다 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례를 들어 《法》자는 원래 음을 알지 못하는 글자로 알려 졌으며 이 글자를 받아 실은 중국책 《자휘보》(字彙補)에서도 이 글자의 음을 밝히지 못한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8권에는 《法村處》가 나오는데 그 주석에서 이 글자는 옛날과 지금의 운서(韻書)들에 실려 있지 않고 음이 없다고 하였으며 《자봉류설》(芝峯類說)에서도 그 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

다.

이처럼 여러 문헌들에서 이 글자의 음을 밝히지 못하였거나 심지어 음이 없다고 까지 하였다.

그런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藁) 44 권에서 그 음을 『겁』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글자의 음이 처음으로 알려 지게 되었다. 이 글자만이 아니라 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인 『岵』, 『榆』, 『逈』 등과 같은 글자들도 반드시 처음부터 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후기에 와서 한자조성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그 음을 붙였거나 추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새로 만든 글자들은 음을 바로 판명하기 어려울뿐아니라 그 뜻도 밝혀 내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다.

우에서 든 『法』자에 대하여 『순오지』(旬五志)에서는 멜나무의 단이 차지 않는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지봉류설』에서는 반대로 멜나무의 단이 큰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쇠나무처럼 묶은 풀단을 말하는데 『茲乙阿』로 세긴다고 하였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子乃』라고 하였으며 『리두편람』(吏讀便覽)에서는 멜나무 1단이라고 해석하면서 『즈래』로 읽었다. 『주영편』(晝永篇)에서도 쇠나무를 묶은것이라고 하면서 『자래』라고 읽는다고 하였다.

이상 자료들을 종합하면 『순오지』와 『지봉류설』에서는 그 뜻을 서로 상반되게 해석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리두편람』, 『주영편』의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멜나무단이나 풀단에 귀착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고유말은 『茲乙阿』, 『子乃』, 『즈래』, 『자래』등으로 서로 달리 표기되어 있지만 구경은 『자래』로 일치되고 있다.

그러면 『자래』라는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말로 무슨 물건을 묶는 줄을 『자리기』라고 하는데 『자래』란 바로 이 『자리기』로부터 나온 말이거나 이 『자리기』의 음이 변한것으로 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자래』란 나무나 풀단을 묶는 묶음줄 또는 그것으로 묶은 나무단이나 풀단으로 추정할수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군정편에서는 『吐木一百法乃』라는 글이 나오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는 『山城積草…以四束爲一法乃』라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法乃』는 바로 『자래』에 대한 한자의 뜻과 음 표기로서 장작단이나 풀단의 단위를 말하는것이다.

- 5)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들은 개별적인 글자로 쓰일뿐아니라 어휘조성에도 비교적 적극 참가한다.

𦨇: 艦舶船

畠: 田畠

麌: 麌皮

垈: 家垈, 空垈

楓: 楓木, 楓壁

峯: 峰記

峯: 東峯

峯: 鐵絲峯

峯: 老外太

- 6) 기성한자에 새로 뜻과 음을 보충한 글자들은 그 부류에 따라 각이한 특성을 가진다.

새 뜻만 보충된 글자들은 그 글자의 한자음과 같거나 류사한 음으로 된 고유어 뜻이 보충된 경우도 있고 그 글자의 뜻과 같거나 류사한 음으로 된 새로운 고유어 뜻이 보충된 경우도 있다.

첫째 경우:

庫 음이 《고》, 보충된 뜻이 《곳》

德 음이 《덕》, 보충된 뜻이 《덕》(더기)

分 음이 《분》, 보충된 뜻이 《분》(한분, 두분)

둘째 경우:

衿 뜻이 《깃》(옷깃), 보충된 뜻이 《깃》(돛)

縛 뜻이 《얽다》(얽어 메다), 보충된 뜻이 《얽다》(얼굴이)

尺 뜻이 《자》, 보충된 뜻이 《자이》(쟁이)

새 음만 보충된 글자들은 그것이 리두어의 조성에 들어 갈 때 원래의 한자음과 다른 음을 가지게 된다. 《上》자가 《還上》나 《上下》에서 각각 《환자》나 《차하》로 되고 《召》자가 《召史》에서 《조이》로 되는것과 같은 경우이다.

뜻과 음이 함께 보충된 글자들은 《轂》, 《櫟》, 《洑》과 같이 대체로 형성자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뜻과 음이 보충된다. 《轂》자에는 《비단신》이라는 새 뜻과 《깁》이라는 새 음이 보충되고 《櫟》자에는 《덕》(더기)라는 새 뜻과 《덕》이라는 새 음이 보충되고 《洑》자에는 《보》(보뚝)라는 새 뜻과 《보》라는 새 음이 보충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특징적인것은 새로 보충된 뜻과 음이 일치되거나 류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우에서 든 글자들은 뜻과 음이 일치되거나 류사한 경우라면 《韁》자에 《말다래》라는 새 뜻과 《점》이라는 새 음이 보충되고 《杻》자에 《싸리》라는 새 뜻과 《축》이라는 새 음이 보충되고 《葺》자에 《버섯》이라는 새 뜻과 《이》라는 새 음이 보충된것 같은 뜻과 음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이다.

- 7)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인가, 기성한자에 새 뜻과 음을 보충한 글자인가 하는 판별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경우들이 있다.

새로 만든 글자의 대부분(정음자의 받침결합형식으로 이루어 진 글자들은 예외이다.)이 한자조성의 일반적원리에 의하여 만들어 진만큼 그 외적인 모양으로 보아서는 일반한자와 별반 차이점이 없으며 더구나 어떤 나라에서 한자모양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에 기성한자속에 그런 글자가 없다는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만든다고도 말할수 없는것이다.

이런 리유로부터 이미 있는 한자와 꼭같이 생긴 글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다른 나라의 자서(字書)나 운서(韻書)에 실려 있는 글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임을 부인하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

례를 들면 《廣韻》자에 대하여 《오주연문장전산고》 21 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로 보았다. 물론 이 글자를 《족제비》라는 뜻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자기가 만든 새로운 글자로 이해하였을수도 있지만 중국의 운서들인 《광운》(廣韻), 《집운》(集韻), 《정운》(正韻)들에 이미 이 글자가 올라 있다. 《광운》에서는 이 글자의 뜻을 《개》라고 하였고 《집운》과 《정운》에서는 이 글자의 음을 《광》이라고 밝혔다. 이것으로 보면 이 글자는 이미 만들어 져 있은 기성한자이고 이 글자의 《족제비》라는 뜻만은 우리나라에서 새로 보충한것으로 볼수 있을것이다.

또 《逵》자나 《頤》자 같은 글자들은 모두 다른 나라의 자서에 실려 있지만 일반한자로 보아서는 안되며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로 보아야 한다.

《逵》자는 중국 청나라 때에 나온 자서인 《자휘보》에 올라 있고 그 책에서는 이 글자의 음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국여지승람》에서 이미 이 글자를 쓰면서 이 책에서도 이 글자의 음을 모른다고 하였다. 결국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로서 다시 중국의 자서에 오른것으로 추정된다.

《頤》자도 《자휘보》에 올라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음은 《이》, 뜻은 《턱》또는 《기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보다 먼저 나온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에서 이 글자를 쓰고 있으며 《리두편람》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글자가 없었다고 하였고 《목민심서》(牧民心書) 11 권에서는 이 글자를 속자(俗字)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근대에 나온 사전들인 《사원》(辭源)과 《사해》(辭海)에는 이 글자가 올라 있지 않고 일본에서 나온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서도 글자만 올리고 《자휘보》의 주석을 옮겨 놓았을뿐 이 글자로 만들어 진 단어는 한개도 올리지 못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 글자가 실지 언어생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우연히 만들어 졌거나 혹은 《頤》자의 변형자가 아닌가 짐작되게 한다. 요컨대 이 글자는 다른 나라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들어 낸 글자로 보아 진다.

8) 우리나라의 민족고전문헌들속에는 한자의 일반적인 간략자와는 달리 우리나라

에서 특별히 변형시킨 조선고유의 변형자, 간략자들도 나타나 있다.

획수가 복잡한 한자에 대하여 그 획수를 줄여서 글자의 모양을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진행되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고전문헌들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간략화하여 변형시킨 글자들이 일부 보이는데 이것을 일반 간략자와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祺》, 《逖》, 《狃》, 《狃》, 《侖》, 《侖》, 《𠂇》, 《𠂇》, 《𠂇》, 《𠂇》 등은 각각 《麒》, 《逃》, 《獨》, 《麟》, 《幕》, 《暮》, 《夢》, 《墓》, 《風》 등의 변형자, 간략자이다.

2. 어휘의 측면

우리 나라에서는 한자를 받아 들여 서사수단으로 쓰면서 글자와 마찬가지로 어휘에 대해서도 새로운 보충을 가하였다. 어휘에 대한 보충은 글자에 대한 보충에 비하여 훨씬 적극적이였다.

새로 보충한 어휘들에 대해서는 일반한자로 만든 조선고유한자어휘, 우리나라에서 새로 보충한 글자들을 섞어 만든 어휘, 고유말이나 다른 나라 말의 한자표기어휘 등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휘는 글자에 의하여 표기되고 일정한 구조와 뜻과 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보충한 어휘는 그 사용범위로 보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족과 고전들에서만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 고찰에서는 어휘조성에 참가하는 글자의 성격에 관한 문제가 일반한자어휘에 비하여 보다 큰 의의를 가지고 어휘조성과 어휘의 성격 등에 대한 고찰에서도 일반한자어휘보다는 새로운 측면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자의 외피를 쓴 한자표기어휘에 대한 고찰에도 웅장한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1) 우리나라에서 새로 보충한 어휘는 그 조성에 참가하는 글자들의 성격에 따라 일반한자어휘와 차이 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의 글자로 자기 나라의 구두어를 적는에서는 그 글자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글자를 받아 들여 서사수단으로 리용한 우리 선조들은 한자를 모양, 뜻, 음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롭게 보충하고 그것을 어휘조성에 널리 받아 들이였다.

이로부터 새로 보충한 어휘에는 일반한자로 만들어 진 어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와 기성한자에 뜻이나 음을 보충한 글자들이 함께 섞이여 만들어진 어휘들이 포함되게 되었으며 지어 정음자의 받침결합형식으로 새로 만들어 진 글자들이 섞이여 만들어진 어휘들까지 들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전형적인 리두어로 된다.

—일반한자로 만든 어휘

去骨匠(거골장), 東軒(동헌), 兩班(량반), 所志(소지), 知家(지가)

- 뜻과 음을 보충한 글자를 섞어 만든 어휘
家代(가대), 鹿茸(록용), 卜馬(복마), 分衿(분깃), 鞍鞋(갑해)
- 일반한자모양으로 새로 만든 글자를 섞어 만든 어휘
傍音(다짐), 紋皮(돈피), 嘴殺(람살), 田畠(전답), 椅木(의목)
- 정음자의 반침결합형식으로 새로 만든 리두자를 섞어 만든 어휘
龜非(고비), 舛記(발기), 東塗(동음줄), 周嘸(주걱), 鐵絲塗(쇠사슬)

전형적인 리두어들인 경우에는 그것을 읽는데서 일련의 복잡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 어휘조성측면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 어휘조성측면에서 보아 일반한자어휘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대상이나 현상을 반영하여 만든 어휘와 우리의 고유말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표기한 어휘들이 있다.

그중에서 새로 만든 어휘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한자표기어휘들은 단지 한자의 외피만 뒤집어 쓴 고유말이나 다른 나라 말들이다.

- 새로 만든 어휘

- 舉條(거조), 南行(남행), 奉足(봉족), 歲抄(세초), 遷晚(지만)
- 고유말을 한자로 표기한 어휘
古介(고개), 把子(바자), 雪馬(설매), 小時郎(쇠스랑이), 赤衫(적삼)
- 다른 나라 말을 한자로 표기한 어휘
沙吾里(역참), 時麻(섬), 波吾達(군영), 耶羅(복수하다), 伊板(소)

- ② 어휘조성수법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어휘들에는 일반한자어휘조성에 적용되는 수법들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결합법

立役, 卜定, 四標

- 융합법

告課, 所志, 解由

- 불임법

去骨匠, 鞍鞋匠, 烽火干, 生鮮干

- 줄임법

吏判 ←吏曹判書, 兵使 ←兵馬節度使

憲府 ←司憲府, 諫院 ←司諫院

鳥竹嶺 ←鳥嶺竹嶺

三甲 ←三水甲山

우리 고유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한자로 표기한 어휘들은 해당 언어의 어휘조성 수법 그대로임으로론의할것이 못된다.

- ③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조선고유한자어휘들은 하나의 대상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별칭을 가지거나 몇개의 대상이 하나로 통일되어 불리우는 통칭을 가지는 것이 적지 않다.

—별칭을 가지는 경우

吏曹-東銓

兵曹-西銓

備邊司-備局, 簿司

司憲府-栢府

司諫院-徽院

承政院-銀臺, 候院

承文院-槐院

弘文館-玉堂

藝文館-藝閣, 藝館

大司憲-憲長

大司諫-諫長

觀察使-監司, 道臣, 道伯

咸鏡道-關北

平安道-關西

江原道-關東

黃海道-海西

忠清道-湖西

全羅道-湖南

慶尚道-嶺南

京畿-畿甸

—통칭을 가지는 경우

六曹(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工曹)

兩司(司憲府, 司諫院)

三司(司憲府, 司諫院, 弘文館)

三館(成均館, 藝文館, 校書館)

三省(刑曹, 司憲府, 司諫院)

四館(成均館, 藝文館, 承文院, 校書館)

三使道(監司, 兵使, 水使)

兩西(關西, 海西)

兩湖(湖西, 湖南)

兩南(湖南, 嶺南)

三南(湖西, 湖南, 嶺南)

- ④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어휘들중에는 하나의 어휘체계를 이루고 있는것들이 많다.

-무엇을 주는것과 관련된 어휘

決給, 面給, 分給, 賦給, 定給, 劃給

-노비점유와 관련된 어휘

據執, 濫執, 分執, 合執, 永執, 仍執

-임금의 접견과 관련된 어휘

獨對, 輪對, 召對, 次對, 請對, 夜對

-관청모임과 관련된 어휘

交坐, 齊坐, 合坐, 會坐

-과거시험과 관련된 어휘

初試, 覆試, 殿試, 監試, 鄉試, 庭試

-벼슬품계와 관련된 어휘

堂上, 堂上; 參上, 參下

-문서와 관련된 어휘

衿記, 件記, 重記; 宣頭案, 先生案, 形止案

-형별과 관련된 어휘

絕島安置, 圍籬安置; 自願付處, 中道付處, 遠方付處

-봉족과 관련된 어휘

吏保, 通引保, 營匠保

-일정한 계층, 부류와 관련된 어휘

去骨匠, 毛衣匠, 啄匠, 水鐵匠, 熟皮匠, 靴匠; 金直, 卜直, 山直, 廳直; 琴尺, 山尺, 水尺, 津尺, 海尺; 豆腐干, 毛物干, 烽火干, 生鮮干; 哭婢, 問安婢, 水賜婢, 針線婢

-물건과 관련된 어휘

家蓼, 山蓼, 尾蓼, 體蓼, 生蓼, 熟蓼, 江蓼, 東蓼, 北蓼, 貢蓼, 貿蓼, 信蓼, 稅蓼; 藥精紙, 柳木紙, 麻骨紙, 楮注紙, 草注紙

이와 같은 어휘체계는 사람이름에도 일정하게 존재한다.

-남자이름

鬱金, 夏金, 蕤金; 龜同, 龜同; 喜山, 壽山, 寧山, 葆山

-녀자이름

玉今、綠今；三德、中德；江非、香非；栗伊、粉伊

3) 어음론적측면에서 새로 만든 어휘를 읽거나 고유말표기의 한자의 음을 읽는데서 일련의 복잡성이 제기되고 있다.

① 새로 만든 어휘들은 대부분 한자음 그대로 읽게 되지만 일부 달라 진 한자음이나 한자뜻으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례를 들면 《帖字》, 《牌字》, 《爻周》등은 원래의 한자음으로는 각각 《첩자》, 《폐자》, 《효주》이지만 문헌적근거에 의하면 각각 《체지》, 《배지》, 《소주》와 같이 달라 진 한자음으로 읽었으며 《爻周》와 같은 경우에는 《옛더로》로 읽기까지 하였다.

또한 《衿給》, 《衿得》, 《立塵》, 《件記》, 《尺丈》, 《紅箭門》, 《魚箭》등은 원래의 한자음으로는 각각 《금급》, 《금득》, 《립전》, 《건기》, 《척문》, 《홍전문》, 《어전》이지만 어휘조성에 참가한 일부 글자들은 음이 아니라 뜻으로 읽어 각각 《깃급》, 《깃득》, 《선전》, 《발기》, 《자문》, 《홍살문》, 《어살》로 읽었다는 문헌적근거가 있다.

그리고 《捧上》, 《還上》, 《上下》, 《召史》의 일부 글자들은 달라 진 음으로 읽어 각각 《받자》, 《환자》, 《차하》, 《조이》라고 하였다.

② 고유말을 적은 일부 한자들의 음도 원래의 한자음과 달라 읽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면 《阿只》, 《波獨只》, 《月老只》등의 《只》자의 한자음은 《지》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기》라는 리두음으로 매우 널리 쓰이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서 《役只》를 《아기》로 읽은것을 비롯하여 리두토들에서 《只》를 《기》로 읽었으며 《향약집성방》에서는 《遠志》를 《阿只草》라고 쓰고 《아가풀》이라고 밝혔으며 《금양잡록》(衿陽雜錄)에서는 《多多只》를 《다다기》라고 하고 《白黔夫只》를 《환 검부기》라고 하였다.

그리므로 우에서 든 어휘들은 각각 《아기》, 《바도기》(바둑), 《다로기》(도로기)로 읽어야 하는것이다.

4) 우리의 고유말 한자표기애 대한 고찰에서 몇가지 류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다.

① 고유말 한자표기류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되여 있다.

- 한자나 리두자의 음으로만 표기된 경우

加里 (가리마), 古介(고개), 把子(바자), 雪馬(썰매), 小時郎(소시랑), 阿只 (아기)

- 한자의 뜻으로만 표기된 경우
日耕(날갈이), 斗落(마지기)¹, 水鐵(무쇠), 開金(열쇠), 回鞭(도리채→도리깨)²
- 한자나 리두자의 음과 뜻을 섞어 표기된 경우
鬼麥(귀밀), 都里鞭(도리채→도리깨), 賚作木(자작나무), 金直(쇠지기), 只火(기울)

② 고유말이나 다른 나라 말의 한자표기어휘중에는 하나의 대상이 음이 같거나 류사한 다른 글자들로 표기된것들이 있다.

- 고유말

고개 古介, 高介

두구리 豆仇里、豆古里

매생이 尔尚, 馬尚, 馬相, 麼相

족두리 簇頭里, 足道里

- 다른 나라말

로씨야 露西亞, 魯西亞

오랑캐 吾郎介, 吾郎哈, 吾良哈, 兀良哈

오사까 吾沙加, 五沙蓋

복수하다 耶羅, 挪羅, 也乙阿

③ 일부 고유고장이름이나 사람이름들은 하나의 같은 대상이 서로 다른 류형으로 표기되어 그것들을 하나의 같은 대상으로 이해하는데서 혼란을 가져 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원래 정음자가 나오기전에 한자의 뜻과 음으로 우리 말을 기록하고 읽기 시작한데서 나온것으로서 그 대표적인것으로 향가(鄉歌)들을 들수 있다. 세나라시기의 향가에는 《於內秋察早隱風未》라는 구절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것을 《어나 가알 이른 바라매》(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라고 읽고 있다.

이런 혼적은 고려 말~리조 초기의 별곡체(別曲体) 가요들에도 나타나 있는데 《관동별곡》에는 《為四海天下無豆舍叱多》라는 구절이 있고 《화산별곡》에는 《偉千歲乙世伊小西》라는 구절이 있는바 이것들은 각각 《위 사해천하에 없두삿다》와 《위 천세를 누리소서》로 읽을수 있다.

고장이름과 사람이름 가운데도 그런 표기가 일찍부터 나타났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세나라시기에 같은 고장이름을 《鷄立嶺》과 《麻骨帖》으

1 落 딜락[훈몽자회]

2 鞭 채편[훈몽자회], 鞭 도리채가[훈몽자회]

로, 같은 사람이름을 《厭觸》과 《異次頓》으로 표기한것이 나온다. 이것은 바로 그 서로 다른 두가지 표기중의 어느 하나는 한자의 뜻으로 표기하고 다른 하나는 한자의 음으로 표기하였음을 말하여 주는것이다.

《鷄立嶺》의 《鷄立》은 삼(麻)의 속줄기인 《겨롭》이라는 고유말의 한자음표기이고 《麻骨》은 삼의 속줄기(뼈)를 한자뜻으로 표기한것으로서 같은 《겨롭재》라는 고유고장이름을 서로 달리 표기한것으로 된다.

《厭觸》인 경우 《厭》은 뜻으로 읽으면 《이처》(아처)로서 《異次》에 상응되고 《觸》은 당시 받침과 탁음의 미발달로 《頓》, 《道》등과 통용되었다고 하니 결국 서로 다른 이 두가지 표기도 한사람의 같은 이름으로 되는것이다.

이런 표기류형은 리조때까지도 존재하였다. 《리조실록》에 의하면 같은 고장이름을 《椴島》와 《皮島》, 《蘆洞》과 《磨乙骨》, 《孫石項》과 《孫梁項》, 《鳥嶺》과 《草帖》으로, 같은 사람이름을 《小斤伊》와 《者斤伊》, 《於宇同》과 《於乙宇同》, 《牛叱同》과 《龕同》과 《龕同》으로 표기한것이 나온다.

《椴》는 뜻이 《피나무》로서 《椴島》를 뜻으로 읽으면 《피섬》이고 《皮島》는 한자의 음과 뜻으로 읽으면 역시 《피섬》으로 되며 《蘆》는 뜻이 《갈》³, 《洞》은 뜻이 《골》⁴이고 《磨》는 뜻이 《갈다》로서 이것들은 각각 뜻으로 읽고 《骨》은 음으로 읽으면 이 두가지 표기도 다 같이 《갈골》로 된다.

《孫石項》과 《孫梁項》에서 《石》은 뜻이 《돌》이고 《梁》도 뜻이 《돌》(돌다리)⁵이며 《項》은 뜻이 《목》⁶으로서 《孫》은 한자의 음으로 읽고 그 나머지는 모두 뜻으로 읽으면 다 같이 《손돌목》으로 된다.

《鳥嶺》과 《草帖》에서 《鳥》는 뜻이 《새》, 《嶺》은 뜻이 《재》⁷이고 《草》는 뜻이 《새》(풀)⁸, 《帖》은 뜻이 《재》⁹로서 이 두가지 표기를 모두 뜻으로 읽으면 다 같이 《새재》로 된다.

사람이름인 《小斤伊》와 《者斤伊》에서 《소》를 뜻으로 읽으면 다 같이 《자근이》로 되며 《於宇同》과 《於乙宇同》에서 《於》를 뜻인 《늘》로 읽으면 다 같이 《늘우동》으로 된다.

《牛叱同》, 《龕同》, 《龕同》에서 《牛》는 한자의 뜻으로, 《龕》과 《龕》은 리두자의 음으로 읽으면 모두 《소똥》이라는 한사람의 아명(兒名)으로 된다.

이런 복잡성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에 한문문장을 번역하여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 뜻으로 읽고 어떤 경우에 음으로 읽는가 하는데 대한 통일적규범이 강하게 세

3 蘆 갈로[훈몽자회]

4 洞 골동[아학편]

5 梁 돌량[훈몽자회]

6 項 목항[훈몽자회]

7 嶺 재령[훈몽자회]

8 《향약집성방》에서 《木賊》을 《束草》라고 주석하고 《속새》라고 읽었다.

9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帖》의 뜻을 《재》라고 밝혔다.

술어-직접보어-간접보어
직접보어-술어-간접보어
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직접보어-간접보어-술어

여기에서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식한문문장의 특성인 어순에서 가장 본질적인 점은 보어와 술어의 위치가 일반한문문장의 정칙적어순과 차이난다는 점이다.

조선식한문문장의 류형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

- ① 직접보어가 술어의 앞에 놓이는 문장
- ② 간접보어가 술어의 앞에 놓이는 문장
- ③ 직접보어와 간접보어가 모두 술어의 앞에 놓이는 문장
 - 직접보어-간접보어-술어
 - 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혼합식어순으로 된 문장

- ① 개별적단어가 우리 말 어순으로 들어 간 문장
 - /직접보어-술어/
 - /간접보어-술어/
 - /직접보어-간접보어-술어/
 - /간접보어-직접보어-술어/
- ② 우리 말 어순으로 된 구(句)가 우리 말 어순으로 들어 간 문장
 - 주어구로 문장조직에 들어 가는 경우
 - 직접보어구로 문장조직에 들어 가는 경우
 - 간접보어구로 문장조직에 들어 가는 경우

여기에서 개별적단어들이 우리 말 문장과 같은 어순으로 일반한문문장조직에 들어 가는것도 물론 특징적인 점으로 되지만 우리 말 어순으로 된 구들이 우리 말 문장과 같은 어순으로 일반한문문장조직에 들어 가는것이 보다 더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말 어순으로 된 한문문장이 일반한문문장의 변칙적어순의 발현이나 어떤 우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생겨 난것이 아니라 우리 구두어의 반작용의 산물로서 일반성, 보편성을 가지는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인 현상임을 충분히 증명하여 주고 있는것이다.

2) 조선식한문문장에서 어순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상대성을 띤다.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한문문장에서 어순문제가 상대성을 띤다고 말하게 되

는 것은 문장과 단어결합과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한 한문의 언어학적 특성, 한문단어에 대한 차이나는 이해관점, 언어실천의 역사적 변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論罪》, 《被害》, 《不知其數》와 같은 것들을 하나의 단어결합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문장자격으로 간주하는가 하는 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테다가 실지 언어생활에서 시기적으로 더 올라 갈수록 론의할 여지가 없이 이것들을 하나의 단어결합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써 왔으며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그대로 《론죄》, 《피해》, 《부지기수》로 써 오고 있다.

이처럼 이 단어들을 단어결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의 다른 성분들이 우리 말 어순으로 되여 있고 이 단어들도 우리 말 어순으로 문장조직에 들어 갔으면 그 문장은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을 단어결합이 아니라 《죄를 따지다》, 《해를 입다》, 《그 수를 알지 못하다》라는 문장자격으로 보는 경우에는 일반한문문장의 어순으로 된 이 것들이 들어간 문장은 해당 문장의 다른 성분들이 우리 말 어순으로 되여 있더라도 총체적으로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인가 아닌가를 가르는데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의 어순문제는 어느 정도 상대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

혼합식어순으로 된 문장에서도 일반한문문장의 어순과 우리 말 문장의 어순이 뒤섞이여 문장이 조직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대적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반한문문장에도 우리 말 어순과 일치되는 변칙적어순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 말 어순인가 일반한문문장의 변칙적어순인가 하는 한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敬差官發遺考察》(경차관을 파견하여 조사하다)이라는 문장을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된 문장으로 보는가 아니면 일반한문문장의 변칙적어순으로 보는가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복합문으로 된 한문문장인 경우 주어 진 문장을 단일문을 단위로 하여 고찰하는가 복합문 전체를 단위로 하여 고찰하는가 하는데 따라 서로 다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淨衣五十件製造當執膳時分給穿著》(행주치마 50 벌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 때에 나누어 주어 입힐 것이다)이라는 문장은 《淨衣五十件製造》와 《當執膳時分給穿著》이라는 2개의 단일문으로 갈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 보는 경우에는 앞의 문장은 순수 우리 말 어순으로 되지만 전체 문장을 하나의 복합문으로 보는 경우에는 혼합식어순인 문장으로 된다.

따라서 혼합식어순인 경우에도 어순문제가 어느 정도 상대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

3) 조선식한문문장에서는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이 일반한문문장에 비하여 소극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조선식한문문장에서 일반한문문장의 어순이 심히 무시되고 혼란되어 있는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일반한문문장의 어순에서는 《有》나 《無》와 같은 글자들이 반드시 그와 관계맺는 단어의 앞에 놓이고 있으나 그와 반대되는 경우들이 고전문헌에는 더러 나온다. 《擁城無》, 《國庫無》, 《水根有》, 《東門有》와 같은것이 그런 실례이다.

또한 일반한문문장의 어순에서는 《自》나 《至》와 같은 글자들이 그와 관계맺는 단어의 앞에 놓이고 있으나 우리 말 식으로 뒤에 놓이는 예들도 나온다. 《未時始申時至》, 《遼東至護送》이 바로 그런 경우로서 《始》는 《自》대신으로 쓰이면서 관계를 맺는 단어의 뒤에 놓였고 《至》도 마찬가지로 되여 있다.

뿐만아니라 앞에서 쓴바와 같이 조선식한문문장에서는 일반한문문장의 정칙적어순을 무시하고 보어가 술어의 앞에 놓인다.

이런것은 바로 조선식한문문장에서는 어순의 문장론적기능이 일반한문문장에서처럼 중시되지 않고 반대로 매우 소극적이라는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민족고전문헌들에 쓰인 한문문장들중에는 문장구조가 일반한문과 같이 되여 있는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고유한 조선식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언하게 된다.

① 우리나라 민족고전들에 쓰인 한문문장에는 일련의 리두구성요소들과 조선고유한자어휘들이 들어 가 있다.

《리조실록》을 비롯하여 일련의 국보급 민족고전들에 쓰인 문장에는 리두자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글자들이 적지 않게 쓰이였고 기성한자들에 새로운 뜻과 음을 보충한 글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쓰이였으며 새로 만든 어휘들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였다.

이런 글자와 어휘들은 일반한문자전이나 사전들에 올라 있지 않는것들로서 그 뜻과 음이 오랜 기간 사용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변천되고 지방적차이들이 반영되어 정확한 읽기와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문문장구조 자체에는 별로 영향을 주는것이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전반적문장내용의 해독에서는 일정한 난점의 하나로 되며 따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하나의 근거로 되는것이다.

② 우리나라 민족고전들에 쓰인 한문문장에는 고유한 문장읽기방법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고전문헌들에 일반화된것은 아니지만 역시 무시할수 없는 하나의 특성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구두어만을 구두어만으로 받아 들여 사용하거나 서사어만을 서사어만으로 받아 들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어와 서사어의 불일치가 언어생활에서 심한 장애와 불편을 가져 오는 법이다.

한문을 서사어로만 받아 들여 사용하였던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언어생활의 특수성으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구두어와 서사어의 불일치를 다소나마 극복하고 구두어와 서사어를 될수록 접근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였는데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독특한 문장읽기방법을 고안하여 내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시켜 왔다.

그 첫방법은 한문문장을 우리 구두어로 번역하여 읽는 방법인데 이것은 본질상 우리 구두어를 한문으로 적어 놓은것을 다시 구두어로 읽는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온 방법은 한문문장에 구결(口訣)을 달아 읽는 방법인데 이것은 한문문장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고 한문단어들을 음으로만 읽으면서 우리 말 구조에 맞추어 토가 해당되는 자리에 구결을 달아 읽는것이였다. 여기서 구결이란 《입결》이라는 고유말의 한자표기로서 곧 《토》를 의미한다.

구결은 한문문장을 읽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중국에서 문장에 찍던 구두점을 한층 발전시킨것이다. 이 방법은 한문문장을 우리 구두어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고안하여 낸 매우 독특한 문장읽기방법이였다.

후기에 와서는 한문문장에 구결을 달아 읽는 대신 정음자토를 달아 읽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문문장을 읽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고안된 독특한 방법으로는 한문을 번역하여 읽는 방법과 한문문장에 구결을 달아 읽는 방법을 전형적인것으로 인정할수 있다.

③ 우리 나라 민족고전들에 쓰인 한문문장에는 토(吐)가 붙어 이루어 진 문장들도 있다.

이것은 원래 구결을 달지 않고 써 놓은 한문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뒤에 구결을 달거나 토를 붙인 경우와는 달리 애당초 문장을 쓸 때부터 토까지 붙여 가지고 만든 문장이다. 이런 문장으로서는 리두토가 붙은 문장과 정음자토가 붙은 문장이 있다.

우에서 든 이 세가지 측면도 한문문장에 첨가된 일종의 가공된 요소 곧 조선식 요소로 보아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經世遺表 8, 12, 14 권

古今釋林 27, 28, 40 권

衿陽雜錄

大東輿地圖

大典會通 4, 5 권

吏讀便覽

李朝實錄

林園十六志 전이지 2, 4 권 섭용지 1 권

萬機要覽 재용편, 군정편

牧民心書 3, 5, 6, 7, 8, 11, 17, 25, 27, 29, 34 권

物名考 1, 2, 3, 5 권

備邊司賸錄 8, 23, 90, 220 쪽
三国史記
三国遺事
善山慈雲寺碑
旬五志
承政院日記 90, 173, 220 쪽
新增東國輿地勝覽 8 권
典律通補 3 권
畫水篇
芝峯類說 7 권
鄉薈集成方 79, 84 권
訓蒙字會
雅言覺非 1, 2, 3 권
五洲衍文長箋散藁 25, 43, 44, 48, 59 권
儒胥必知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시기의 『보조서당』의 유무에 관한 연구

朴 龍 玉

名古屋大学大学院 教育発達科学研究科

1. 머리말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¹(이하 간도파출소로 약술함)시기는 일본이 중국조선족교육에 관여한 스타트가 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도파출소는 개설되어서 약 10개월 후인 1908년 7월 1일, 소위 「간도에 있어서의 보통교육의 효시이고 문명교육의 원천」²인 간도보통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일본측의 첫 교육기관이었다. 중국동북지방에로의 진출을 시도하던 당시, 그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던 일본의 많은 역사자료들이 간도보통학교가 「모범적 학교」³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파출소의 역할을 과대평가했던 것은 시대적으로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약 칠팔십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 와서 갑자

1 한국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는 1907년 8월 하순, 한인보호를 명목으로 龍井에 개설되었다. 간도(오늘의 연변지구)에 들어서기 전에 벌써 「이전부터 韓民이 清國官民兵丁들로부터 받고 있는 凌辱과 虐待를 직접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에 현병을 배치함과 동시에 한국경찰관을 부속시킬 것을 결정하고 會寧에 체재할 때 이미 그 지점들을 예정해 두었다」고 한다(p.104). 따라서 간도파출소는 2년 사이에 그 산하에 10개의 분견소와 4개의 파견소를 설치하기에 이른다(p.105). 거기에 소속된 인원은 파출소개설 당시 파출소의 호위 및 경찰을 위하여 현병장교이하 54명과 함께 韓民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정부로부터 韓人관리를 파견(p.25)한데 이어 수차 증가되어 간도문제의 해결이 발표되던 1909년 9월 8일 당시에는 일본현병 262명, 한국경찰 63명에 달하였다(p.105). 한편 간도파출소는 중국 기존의 행정기관을 무시하고 간도를 北都所·會寧間島·鍾城間島·茂山間島 등 4개구로 나누어 그 산하에 41개의 社와 290개의 촌을 두었다. 1907년 9월부터 착수하여 4명의 도사장(都社長)과 41명의 사장(社長)에 이어 촌장까지도 임명함으로써 간도의 지방행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p.100). 이와같이 간도파출소는 龍井에서 철폐되기까지 약 2년 2개월동안 존재하면서 일본세력의 간도에로의 진출을 위하여 확고한 기반을 닦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殘務整理所『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明治 43 年(1910)3 月, 金正柱編『朝鮮統治史料』第一卷, 韓國史料研究所, 1970 年에 수록.

2 개교식에서 간도파출소장인 사이또(齊藤季次郎)가 한 축사의 한 구절이다. 間島普通學校·間島中央學校『沿革誌』명치 41년(1908)개교이래의 기록.

3 앞의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p.130. 朝鮮總督府『統監府時代に於ける間島韓民保護に關する施設』昭和 5 年(1930), p.328.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8 年度間島派出所概況報告書』明治 44 年(1911)1 月, p.420. 이상의 세 자료는 金正柱編『朝鮮統治史料』第一卷, 韓國史料研究所, 1970 年에 수록되어 있음.

기 간도파출소시기에 50여개소의 사립학교가 일본의 원조⁴ 혹은 보조⁵를 받았거나 간도파출소시기에 별씨 이삼십여개의 보조서당이 있었다⁶는 일설이 일본에서 새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1980년대부터 비로소 시작된 한국, 중국, 일본의 유관 선행 연구들⁷ 속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 일설이 사실이라 할 때, 20세기초의 중국조선족교육사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구국운동 및 중국에 있어서의 신교육의 실시를 배경으로 개시되었던 중국조선족들의 자주적인 사립학교교육의 전개⁸가 간도파출소의 원조 혹은 보조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제한된 자료의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위의 일설이 근거로 삼은 역사자료들에 대한 재분석과 당시 일본과 한국의 유관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파출소시기의 보조서당의 존재여부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원조·보조를 받아왔다는 50여개교에 관련해서

『국립교육연구소기요』(1992년)에 발표된 「중국길림성통정촌의 조선인학교」라는 논문은 간도보통학교에 관련된 다음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명치41년(1908)7월에 개학식을 거행한 후 이듬해 8월에 이르러 드디어 교외에 큰 교사 하나를 새로 짓고 이전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간도각지에 보통학교를 모방하는 사립학교들이 발흥하여 한때 50여개교나 되었다…」⁹.

뒤이어 논문은 이렇게 쓰고 있다.

4 楠木瑞生「中國吉林省龍井村の朝鮮人學校－東北地區朝鮮族學校の展開」國立教育研究所『國立教育研究所紀要』121集, 1992年, p.128.

5 権寧俊「清末における中国東北部の朝鮮民族教育と日中両国政府の教育関与」日本現代中国学会『現代中国』第75号, 2001年, p. 94.

6 楠木瑞生「中國東北の朝鮮族と教育権回收運動」『同朋大學論叢』第70號, 1994年6月, p.45.
楠木瑞生「間島朝鮮族と學校－1910年代の中中國朝鮮族と教育の展開－」『近代日本のアジア教育認識』平成6・7年度科學研究費(綜合A)研究成果報告書, 1996年3月, p.205.

7 20세기초의 중국조선족교육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 연구로는 중국의 朴奎燦等著『延邊朝鮮族教育史稿』(吉林教育出版社, 1989年) 및 『중국조선족교육사』(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1년), 한국의 朴州信著『間島韓人の民族教育運動史』(아세아문화사, 2000년), 일본의 竹中憲一著『「滿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第5卷(柏書房, 2000년) 등을 들 수 있다.

8 실제상, 파출소가 개설되기 10여개월 전에 이상설에 의해 설립되었던 서전서숙과, 간도보통학교가 설립되기 4개월전에 이미 사립으로부터 중국측의 관립학교로 넘어 갔던 양정학당, 그리고 간도파출소가 설립된 이후 서전서숙의 졸업생들이 각 지에 세운 학교들을 포함해서, 당시 간도의 적지 않은 조선족사립학교들에서 자연과학 및 민족의 말과 역사지식을 전수하는 민족교육이 전개되기 시작했었다.

9 東洋拓殖株式會社『間島事情』大正7年(1918), p.814.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간도보통학교건설과는 별도로 파출소는『간도』의 조선족에게 강력하게 학교의 설치를 장려한 것 같다. 그러나 파출소는 그저 학교설치의 장려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의 창설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고 있다. 이리하여 1909년 11월 파출소가 철폐되기까지 일본의 원조를 받아온 학교가 50여 개교—지금 이 학교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라는 놀라운 수에 이르렀던 것이다.」¹⁰

즉, 학교수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파출소철폐이전 소위 일본의 원조를 받아온 학교가 50여개교 있었다고 지적한 근거는 바로 1918년 3월에 발행된 『간도사정』의 교육부분에 들어 있는 위의 인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파출소가 50여개의 사립학교에 원조를 했다면 한인보호라는 명목하에 개설되었던 파출소의 실적을 증명하는 산 자료가 되는데 기록에 남기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약 8년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도사정』은 보통학교를 모방하는 사립학교가 발흥하여 한때 50여개교나 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이 50여개의 사립학교속에 보통학교를 모방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 있었는가에 대한 정확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0여개의 사립학교가 일본의 원조를 받아 왔다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50여개 전부가 보통학교를 모방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본의 원조를 받았다는 근거로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위에서와는 달리 『현대중국』(2001년)에 발표된 「청말중국동북부의 조선민족교육과 일중양국정부의 교육관여」라는 논문은, 간도파출소가 「사립학교규칙을 정하여 조선인자제에 대한 교육을 보급시키기 위해」 간도보통학교를 설립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은 내규에 준거하게 한 결과 「일본의 보조를 받은 사립학교가 50여개교로 늘어났다고 한다」¹¹고 쓰고 있다.

그렇지만 그 근거로 되고 있는 주해를 살펴보면, 간도보통학교의 설립과 함께 한쪽으로는 사립학교가 잇따라 설립되는 상황에서 파출소가 통제와 회유책을 결부한 결과 사립학교가 50여개소를 헤아리기에 이르렀다¹²고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럼 동시기의 다른 자료들에서 그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915년 10월,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產共進會)에서 은메달을 수여 받았다는 가와구찌¹³의 논문 『간도보통학교의 경영』에서는 「당시 파출소의 진입을 보고 청국관헌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구설 또는 폭력으로써 백방으

10 앞의 「中國吉林省龍井村の朝鮮人學校－東北地區朝鮮族學校の展開」, pp.127~128.

11 앞의 「清末における中国東北部の朝鮮民族教育と日中両国政府の教育関与」, p. 94.

12 앞의 『統監府時代に於ける間島韓民保護に関する施設』, p.328.

13 앞의 『沿革誌』에 의하면, 가와구찌(川口卯橋)는 1907년 6월 보통학교의 설립을 준비 하던 때로부터 약 11년간 간도보통학교에서 사업해 온 일본인으로서 파출소사무관 스즈끼(鈴木信太郎)와 총령사인 나가타끼(永龍久吉)가 약 3년반 명예교장을 해온 뒤를 이어 1912년 3월부터 1918년 4월까지의 약 6년간을 간도보통학교에서 교장직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로 파출소를 철퇴시키려고 했기에 여러번 피차간에 작은 충돌이 있어 살기분분한 때」¹⁴였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이는 간도보통학교가 개교된 것은 간도파출소의 설립으로부터 약10개월후였지만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어 가와구찌는 새 교사애로의 이전을 계기로 보통학교를 모방하는 사립학교가 발흥하고 파출소 또한 그것을 장려함으로써 청국관공립학교에서 도망해 오거나 그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는 자가 있어 한때 50여개교나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¹⁵.

여기에서, 50여개교의 사립학교의 발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 『간도사정』은 신축교사애로의 이전을 계기로 한 간도보통학교의 모방만을 지적하고 있으나 「간도보통학교의 경영」은 그 외에도 사립학교에 대한 파출소의 장려를 더 첨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도보통학교의 『연혁지』에 의하면, 1909년 8월 23일에 간도보통학교가 신축교사애로 이전해서 약 2주일 후인 9월 8일에, 간도문제의 해결로 파출소의 철수가 결정되자 9월 15일경에는 퇴학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한다¹⁶.

따라서 사립학교가 50여교로 된 시기와 장려의 내막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1909년 1월, 간도파출소가 통감부에 제출한 「1908년도 간도파출소개황보고서」 속의 학교통계표¹⁷에 의하면 1908년말 현재 간도내에는 14개소의 조선족학교에 약 430여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이 통계표는 1908년말 현재의 조선족의 학교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의 14개소중에는 간도파출소가 개설되기 전에 설립된 사립학교도 6개소나 들어 있다. 그 중에는 1907년 3월, 이동춘에 의해 설립된 후 1908년 3월에 이미 관립학당으로 넘어간 양정학당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족의 관립학교이기는 하지만 양정학당의 학생이 전부 조선족이였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아진다.

결국, 간도보통학교가 설립된 1908년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14개소중 6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6개소중의 교향학교가 1908년 2월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나머지 5개소도 전부 간도보통학교가 설립된 7월이후에 설립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앞에 「간도보통학교를 모범으로 각지에 사립학교중설의 경향이 있는데 간도에 있어서의 현재의 학교수는 좌(표)와

14 川口卯橋 「間島普通學校の經營」大正 4 年(1915)10 月, 京城濟世協會『咸北雜俎』大正 13 年(1924), pp.272~273.

15 위와 같음, p.273.

16 앞의 『沿革誌』.

17 앞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8 年度間島派出所概況報告書』 p.423.

같음」¹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중설에서 간도보통학교가 논 소위 모범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도 당시의 조선족학교 전부가 간도보통학교를 모범으로 그 후에 설립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조선족사립학교가 1908년 말까지 14개소였다고 하더라도 1909년 9월 초, 간도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8개월 사이에 50여교로 늘어난 것은 언제인가?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기요』(1910년 3월)에 의하면, 간도파출소는 조선족들이 각지에 설립한 사립학교들에 정치적 사상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공포된 「사립학교령」¹⁹을 간추려 「간도사립학교에 관한 내규」²⁰를 정하고 기존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의 설립을 전부 그에 준거하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교식에 참석하거나 학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증여하여 장려한 결과 명치42년(1909) 5월에는 불완전한 것까지 합쳐 사립학교가 50여교로 되었다는 것이다²¹.

이 내용은 당시 간도파출소의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시노다(條田治策)가 1930년에 쓴 『통감부시대에 있어서의 간도한민보호에 관한 시설』에서 기술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²².

그런데 여기서는 두가지 새로운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즉 불완전한 것까지 합하여 사립학교가 50여개교로 된 시기가 1909년 5월이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길립성 통정촌의 조선인학교」나 「간도보통학교의 경영」이 지적한 사립학교에 대한 장려는 파출소가 개교식에 참석하거나 학부편찬교과서를 증여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1908년 말까지 간도내의 조선족학교총수는 14개교였으나 1909년 5월에는 불완전한 것까지 합하여 50여개교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 파출소가 철수할 때까지 50여개교를 초과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않다.

따라서 위의 두편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출소가 철수할 때까지 일본의 원조 혹은 보조를 받아온 학교가 50여개교 있었다고 한다면, 위에서 보여준 파출소시기의 모든 조선인사립학교, 다시 말하면 파출소설립전에 설립된 학교들과 불완전한 것까지 합친 50여개교가 전부 일본의 원조 혹은 보조를 받은 셈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길립성통정촌의 조선인학교」는, 파출소의 권력하에 보호받은 이런 학교들은 파출소가 철수하자 「자금부족의 결과, 끝내 폐멸되어 버리고」「이런 사정속에서 일본의 자금으로 설립된 학교중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은 것이 간도보통

18 위와 같음, p.422.

19 칙령제 62 호(1908년 8월), 文部省內教育史編纂會編修『明治以降教育制度發達史』第十卷, 龍吟社, 1939年, p.11.

20 앞의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pp.130~132.

21 위와 같음, p.130.

22 앞의 『統監府時代に於ける間島韓民保護に關する施設』, p.328.

학교이었다」²³고 지적하고 있다. 마치도 간도파출소시기 간도보통학교외에도 일본의 자금으로 설립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학교가 적지않게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폐멸된 이유로 「경비부족과 함께 일본의 후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출소의 원조를 받았던 조선족이 중국의 압박을 강하게 느낀 점」, 거기에 「당시의 조선족에게 자식을 학교에 보낼 충분한 경제적 기초가 있었겠는가 하는 점」과 「서당이 아닌 근대적인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다는 근대적교육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었겠는가 하는 점」²⁴ 등을 들고 있다. 결국 당시 조선족은 근대적 교육에 눈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경영하기는커녕 자식을 학교에 보낼 충분한 경제적 기초도 없었기 때문에 파출소가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주거나 원조할 때는 50여개교나 있었지만 파출소가 철수하자 간도보통학교외에는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음을 강조²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파출소시대에 설립된 사립학교들이 파출소가 철수하자 전부 폐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아래에 당시 일본의 자료들에 기초해서 그 내막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간도사정』에 의하면 명치42년 5월에 한국학부편찬교과서를 쓰는 사립학교가 50여개소에 이르렀으나 파출소 철수후 약 1년 사이에 학운의 쇠퇴가 극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즉 사립학교내규를 공포하여 조선족사립학교들을 전부 간도파출소의 통제하에 두었던 것이 파출소의 철수로 혼돈불일치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폐멸된 것이 있는가 하면 겨우 지속되거나 중국측의 관립학교로 넘어 간 것도 있고 거기에 예수교와 같이 기존의 학교나 서숙에 기초해서 그 확장에 힘쓰는 경향도 보여 여러가지 교과서들이 란용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위의 자료는 파출소철수로부터 약 1년사이의 간도조선인의 교육 상황을, 다시 말하면 파출소시기에 있었던 조선족사립학교들은 전부 폐멸된 것이 아니라 혼돈불일치의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다음, 「1908년도 간도파출소개황보고서」에 보이는 표속의 14개학교²⁷들에서 파출소철수후에도 여전히 존속해 있는 학교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간도사정』에서는 1910년 말 무렵에 학운의 쇠퇴가 극도에 달한 곤란한 처지를 거치면서도 친일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설은 동량사의 동신학교(오늘의 동량서당)하나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⁸.

23 앞의 「中國吉林省龍井村の朝鮮人學校－東北地區朝鮮族學校の展開」, p.128.

24 위와 같음.

25 위와 같음.

26 앞의 『間島事情』, pp.833~834.

27 표의 14개학교 중 4개소는 학교명칭대신 천도교사숙(2개소) 또는 보통학교분교(2개소)라고 적혀 있기때문에 같은 지점에 10년대에도 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명을 대조할 수 없기에 10 개소에 한해서만 살펴 보았다.

28 앞의 『間島事情』, p.834.

실상 1917년 말 현재 이미 일본총보조서당중의 하나로 되었던 동량서당(학생52명)의 전신은 학교통계표의 14개교 중의 하나인 1908년에 설립된 동량사의 동신학교(당시학생20여명)였다.

그리고 학교통계표중 1908년 2월에 설립된 대교동²⁹의 교향학교(학생20여명)는 1910년대의 적지 않은 자료들에 그 기록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간도대토별」 무렵인 1920년 10월에, 간도총령사관이 작성한 「반일학교조사표」³⁰의 41개소중에도 들어 있었다. 이는 교향학교가 1920년 조사당시까지도 존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일학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학교통계표에 있는 상천평의 양정학당(학생50명)과 절만동의 남양학교(학생30명)도, 조선주재현병대사령부가 1912년 3월에 작성한 「도문강대안 각학교조사 일람표」 속에 들어있는 관립·공립학교들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08년 3월부터 중국측의 관립학교로 되었었던 양정학당의 학생수는 이때 250명으로 증가되었지만 사립으로부터 관립으로 넘어 간 남양학교의 학생수는 거꾸로 27명으로서 3명 감소되어 있다³¹.

비록 대교동의 교향학교는 20년대의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만, 동신학교는 친일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양정학당과 남양학교는 중국측의 관립·공립학교로서 1910년대에는 물론 1920년대말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통계표 중에서 학교명칭이 명확한 10개소중의 4개소가 파출소철수후에도 여전히 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파출소시기에 설립되어 1910년대 말까지도 존속된 학교들이 있었음이 아래 화룡한개현내의 예수교계통의 학교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

학교명	설립년	소재지	계통	1914.8	1915.6	1916.12	1917.12
명동학교	1909.3	화룡사 용암촌	예수교	100명	156명	160명	203명
정동학교	1909.10	개운사 자동	예수교	50명	87명	50명	110명
청호학교	1909.2	개태사 호천포	예수교	30명	29명	55명	25명

이 표는 「간도총령사관보고」(1915년 6월)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표중의 1914년 8월의 학생수는 『국경지방시찰복명서』, 1916년 12월의 학생수는 「재외조선인경영 각 학교 서당일람표」, 1917년 12월의 학생수는 『간도사정』을 참고한 것이다.

29 당시의 많은 자료들에는 교향서숙의 소재지가 대교동이라고 밝혀져 있지만 학교통계표에 문교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한자의 「大」를 「文」으로 잘못 옮긴 데 있다고 인정되어 본고에서는 대교동으로 썼다.

30 姜德相『現代史資料』第28卷「朝鮮」(4)みすず書房, 1972年, pp.374~375.

31 朝鮮駐在憲兵隊司齡部 「圖們江對岸(中國側)移住鮮人ノ狀態」(10.教育及宗教) 明治45年(1912)3月, p.33. 『外務省記錄 朝鮮人ノ海外移住並ニ移住者ノ狀態取調一件』三에 수록.

표1의 주요근거로 된 「간도총령사관보고」³²에는 일본측의 간도보통학교와 보조서당외에 각 종교계통별로 조선족사립학교들이 소개되어 있다. 위의 표는 그 중에서 1909년에 설립되어 1910년대에도 여전히 존속했던 화룡현내의 예수계통의 3개학교만을 선택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파출소시기의 사립학교들이 전폐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볼 때, 파출소시기 일본의 원조 혹은 보조를 받아온 학교가 50여개소 있었다거나 파출소가 철폐하자 … 유일하게 살아 남은 것은 간도보통학교 뿐이였다는 등 견해들은 역사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바 결국은 역사자료들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다음에서는 파출소시기의 20~30여개의 보조서당설에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원조내막에 대해 한층 더 살펴보기로 한다.

3. 20~30여개소의 보조서당설에 관련해서

1994년 6월, 『동평대학논총』 제70호에 실린 「중국동북의 조선족과 교육권 회수 운동」이라는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908년에 간도보통학교가 세워졌을 때, 일본은 20여개 남짓한 사숙, 서당에 자금을 제공하여 보조서당으로 삼고 보통학교의 통제하에 두었다. 그러나 1909년에 파출소가 철수하자 이러한 보조서당은 중국의 손길이 뻗쳐 폐교되는 등 거의 모두 보통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한다」³³.

즉, 여기서는 파출소시기에 20남짓한 보조서당이 있었다는 견해를 제기함으로써 「지금 이 학교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원조를 받아온 학교가 50여교라는 놀라운 수에 이르렀다³⁴고 했던 2년전의 애매한 표현과는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지만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 ㄱ. 보조서당설은 시간적으로 파출소에 의해 간도보통학교가 설립되어서부터 파출소의 철수가 결정되기까지의 약 1년 2개월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다.
- ㄴ. 보통학교의 통제하에 두었다는 보조서당들은 파출소가 20여개남짓한 사숙이나 서당에 자금을 제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ㄷ. 보조서당이 거의 모두 보통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난 주요이유는 파출소철 수 후 중국의 손길이 뻗쳐 폐교된 테에 있다는 것이다.

32 「간도총령사관보고」는 『중국에 있어서의 외국인경영에 관계되는 공익적 시설에 관한 조사보고』의 제 10 권에 수록된 것인데, 제 11~13 권까지에는 국자가, 투도구, 훈춘 등 영사분관들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33 앞의 「中國東北の朝鮮族と教育權回收運動」 『東朋大學論叢』第 70 號, 1994 年 6 月, p.45.

34 앞의 「中國吉林省龍井村의 朝鮮人學校－東北地區朝鮮族學校の展開」, p.128.

그러나 이 20여개의 보조서당설을 제기한 약 2년후인 1996년에 발표된 「간도조선족과 학교－1910년대의 중국조선족과 교육의 전개－」에서는 보조서당을 다시 10여개 덧붙이고 있다.

「보조서당의 설립은 중국족과 조선족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시대에는 30여개교가 있었다고 한다³⁵. 이것들은 파출소의 철수에 의하여 모두 없어졌지만 그후 영사관의 활동에 의해 조금씩 증가되어 1917년 12월의 조사에는 21개교로 되어 있다…」³⁶

즉, 이 논문에서는 간도파출소가 철수하자 보조서당이 전부 없어졌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있지만, 앞의 논문에서처럼 중국의 손길이 뻗쳐 폐교되었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폐되었던 보조서당이 영사관의 활동에 의해 점차 증가되었다고 함으로써 간도총영사관에 의해 시작된 보조서당이 소위 파출소시기에 있었다는 보조서당의 연장이고, 같은 성질의 것인듯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족이나 조선족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시기에 30여교의 보조서당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논거가 되는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30여개 보조서당설의 논거로 되고 있는 자료의 하나가 조선주재한병대사령부가 1912년 3월에 작성한 「도문강대안(중국족) 이주선인의 상태」의 교육 및 종교부분이다.

교육부분에서는 청나라측의 도문강대안조선인교육에 대한 장려 및 1910년 3월에 조직된 간민교육회의 교육활동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당시 학교수는 관립 약 15개소, 사립 약 80여개소 남짓하고 학생수 약 2천명내외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⁷. 파출소가 철수해서 2년사이에 중국족의 관립학교외에 조선족사립학교만해도 약 80여개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길림성룡정촌의 조선인학교」에서 지적한 파출소철수후의 사립학교의 전폐원인, 즉 조선족의 「근대적 교육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식을 학교에 보낼 충분한 경제적 기초」가 없었다는 견해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부분에서는 또 일본측의 경영에 속하는 학교는 불과 통정촌에 보통학교 하나가 있을 뿐이고, 그 외는 전부 청나라측의 경영에 속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5 쪼끼노끼는 논문에서 이 자리에 ㈜ 38이라고 달고 있는데 그 주해에 들어 있는 두가지 자료는 본론의 주해 31과 40이기에 여기서는 약한다.

36 앞의 「間島朝鮮族と學校－1910 年代の中國朝鮮族と教育の展開－」, p.205.

37 앞의 「圖們江對岸(中國側)移住鮮人ノ狀態」, pp.27~28. 이 자료의 교육부분의 마지막에는 간도총령사관이 1911년 9월에 조사한 북간도 세개 현(훈춘현을 제외)의 학교 일람표가 들어 있다. 시간적으로는 반년전이지만, 당시 중국족의 학교는 관·공립 20 개소, 일본족의 학교는 간도보통학교 외에 시천교에 속하는 야학교 1 개소, 사립학교는 56 개소 도합 78 개소에 약 2,187 명의 학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뒤이어 본래 통감부파출소시대에 각지에 경영되었던 30여개교는 파출소의 철퇴와 함께 지도자를 잃어 자금을 거두어 모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폐교되었다³⁸는 점을 침부하고 있다.

결국 30여개보조서당설의 논거로 되고 있는 교육부분을 다 살펴도 보조서당이라는 단어는 물론 파출소가 30여개교를 보조했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일 30여개교가 파출소의 보조에 의해 경영되어 왔었고, 파출소의 철수로 보조가 단절되어 폐교되었다 한다면 「파출소의 철수와 함께 지도자를 잃어 자금을 거두어 모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폐교」 되었다고 서술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30여개소의 학교들이 파출소의 보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두어 모은 자금에 의해 경영되어 왔으나 파출소가 임명했던 都社長, 社長들이 파출소의 철수로 인하여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했으므로 지도자를 잃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 자료에는 간도지방의 선인학교중에 보통학교 하나가 일본측경영에 속할 뿐 그 외는 전부 청나라측의 경영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립학교의 유지비는 조선인으로부터 징수한다」³⁹고 되어 있다. 이는 청나라측의 경영에 속한다는 지적은 조선족사립학교가 청나라의 보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청나라의 관할범위에 속하기 때문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위의 30여개교가 파출소의 경영에 속했었다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파출소시대에 간도각지에서 경영되었던 30여개의 사립학교가 파출소철수후 전폐되었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조선족과 학교」는 이것을 간도파출소시대에 보조서당이 30여개 있었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30여개보조서당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1910년 8월 13일에 통감 寺內正毅가 외무대신 小村壽太郎 앞으로 보낸 글이다.

통감은 먼저 간도에 있어서의 재류한민의 교육사업에 관한 나가타끼총영사의 보고는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다⁴⁰고 밝히였다. 뒤이어 당시 통감부가 간도의 한인사립학교에 정액의 보조금을 준 사실은 없고 다만 각지를 순회할 때 파출소장의 판단에 의해 그 지방의 사립학교에 임시 기부를 하고 훈유를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⁴¹.

한편 간도파출소기요에 의하면, 파출소소장 자신이 각지를 순회하여 민정을 시

38 위와 같음, pp.26~27.

39 위와 같음, p.28.

40 機密統發 第 1536 號 明治 43 年(1910) 8 月 13 日, 統監 寺內正毅 外務大臣 小村壽太郎殿 『外務省記錄 在外朝鮮人教育關係雜件 教育補助金支給』에 수록.

41 「그 때 당부(통감부를 가리킴)로부터 당지(간도를 가리킴) 한인사립학교에 특히 정액의 보조금을 준 일은 없고 다만 동지출장소장이 해마다 각지를 순회할 때 소장의 판단에 의해 한 학교에 유지비로서 이삼십원정도 임시 기부한 다음 여러가지 훈유(訓諭)를 했었는데 그 결과 학교수가 차차 늘어나 드디어 20여교의 설립을 보기기에 이르렀다. 그 후 이 출장소가 폐지된 이래 청국관현이 갖은 압박을 가해 점차 폐교되었다」. 위와 같음.

찰할 필요가 있었지만 만일 청국관현을 자극하면 종래에 취해오던 방침상 오히려 득책이 아니여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던 것을 1909년 5월에야 비로소 당시 개설되어 있던 10개의 분견소 중 8개 분견소 소재지를 두차례에 거쳐 순회했다고 한다⁴². 당시 파출소의 분견소부근을 중심으로 10개소의 교회소를 설치하여 만여명의 신도를 가진 친일단체로 성장했던 시천교⁴³는 나이어린 학생까지 동원하여 파출소소장을 환영케 했었다. 이 기회에 소장은 학생들에게 완전한 학문을 닦기 위해 통정의 학교에 올 것을 권유하는 한편 약간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담은 훈유도 했다고 한다⁴⁴. 따라서 파출소소장이 순회지의 시천교계통학교에 유지비로서 각각 이삼십원정도씩 기부했다고 할지라도 1909년 5월에 8개소에 임시 기부한 셈이 된다. 그 결과, 학교가 차차 늘어 20여교에 이르렀지만 출장소폐지후 청국관현이 갖은 압박을 가해 점차 폐교⁴⁵되었음을 데라우찌통감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실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감이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 간도총영사의 보고내용을 외무대신 앞으로 보낸 글을 토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간도에 설립된 통감부파출소는 각 社에 소학교의 개설을 장려하여 器具, 교과서 그외 약간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10여개 사립校舍를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한국 학부에서는 통정촌에 모범보통학교를 설립하여 한인자제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작년(1909년) 간도일대의 농작물흉작으로 인하여 각 사의 소학교는 유지곤란으로 끝 끝내 적지 않게 폐쇄되어 금년(1910)여름에는 근근히 한개소(보통학교는 제외)가 남은데 지나지 않는다」⁴⁶.

파출소가 약간의 보조금을 주었다는 총영사의 보고내용이나 소장이 순회할 때 유지비로 임시 기부했다는 통감의 글에는 별로 상이한 점이 없다. 하지만 총영사는 통감과는 달리 설립된 학교가 10여개 뿐만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총영사는 파출소로부터 기구나 교과서 혹은 약간의 보조금(통감이 지적한 임시기부)을 받은 적이 있는 학교, 다시 말하면 시천교계통의 학교만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1910년 여름에 겨우 한 개교 남은 학교 역시 경영자와 村民간의 불화로 경영자가 새로 바뀌고 원래 가르치던 일어는 중국어로 바뀌었다는 사실로부터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친일단체인 일진회산하의 시천교계통학교는 몇개소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간도총영사관보고」(1915년 6월)에 의하면, 간도파출소시기 약 1만의 신도가

42 앞의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p.112.

43 竹中憲一『「満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第5卷「朝鮮人教育」柏書房, 2000년, p.197.

44 앞의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pp.115~116.

45 앞의 機密統發 第 1536 號, 統監 寺內正毅 外務大臣 小村壽太郎殿

46 「間島在住朝鮮人子弟敎育ニ關スル卑見具申」 機密號外 明治 43 年(1910) 9 月 3 日 總領事 永龍久吉 外務大臣伯爵 小村壽太郎殿 『外務省記錄 在外朝鮮人敎育關係雜件 教育補助金支給』에 수록.

있었다는 시천교는 간도내에 13개소의 학교 및 서숙을 설치하고 교파서는 경성학부에 청구하여 자체교육에 열성을 다 했으나 간도파출소가 철수하자 각 지방의 교회소 및 학교가 전폐되고 간도에 교회소 하나에 약 600명의 신도가 있을 뿐이고 발전의 희망이 전혀 없다⁴⁷고 했다.

파출소는 철수했지만 그 이튿날로 간도총영사관이 개관되었고 파출소의 내부서 기관이었던 최기남⁴⁸은 계속해서 총영사관의 내부서기관으로, 일진회의 총무원출신이었던 리희진은 북간도지부회장으로 그대로 통정에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립학교내규에 쫓아 시천교에 속하는 유지들이 술선하여 각지에 설립했다는 사립학교⁴⁹ 13개소는 물론 교회소마저도 거의 모두 전폐되기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파출소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청나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기까지 시천교를 교묘하게 이용한 후 철수해 버렸다면 통감부는 한국을 합병하기까지 일진회를 이용한 후 해산을 명령함⁵⁰으로써 저들의 식민지화장에 유용했던 자들을 자연소멸 혹은 강제해산을 시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파출소철수후의 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은 시천교계통학교들의 전폐원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1910년 여름, 간도총영사가 시천교계통의 10여개 사립학교가 폐쇄된 원인을 1909년의 농작물흉작에 있다고 했다면 같은 시기 통감인 데라우찌는 시천교계통의 학교에다 폐교된 기타 사립학교를 더 보탬으로써 이 20여교가 폐교된 원인을 청국관헌의 압박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1912년 3월에 조선현병대사령부는 파출소시기 각지에 경영되었던 30여교가 전부 폐교된 원인을 파출소의 철퇴와 함께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즉, 파출소철수 이듬해에는 시천교계통학교의 전폐원인을 자연재해 혹은 청국관헌의 압박에 돌림으로써 시천교를 이용·포기했던 파출소의 수법을 은폐하고자 했다면 한국이 합방된 후인 1912년에는 파출소의 지도자격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2년 2개월밖에 존속하지 않았던 간도파출소가 그것도 간도보통학교를 설립해서 1년 2개월 후에는 소위 간도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

47 外務省通商局『支那ニ於ケル外國人經營ニ係ル公益的施設ニ關スル調査報告』大正6年(1917), p.163. 「滿洲國」教育史研究會監修『「滿洲・滿洲國」教育資料集成 22・歐美人經營學校』, エムティ出版, 1993年에 수록.

48 『韓國一進會日誌』光武11年(1907)의 기록에 의하면, 최기남은 1907년 6월에 총무원으로 선정된 후, 7월 17일에는 海牙問題에 대해 善後방침하기 위해 조직된 연구위원회(10명)의 위원으로, 7월말에는 간도파출소의 내부서기관으로 被名되어 있다. 金正柱編『朝鮮統治史料』第4卷, 韓國史料研究所, 1970年, p.657, 667, 672.

49 앞의 『間島事情』, p.833.

50 1910년 8월 22일에 병합조약이 발표되고 그로부터 20일 후인 9월 12일에 일진회가 해산되었다. 앞의 『朝鮮統治史料』第4卷, pp.837~839.

급한 논문들은 그때 이미 20~30여개의 보조서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10~20년대의 보조서당과 동등한 차원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10~20년대에 일본측에 의한 보조서당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파출소가 개학식에 참석하여 한국학부편찬교과서를 중여했던 학교나 임시 기부를 했던 학교들을 오늘에 와서 모두 보조서당이라고 새로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와 간도총영사관의 거듭된 협상끝에 간도보통학교졸업생을 教師로 파견하여 4개소의 보조서당이 비밀리에 스타트를 한 것⁵¹이 간도총영사관이 개설되고서부터 만 4년후인 1913년 11월의 일인 것이다. 보조서당에 주는 매달 13월의 보조금은 실상 파견교사의 월급⁵²이었는데 교사들은 매달 보통학교교장한테 와서 비밀리에 보조금을 받는 동시에 그 서당 및 소재지의 성적상황들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한다⁵³. 그 후 점차적인 증가를 해 만 17년 후인 1931년 5월 간도내에는 비로소 29개의 보조서당⁵⁴이 있게 되었다. 이는 보조서당의 설립과 전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앞의 논문들이 제시한 파출소시기의 20~30여개보조서당설은 간도파출소가 조선족교육에 미친 영향력을 강조하고자 했던 당시의 역사자료들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초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맷음말

이상, 본고에서는 간도파출소시기에 일본의 원조 혹은 보조를 받은 학교가 50여 개소 있었다거나 그때 별씨 이삼십여개의 보조서당이 있었다는 견해가 근거로 삼은 역사자료들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중국조선족사회에 미친 간도파출소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던 20세기초 당시의 일본의 유관 역사자료들속에서도 그렇다 할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파출소의 철폐로 인한 시천교계통의 13개학교의 전폐를 조선족사립학교전체의 일처럼 보편화시켜 그 전폐의 원인을 자연재해나 청국관현의 압박 또는 지도자를 잊은 사실 등에 돌림으로써 사천교를 교묘하게 이용하다가 포기했던 파출소의 진

51 「書堂設置ニ關スル報告ノ件」 機密第 49 號 大正 3 年(1914) 7 月 23 日 間島總領事代理領事 堀與三吉 外務大臣男爵 加藤高明殿 『外務省記錄 在外朝鮮人教育關係雜件 教育補助金支給』에 수록.

川口卯橋「書堂狀況報告」大正 3 年 (1914) 1 月 22 日, 『外務省記錄 在外朝鮮人教育關係雜件 教育補助金支給』에 수록.

52 「頭道溝間島總領事館分館報告」大正 4 年(1915.6.3), 앞의 『中國ニ於ケル外國人經營ニ係ル公益の施設ニ關スル調査報告』, p.193.

53 「間島總領事館報告」 위의 책, p.163.

54 「咸鏡北道 學事及宗教要覽」 昭和 6 年(1931), pp.51~53. 渡部學・阿部洋編『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編) 第 38 卷, 龍溪書舍, 1990 年에 수록.

면복을 은폐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거기에 비하면, 파출소시기 일본의 원조를 받아온 50여개 사립학교가 파출소의 철폐로 전폐되었다는 기술은 조선족사립학교의 형성과 전폐는 모두가 파출소에 의해 좌우된듯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두편의 논문에서는 13개소의 시천교학교를 포함해서 1910년 8월 현재에 폐교된 20여개 사립학교를, 나아가서 1912년 3월 현재에 폐교된 30여개 사립학교를 소위 파출소시기에 이삼십여개의 보조서당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어쩐지 중국조선족교육에 미친 파출소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상술한 견해들은 당시의 역사자료들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도파출소시기에 일본의 원조 혹은 보조를 받은 학교가 50여개 소 있었다거나 그때 벌써 이삼십여개 보조서당이 있었다는 견해는 간도파출소가 조선족교육에 가져다 준 영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상에서 당시의 제국주의정책을 미화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 Study of South Korean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KUTSUMI Kanako

Ph.D. Candidate at Osak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n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has recently increased, with the following as major trends. (1) Much of South Korean investment no longer comes from labor-intensive firms, but from larg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ompanies. (2) Companies in separate industries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placing orders and delivering goods—an arrangement that has allowed South Korean companies to increase their exports to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Philippines. (3) However, economic growth in the Philippines has also increased the cost of living and production. South Korean companies deal with this problem by (a) transferring their operations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where labor is cheaper, and (b) expanding their sales within the Philippines.

Philippines- South Korea Relations

The Philippines has long had close ties with South Korea. In 1949,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50, during the Korean War, the Philippines was among the countries that sent forces to South Korea. In 1958, embassies were established in both countries.

In the past half century, three South Korean Presidents visited the Philippines, while one Philippine President, Fidel V. Ramos visited South Korea in 1993. In addition, 8 high-ranking Philippine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former Vice-President Salvador Laurel, and 7 Sou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Foreign Minister Lee Won Kyung, exchanged visits. In 1997, the countries' relationship was strengthened further when the Philippine government protected and handed over to South Korea Hwang Jang-Yeop, a political exile and former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 Good will was again evidenced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rticipated in the EXPO, which was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centennial of Philippine independence. These official exchanges led to 12 agreements, including the Trade Agreement (1985), Double Taxation Prevention Agreement (1986), and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1996), etc(Kim, 1999).

In addition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outh Korean businessmen and tourists, a good number of South Korean Christian missionaries,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s who wish to study English, or play golf, come to the Philippines.

As more and more South Koreans come to the Philippines for economic as well as non-economic purposes, Korean restaurants, groceries, schools, and so on have also mushroomed. The South Korean community in Metro Manila has grown considerably and is now a visible presence (Polo, 1999).

South Korean Investments in the Philippines

South Korean investment in ASEAN began at the end of the 1980'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In Indonesia, South Korean companies used local resources and materials. In Malaysia, they invested in manufacturing and assembly. And in the Philippines, they invested in textile and clothing produ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outh Korean direct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as it has been concentrated there since 1993. I interviewed South Korean entrepreneurs and sent them questionnaires¹.

Until the 1970s, the Philippines was among the Asian countries expected to develop economically. From the beginning of the 1980s, however, political unrest resulted in economic slowdown. In the 1990s, former President Ramos had a program called "Philippines 2000." Its objective was to bring the country into the ranks of the newly industrialization economies by 2000, promot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by deregulating foreign capital and improving the electrical power supply, thus expanding industrial production,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 businesses in the country.

Table 1 shows that since 1991 investment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creased rapidly. Table 2 shows that in 1995, South Korean investment was 9.6 times as much as it was the year before, ranking it after Japan.

South Korean companies expand overseas for the following reasons: (1) a labor shortage and rising wages; and (2) trade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resulting in a decrease of exports to that country. South Korean companies thus tapped the Southeast Asian markets, where they could manufacture products at lower cost and then export them to the United States.

1 The author researched Korean corporations in the Philippines from November 1996 to April 1997. There were 83 Korean corporations that ranked among the Top 7,000 in the Philippines. The author used the book Philippine Business Profiles & Perspectives, Inc.,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The Top 7,000 Corporations 1996-1997*. The author also investigated 13 other companies that expanded to the Philippines from 1975 to 1995 — 9 big conglomerates, 2 banks, 1 insurance company, and 1 shipping company, making the number of companies researched 96 in all.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Philippines²

There were 83 South Korean corporations among the top 7,000 in the Philippines in 1995. In addition to these, I selected 13 other companies—conglomerates, insurance company, banks and shipping company for a total of 96 companies, and analyzed their activities from 1975 to 1995, a period that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Conglomerates and Construction Company (1975-1980)

In 1975, a small textile trading company opened, with only five Filipino employees. Then the “Chaebol” or conglomerates—Ssang Yong in 1975, Samsung and Daewoo in 1978, Hyundai in 1980—set up branch offices in Manila. In 1977, Hanjin Engineering & Construction began building roads in Mindanao.

Slowdown : Expansion of Single Bank (1981-1986)

During this perio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moted export-oriented industries within South Korea. No South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were opened in the Philippines. However, the Korea Exchange Bank believed that the Philippine economy would soon pick up and, in 1983 opened a representative office to do market research for South Korean companies. It opened a branch office in 1995 (Litiatco, 1996).

In 1983, the Chaebol Goldstar (later LG), and Hanwha Chemical began to trade from the Philippines. At that time, however, the country was in transition from the government of Ferdinand Marcos to that of Corazon Aquino. Occasional coups d'états disrupted the economy.

Rapid Growth: Expansion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1987-1993)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saw economic fr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developed industrialized countries. Since 1987, the South Korea had also confronted many serious problems: the rise of the minimum wage, shortage of labor, and the rise of the exchange rate of the won to the US dollar. Thus, labor-intensive industries aggressively moved overseas (Ko, 1997). Small and medium-sized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textile and clothing, and fabricated-metal moved to the Philippine, export processing zones. In this period, 68% of the companies surveyed expanded their business to the Philippines.

2 The descriptions in the following chapters are taken from interviews made by the author.

In 1989, for the first time, the Chaebol Kia, went into a joint venture with a Philippine company to produce cars. Since then, other firms engaged in finance, and production of cars, chemicals, footwear and bags have been doing business in the Philippines.

In 1991, the Chaebol Samsung formed a joint venture with a Philippine company to build a large industrial district in the suburbs of Metro Manila. More and more Korean companies set up shop in the Philippines.

In 1992 and 1993, more South Korean investment poured into the fabricated-metal industry to supply manufacturers of electrical parts needed by the large household-appliance makers.

The Beginning of Large-scale Investment: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1994-1995)

In November 1994, President Kim, Young-Sam officially visited the Philippines. The two countries agreed that large South Korean companies would invest in telecommunications, power plants, and improvement of harbor facilities (*Choson Ilbo*). In the same year, Korea Telecom invested in the Philippines, followed by other companies that formed large-scale joint ventures with Philippine development companie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also set up branches to support South Korean investors. Because local wages increased, however, labor-intensive companies producing fabricated-metal, textile and clothing, and leather and footwear slowed down and stopped investing altogether.

Management of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Philippines

It can be analyzed that South Korean businesses succeeded in the Philippines based on eight categories: (1) region; (2) annual sales; (3) paid-up capital; (4) stockholders; (5) procurement of raw material and parts; (6) product market; (7) joint ventures; and (8)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Region

Almost all of the 83 corporations I studied operated in the four export processing zones, many in the 276-ha zone in Cavite, 30 km west of Manila Bay, which hosts 15 fabricated-metal, 9 textile and clothing, and 10 miscellaneous corporations, for a total of 34.

Annual Sales

In 1995, total sales of the 83 corporations amounted to US\$24.3 billion, or

1.1% that of the top 7,000 corporations, which came to \$2,171.3 billion. The following table 3 ranks industries according to their total sales.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the sales of 22 fabricated metal industries ranked first (51.8%), whereas 6 leather and footwear ranked second (17.3%). 20 textile and clothing were 7.6%, 2 general trading companies 6.1%, 10 construction 5.6%, 7 petroleum 4.4%, 7 other manufacturing 2.8%, 1 bank 1.7%, 1 real estate 1.2%, 1 machinery & equipment 0.1%, 2 service 0.5%, 1 financing and leasing 0.4%, 1 telecommunications network 0.3%, 1 food 0.09% and 1 paper and printing 0.09%.

Five out of six leather and footwear corporations were licenses of US companies, and almost all their products were exported. Of the 23 footwear makers among the top 7,000 corporations, South Korean companies ranked 1st, 2nd, 3rd, 5th, and 22nd.

Of the 22 fabricated-metal corporations, 21 were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 makers, and 18 out of these 21 subcontractors received an order of parts and delivered them. South Korean manufacturers profited much from their close cooperation with their subsidiaries.

Paid-up Capital

Table 4 summarizes the amount of paid-up capital of South Korean corporations. The capital of 9 corporations was below a hundred thousand dollars, 22 under five hundred thousand to a hundred thousand, 13 under one million to five hundred thousand, 27 under five million to one million, 2 under ten million to five million, 7 under one hundred million to ten million, and 1 over one hundred million.

Table 4 , shows that large-scale corporations in telecommunications, construction and car manufacturing are highly capitalized, but that they are outnumbered by textile and clothing, leather and footwear, and fabricated-metal corporations. Almost all South Korean corporations in the Philippines are small or medium-sized, and labor intensive.

Stockholders

Table 5 shows that South Korean investment covers a majority. The Philippines get a majority only in general trade, finance, and real estate. Almost all the Korean corporations are in Export Processing Zones. The Philippine Government does not restrict foreign investments to anything there. Koreans consider the Philippines the base of exporting.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re is so much Korean capital in the Philippines.

Procurement of Raw Material and Parts

The following table 6 (6-1, 6-2) shows the percentage of raw materials procured from South Korea and from local sources by industry. The industries which get the greater part of raw material and parts from Korea are as follows [parentheses indicate the ratio of procurement] : machinery & equipment (98%), leather & footwear (92%), petroleum (80%) , other manufacturing (68%) , fabricated metals (64%), textiles & clothing (64%), and paper & printing (50%).

The industries, that get raw material and parts within the Philippines are as follows: construction (60%), other manufactures (26%), and fabricated metals (23%).

Little is procured from Philippine companies. Almost all the fabricated-metal corporations, for example, procure raw materials and parts from South Korean corporations in the Philippines. The corporations and subsidiaries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procuring raw materials and parts, and in delivering products.

Product Market

South Korean companies export most of their products—and all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sweaters, socks, and footwear—to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y a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OEM) products trusted brand merchandise, such as Reebok or Nike, sweaters are marked—"Made in Germany," and "Made in Sweden" with only about 1% exported to South Korea, and less than 1% sold locally. Only films, pigment, peroxide, and buses are sold locally, but they amount to less than 1% of sales.

Joint Ventures

Some of the Philippines companies and Chaebol that have cooperated with each other are the followings:

Solid Group, which is managed by Chinese-Filipinos, has been linked up with Sony and Aiwa for over 20 years and has the right to make and sell their products in the Philippines.

Samsung Group has been a business partner of Solid Group for about 15 years. With Solid Group, it built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in Binan, Laguna, just south of Manila, in March 1993. It has since then encouraged South Korean investment and is developing the \$20-million Starworld Corporation Industrial Park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Laguna. Annual sales are expected to be \$25 million.

The South Korean LG Group makes and sells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It is a business partner of Collins, which is managed by

Chinese-Filipinos and sells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nd furniture.

In 1991, the South Korean Daewoo Group set up a local corporation, Filipinas Daewoo Industries, to manufacture buses. The Lopez family, which has large investments in broadcasting, communication, social capital, financ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electrical power, has a 37-percent interest in this project.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Subsidiaries of Korea Telecom and its Philippine partners are preparing to provid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ong-distance call services in provinces where there are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at the cost of \$81.5 million in Laguna and Rizal alone. They are also constructing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ll over the country.

Daelim Philippines (40% South Korean, 60% Philippines) expanded its business to the Philippines in 1995. It constructed the oil-refinery of Petron, the largest Philippine oil company, in Limay, Bataan, about 55 km from Metro Manila, the site of a 500-ha oil and chemical industrial complex. Petron has invested \$2 billion in oil-refining companies, and \$1 billion in oil and chemical companies (*Manila Bulletin*).

The Philippines as a Target for Expansion

The Philippines possesses qualities that are attractive to South Korean companies:

It has a steady supply of readily trainable workers who can communicate in English.

Labor costs are lower than in the United States, Europe, South Korea, or other developed Asian countries.

It has a ready supply of professional managers.

Air travel tim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only 3.5 hours.

Its domestic market is huge.

It is a democracy and protects investments.

Its infrastructure is poor, but this also means that South Korean investors can participate in its development.

Its government provides incentives to investors through the Board of Investments and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Lee, 1998).

I concluded from interviews that South Korean labor-intensive industries expanded to the Philippines for the following reasons:

English is an official language.

Wages and cost of production are low, although less so since 1990s.

The labor force is large.

The Philippines is close to South Korea.

The Philippines is a base for exporting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following case studies show why specific South Korean companies expanded to the Philippines.

<Case 1: The Advantage of Having Highly Educated Managers>

Since LG Collins Electronics Manila, of the LG Group of companies, invested in the Philippines in 1988, it has consistently shown high sales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equal to those of Sharp and Sony. Mr. A, head of the branch office, said, "English is spoken here, so I can make myself understood easily. The Philippines is a developing country, but Filipinos are highly educated, and there are a lot of good workers here."

Indeed, 1992, 99% of all school age Filipinos attended school. In 1995, the illiteracy rate was only 5.4% (Japan UNESCO Association), giving the Philippines the highest literacy rate in Southeast Asia.

The following table 7 (Case1-1, 1-2) shows the responses of other businessmen. The businessmen of six fabricated-metal, six textile and clothing, four businesses, two leather and footwear, two petroleum, one automatic sales, one construction, and one dyeing, a total of 23 businessmen gave the same responses. The businessmen of seven fabricated-metal, four textile and clothing, leather and footwear, two businesses, one toy, one album, one finance, and one automatic sales, a total of 21 businessmen said that Filipinos easily learn skills and techniques because they are highly educated and good skillful workers.

<Case 2: The Filipino Work Ethics>

The Chaebol Ssang Yong, invested in the Philippines in 1975. Mr. B, section chief at Ssang Yong, said, "Filipinos often make excuses. If someone is absent, and I ask why, he tells me that his mother was sick, so he had to look after her. They may say so because they have a deep love for their family. They work very slow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m understand why they have to work."

The following table 8 Case2-1, 2-2 shows the responses of other businessmen. The similar opinion "Filipinos have no sense of responsibility. They work very slowly." Seven was expressed by textile and clothing, six fabricated-metal, four businesses, two leather and footwear, two petroleum, one toy, one automatic

sales, one construction and one finance, a total of 25 businessmen.

The case study shows that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the culture, customs, and lifestyles of the two countries, and that South Koreans sometimes wonder how to handle Filipino workers.

There was an opinion that in order to avoid such problems it was important to understand Philippine culture and lifestyle fully in four fabricate-metal, four textile and clothing, two leather and footwear, two petroleum, one machinery and equipment, one finance, one construction and one businesses, a total of 16 enterprisers. But there are also some Korean managers who want to cooperate with Filipino employees.

<Case 3: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Filipino Customs>

Mr. C, president of Paramount Footwear, and head of the Korean Investor Association of Bataan, said,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hilippine history, culture, customs, social systems, and the law, if Japanese, American, and Korean businessmen are to succeed in the Philippines. Otherwise, troubles will continue to ari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ocal culture and customs, and to talk with one another. I think Filipinos are more westernized than Koreans and Japanese, and they are very rational."

In other words, South Korean managers want Filipinos to work hard, but if they do not understand Philippine history and culture, they will be unable to encourage them.

<Case 4: Anxiety about Rising Wages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Textile and clothing manufacturers were pessimistic about the rising cost of labor. Kay Lee Fashion expanded its business to the Philippines in 1987. Mr. D, president of the company and director of the Korean Trading Investor Association, said, "The clothing industry will have to withdraw in two to three years. If we want to continue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expand our markets within the Philippines rather than export to other countries." Four entrepreneurs from fabricated-metal corporations, one from dyeing, and one from construction gave similar answers.

Some businessmen, however, wish to remain in the Philippines by reducing the number of their Filipino employees. Maxon Systems Philippines produces wireless sets in the Cavite Export Processing Zone. Mr. E, president of the company, head of the Korean Investor Association of Cavite, and one of the most prominent personalities in the South Korean business community said, "In 1992, our company had 3,400 employees, and sales that year were \$85 million. In 1996, there were

3,500 employees, and sales were \$145 million. But in 1997, we will have to reduce employees to 2,000, and automate our factories in order to achieve sales of \$220 million."

He also said, "The Philippines is very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society, industry, and educational system. So we can understand Filipinos more easily than we can the socialist Chinese or Vietnamese. Even if wages are higher, we do not wish to withdraw, so we have to reduce the number of Filipino employees."

The following table 9 Case4-1, 4-2, 4-3 and 4-4 shows the responses of other businessmen. Interviewees from four fabricated-metal corporations, two textiles and clothing, one construction, and one dyeing, think that they will have to stop exporting and start selling their products within the Philippines if they wish to stay. Because of rising wages, production has declined in eight fabricated-metal, four textile and clothing, three leather and footwear, one paper and printing, one petroleum, and one telecommunications network corporations, for a total of 18 corporations. Interviewees from two textile and clothing corporations, one fabricated-metal, one machinery and equipment, and one leather and footwear said, "We will have to withdraw in two or three years." Those in five fabricated-metal, and one leather and footwear corporations, said, "We will have to withdraw in five or six years."

These cases show that until a few years ago, South Korean businesses found the Philippines highly profitable, but that those golden days have passed.

Conclusion

My investigation of South Korean businesses in the Philippines revealed the following:

The first South Korean companies that expanded into the Philippines were small or medium-sized, and labor-intensive. Now the companies are large and involved in infrastructure improvement.

The 83 Korean corporations I studied cooperate with one another, especially in procuring raw material and parts, and in delivering their products. Their cooperation has helped them export more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increased their annual sales.

The growth of the Philippine economy has caused wages to rise, hitting South Korean labor-intensive industries hard. South Korean businessmen have two policies to deal with the rising cost of labor: (a) to withdraw to countries where wages are lower, or (b) to make every effort to sell products within the Philippines.

So far, South Korean companies have profited from their lin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ow, they are expanding their business to ASEAN, including the Philippines, bringing in technology, capital, and South Korean management methods.

However, despite the rapid entry of foreign capital into the Philippines, Philippine industries have not grown. Not a few of the Filipinos I interviewed said they were afraid that the economy would stagnate.

For the Philippines, which still intend to industrialize its economy, it is certain that South Korean investment would greatly contribute.

Table1: Ma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Approved by the Board of Investments (BOI)

(Unit: Million pesos)

Country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U.S.A.	1,446	2,281	1,570	2,390	17,969	16,147	868	10,412	6,009	13,844	2,414
Germany	114	261	74	448	497	22	68	20	588	1,357	341
U.K.	478	7,809	741	64	978	3,213	0	0	2	0	0
Netherlands	193	489	293	2,159	1,245	144	128	2,369	236	0	585
Japan	7,437	5,773	1,847	3,043	2,798	2,603	1,516	3,701	2,785	1,982	1,819
Korea	516	1,223	1,084	1,109	395	57	290	66	101	32	58
Taiwan	3,419	330	232	145	7,076	349	195	387	221	194	43
Hong Kong	5,064	228	323	221	7,607	983	7,328	185	6,542	8	760
Singapore	334	83	118	1,058	1,588	96	759	341	331	580	21
Malaysia	128	15	0	205	4,875	158	181	2,245	24	6	0

Source: Board of Investments, *Amount of Equity Investments Approved Under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Laws by Country, (1968–1995)*.

Board of Investments, *Equity Investments Approved Under Various Investments Incentives Law, 1996–2000*.

Table 2: Ma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Approved by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Unit: Million pesos)

Country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January to June
Japan	1,302	5,187	31,016	12,548	32,975	25,831	8,012	14,643	10,687
Korea	473	409	3,917	2,671	1991	93	439	595	2,521
Taiwan	93	308	568	1,192	408	176	380	68	169
U.S.A.	58	1,201	3,892	2,172	15,046	10,054	2,869	6,056	199

Sourc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Investments by New Re'd & Expansions/ Add'l. Investment, 1993–1995*.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Investments by Nationality from 1995–2000*.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Approved New/Expansion Investments by Nationality from 01 January to June 2001*.

Table 3: Annual Sales

rank	Proj.	Industry	%
1	22	Fabricated-Metal	51.8
2	6	Leather and Footwear	17.3
3	20	Textile and Clothing	7.6
4	2	General trading	6.1
5	10	Construction	5.6
6	7	Petroleum	4.4
7	7	Other Manufacturing	2.8
8	1	Bank	1.7
9	1	Real estate	1.2
10	1	Machinery and Equipment	0.1
11	2	Service	0.5
12	1	Financing and Leasing	0.4
13	1	Telecommunications network	0.3
14	1	Food	0.09
14	1	Paper and Printing	0.09

Table 4: Paid-up Capital of 83 Corporations

Paid-up Capital	Proj.	Distribution %	Paid-up Capital (Unit:US\$1,000)	Average of Korean Invest- ment ratio %	Main Industries
US\$ 100,000,000 or more	1	1.2	100,000	28.2	Telecommunication Network
50,000,000	1	1.2	68,962	19.4	Construction
10,000,000	6	7.4	106,257	30	Fabricated-Metal, Service
5,000,000	2	2.5	15,453	4.4	Fabricated-Metal, Finance and Leasing
1,000,000	27	33.3	49,754	14	Fabricated-Metal, Petroleum
500,000	13	16	8,312	2.3	Fabricated-Metal, Pigment, Textile and Clothing
100,000	22	27.2	6,134	1.7	Fabricated-Metal, Construction, Textile and Clothing
50,000	3	3.7	251	0.07	Fabricated-Metal, Textile and Clothing
10,000	1	1.2	39	0.01	Construction
5,000	1	1.2	9	0.003	Fabricated-Metal
1,000	2	2.5	4	0.0006	Textile and Clothing
500	2	2.5	1	0.0002	Fabricated-Metal, Other Manufacturing
Total	(Note1)81	100	355,176	100	

Note 1: The reasons for the decrease of two corporations is as follows:—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is a branch office, so it didn't have any paid-up capital. Korea Exchange Bank is a branch office, so it gave no capital.

Source: The author interviewed 88 enterprises directly, about 7 enterprises, got the information from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and about one, got from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KOTRA).

Table5: The Number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Paid-up Capital, the Ratio of Investment of Each Country

(Unit: \$1,000)

Industries	Proj.	Paid-up Capital	Korea	Philip pines	U.S.A	Japan	Taiwan	Belgium	France	Torinidad Tobago	Singa-pore
Food	1	737	55	45							
Textile and Clothing	19	14,555	97.6	2.4							
Leather and Footwear	6	8,850	99.4	0.6							
Paper and Printing	1	300	98	2							
Petroleum	7	7,349	62	11.8	26	0.2				0.00003	
Fabricated-Metal	22	81,305	85.3	14.6	0.01	0.01	0.001	0.006	0.00009		
Machinery and Equipment	1	245	99.5	0.5							
Other Manufacturing	8	16,006	98.6	1.4		0.02					
Construction (Note1)	10	74,357	97.6	2.4							
General Trading	2	6,259	35.6	64.4							
Real Estate	1	4,016	40	60							
Telecom-munication Network	1	2,000	100								
Other Service	2	130,000	29.2	55.4						15.4	
Bank (Note2)	1	0									
Finance (Note3)	2	9,201	40	60							
Insurance	1	0									
Transportation	1	0									
Trade(Note4)	4	0									
Synthetic Trade(Note5)	6	0									
Total	96	355,180									

Note 1: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Is a branch office, so it gave no capital.

Note 2: Korea Exchange Bank is an branch office, so it gave no capital.

Note 3: One of 2 finance companies is Korea Development Bank. It is an representative, office, so it gave no capital.

Note 4 and note 5: They are branches, so they gave no capital.

Source: the same as table 3.

Table 6: Procurement of Raw Material and Parts

6-1 From South Korea

Industry	Average Percentage From South Korea (%)
Machinery and Equipment	98
Leather and Footwear	92
Petroleum	80
Other Manufacturing	68
Fabricated-Metal	64
Textile and Clothing	64
Paper and Printing	50

6-2 From Local Sources

Industry	Average Percentage From Local Sources (%)
Construction	60
Other Manufactures	26
Fabricated-Metal	23

Table 7: Case 1

Case1-1

The advantage of having highly educated workers.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Fabricated-Metal	6
Textile and Clothing	6
Businesses	4
Leather and Footwear	2
Petroleum	2
Automatic Sales	1
Construction	1
Dyeing	1
Total	23

Case1-2

The Filipinos are easily learn skills and techniques.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Fabricated-Metal	7
Textile and Clothing	4
Leather and Footwear	4
Businesses	2
Toy	1
Album	1
Finance	1
Automatic Sales	1
Total	21

Tble 8: Case 2

Case2-1

Filipinos have no sense of responsibility. Filipinos works very slowly.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Textile and Clothing	7
Fabricated-Metal	6
Businesses	4
Leather and Footwear	2
Petroleum	2
Toy	1
Automatic Sales	1
Construction	1
Finance	1
Total	25

Case2-2

Important to understand Philippine culture and lifestyle fully.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Fabricated-Metal	4
Textile and Clothing	4
Leather and Footwear	2
Petroleum	2
Machinery and Equipment	1
Finance	1
Construction	1
Businesses	1
Total	16

Table 9: Case 4

Case4-1

Korean businessmen will have to stop exporting and start selling their product within the Philippines.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Fabricated-Metal	4
Textile and Clothing	2
Construction	1
Dyeing	1
Total	8

Case4-2

Korean Businessmen think that the rise of wages and production has declined.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Fabricated-Metal	8
Textile and Clothing	4
Leather and Footwear	3
Paper and Printing	1
Petroleum	1
Telecommunications Network	1
Total	18

Case4-3

Korean Businessmen will have to withdraw in two or three years.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Textile and Clothing	2
Fabricated-Metal	1
Machinery and Equipment	1
Leather and Footwear	1
Total	5

Case4-4

Korean Businessmen will have to withdraw in five of six years.

Industry	Number of Businessmen
Fabricated-Metal	5
Leather and Footwear	1
Total	6

REFERENCES

BOOKS

- Kim, Tae Myung. (1999). A Search for Korea-Philippine Collaborative Relations in the New Era: With Special Focus on Economy. Kim, Won Bae (Ed.), *The Philippines and the Republic of Korea: Meeting the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pp.207-223). Korea: Hannam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an.
- Ko, Yong-Soo. (1997) Kankoku Takokuseki Kigyo to Intra Ajia Boeki (Korean Transnational Companies and Intra Asian Trade), Nobuyoshi Nakagawa (Ed.), *Intra Ajia Boeki to Shinkogyoka, (Intra Asian Trade and New Industrialization)* (pp.41-74). Japan: Osaka Municipal University.
- Lee, Kwan Soo. (1998). South Korean Business and Commercial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Polo, Lily Ann (Ed.),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Strengthening the Partnership* (pp.58-65). Philippines: Asian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 Litiatco, Vicki J (Ed.). (1995). *Philippine Banking Almanac 1995-1996*. Philippines: Ventures Unlimited, Inc.
- Polo, Lily Ann. (1999). Beyond Economics: The Socio Cultural Dimensions of

Philippines-South Korea. Kim, Won Bae (Ed.), *The Philippines and the Republic of Korea: Meeting the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pp.169-205). Korea: Hannam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an.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Ed.) (1996) *The Top 7,000 Corporations 1996-1997*.

Philippines: Philippine Business Profiles & Perspectives, Inc.

NEWSPAPERS

Choson Ilbo, November 12, 1994

Manila Bulletin, February 17, 1997

Manila Bulletin, February 26, 1997

투고규정

-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코리아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코리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2)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타자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글일 경우는 “한글”, 영어일 경우에는 “Word”로 입력한다.
-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 원고일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문 원고일 경우 그 분량을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Notes for Contribu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1) members of ISKS; and
- (2)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by “한글” or “Word”.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s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543-0024 日本 大阪府天王寺区舟橋町2-2 OICセンター

国際高麗学会「国際高麗学」編集委員会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Hunah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논문모집 *****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

발행일 : 2002년 6월 15일

편집인 : 송재목

발행인 :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총장 송남선

발행처 : 국제고려학회

〒543-0024 日本 大阪府天王寺区舟橋町2-2 OIC Center
国際高麗学会「国際高麗学」編集委員会

TEL : +81-6-6768-8425

FAX : +81-6-6763-5080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8

A Special Volume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the Pyongyang Branch

<Pyongyang Branch>

Historical origin and meaning of name "Koryo"

Kong Myong Song 1

Thaesongri Koguryo Tomb No.3 with murals of high academic attention

Kim In Chol 20

Ethos of the Korean nation reflected In pop music before national liberation

Ryu Man 39

Value of historical materials of "Bibyonsa Dungnok(Record of Unusual Events)" and some principle In Its translation

Song Han Won 58

Philosophical Idea of Choe Han Gi

Jong Song Chol 77

Debate on "Univocability" of affix of agglutinative language

Jong Sung Gi 100

Study of features of old Korean Characters

Choe Tong On 121

<Japan Branch>

A Study on the Existence of Japanese Financial Assistance
the Private Korean Schools in Kanto China During 1908-1909

Piao Longyu 143

A Study of South Korean Investment in the Philippines

Kutsumi Kanako 157

2002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